

최 배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朝鮮後期 宮中進宴을 통해 본 茶文化 研究

- 19世紀 進宴儀軌를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전공

김 경 희

朝鮮後期 宮中進宴을 통해 본 茶文化 研究

- 19世紀 進宴儀軌를 중심으로 -

최 배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예절다도학전공

김 경 희

인 준 서

김경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①

심사위원_____ ①

심사위원_____ ①

2006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朝鮮後期 宮中進宴을
통해 본 茶文化 研究

김
경
희

論 文 概 要

본 논문은 19세기 進宴儀軌를 중심으로 朝鮮後期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文化을 연구함에 있어 進宴의 의식절차로서 기록된 進茶의 내용을 고찰하고 그에 나타난 茶文化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목적하였다.

고찰 대상 문헌으로 선정된 6종의 의례는 宮中에서 거행된 壽宴을 축하하는 행사를 기록한 戊子年(순조 28년) 進爵儀軌, 己丑年(순조 29년) 進饌儀軌, 戊申年(헌종 14년) 進饌儀軌, 丁丑年(고종 14년) 進饌儀軌, 丁亥年(고종 24년) 進饌儀軌, 壬辰年(고종 29년) 進宴儀軌였다.

논문 전개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朝鮮 宮中進宴 文化의 時代的 背景을 살펴보기 위해 進宴의 意味와 歷史를 探究하였다. 進宴은 조선시대 국가에 慶事가 있을 때 宮中에서 베풀었던 잔치를 의미하였다. 조선전기에는 進豊문과 같은 대규모의 연회가 행해졌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王이나 王世子가 그 부모를 위해 마련하는 王室의 행사로 치러지게 되면서 국가차원의 규모인 豊문의 연회보다는 家内の 규모인 進宴의 연회로 그 성격이 축소되어 갔다. 이에 조선후기의 進宴은 보다 간소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王室의 壽宴과 같은 慶祝 行사의 의미에서 宗親, 功臣, 臣下, 百姓들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文化로 자리를 잡아 가게 되었다.

2. 朝鮮後期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文化을 고찰하기 위해 宮中에서 영위되었던 전반적인 茶文化의 양상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6종의 進宴儀軌에 기록된 진연의 실행동기, 시기, 구성, 장소, 주인공과 주요참석자를 분석하였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茶는 宮中에서 특별한 의식을 위해 사용되어 宴享을 실행할 때뿐만 아니라 중국사신을 접견하는 賓禮를 행할 때,

凶禮나 吉禮와 같은 왕실의 儀禮 행사를 거행할 때는 茶가 사용되었다. 이 같은 宮中 茶文化의 배경을 토대로 6종의 進宴儀軌에 나타난 진연의 실행동기를 살펴본 결과 이들 수연을 기념하는 進宴은 왕실의 가장 웃어른인 大王大妃 또는 王의 생신을 위한 進饌 또는 進爵의 규모로 행해진 특징을 지녔다. 진연의 시기는 수연일인 正日을 비롯하여 그 후에 열리는 제반 행사를 포함하면 기간에 있어서 약 2~4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進宴의 구성은 생신을 맞이하는 주인공에 따라 달라지는데 王의 생신인 己丑年(1829년)과 壬辰年(1892년)의 進饌에서는 王世子, 宗親, 儀賓, 文武百官, 諸臣들이 주축이 되어 남자들만의 外進饌儀가 실행되었고, 그 다음 날 王과 王妃가 함께 주인공이 되어 左右命婦들도 참여하는 가운데 內進饌과 夜進饌을 거행하였으며 셋째 날에는 그동안 진찬을 준비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과 더불어 王世子가 會酌儀를 행하였다. 이에 반해 大王大妃의 생신인 경우에는 王과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 公主 등의 왕실 가족과 封號를 가진 여성인 命婦, 宗親, 儀賓, 戚臣 등의 왕실 친인척들이 참석하는 內進饌과 夜進饌이 실행되었고 그 다음날에는 大王大妃에게 進饌을 올리기 위해 애쓴 사람들과 더불어 王이 會酌을 행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戊申進饌儀(1848년)부터는 翌日이나 再翌日에 會酌 이외에도 夜讌이 거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연이 실행된 장소는 진연의 주인공에 따라 정해졌다. 대왕대비를 위한 內進饌일 경우에는 대왕대비가 거처하는 內殿에서 행해지며, 왕을 위한 外進饌일 경우에는 왕과 제신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집무를 보는 外殿에서 進宴이 실행되었다. 진연의 주인공과 주요참석자는 진연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 즉 外進饌의 경우 王을 주인공으로 하여 諸臣들이 주요 참석자가 되었으며, 內進饌은 주인공 이하 王과 王妃, 左右命婦, 宗親, 儀賓, 戚臣, 進饌所 堂上郎廳 등 왕실의 가족과 친인척들 그리고 諸臣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夜進饌에는 주요 왕실 가족으로서 주인공이 大王大妃인 경우 王까지, 주인

공이 王인 경우 王世子까지만 참석하였다. 會酌은 進宴을 올린 王 또는 王世子를 비롯하여 進宴의 제반 준비에 힘쓴 進饌所堂上和 郎廳, 그리고 命婦들이 참석하였다. 끝으로 夜讌에는 王 또는 王世子와 進饌所堂上郎廳만이 참석한 특징을 보였다.

3. 본 연구에서와 같이 壽宴을 목적으로 하는 19世紀 宮中進宴 儀式 내 進茶의 節次와 제반 구성요소들에 나타나는 茶文化의 特徵을 정신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朝鮮後期 宮中進宴에서의 茶文化의 특징을 조명하였다. 첫째 茶文化의 정신적인 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壽宴을 기념하는 宮中進宴 내 進茶의 節次는 進宴의 儀式別로 忠, 孝, 愛의 정신적 배경을 담고 있었다. 1) 王, 王世子, 諸臣들이 참석하는 남성들 중심의 外進饌의 경우는 王世子가 王에게 一爵을 올린 후 進饌과 함께 進茶의 의식이 행해졌으며, 班首가 王에게 二爵을 올린 후에는 王世子에게도 茶가 올려졌다. 이 같은 外進饌은 君臣간의 義理를 재확인하고 結속을 도모하는 忠의 실천의 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2) 內進饌의 경우 주인공인 大王大妃나 王이 먼저 직계 자손이 올리는 술을 받은 후 尙食이 올리는 茶를 받는 進茶 의식이 행해졌고, 이어 자신에게 술을 올린 직계 자손들에게 술을 내리고 그들에게 女執事나 女官으로 하여금 茶를 올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內進饌의 의식은 가족윤리로서의 부모에 대한 孝와 자녀에 대한 慈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夜進饌에서 進茶 의식 역시 內進饌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인공과 직계자손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절차라고 하는 유사점을 갖는 동시에 宮中の 公的 행사로서의 內進饌에 비해 보다 부모자녀의 친밀한 情을 나누는 私的인 자리로서 孝의 윤리인 父子慈孝를 실천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르게 세우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會酌과 夜讌의 進茶 의식절차는 모두 一爵 후 女執事が 王이나 王世子에게 茶를 올리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會酌과 夜讌은 進爵이나 進饌의 제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쓴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王이나 王世子가 마련하는 愛民의 자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둘째, 宮中進宴 儀式 내 進茶 節次의 제반 구성요소로서 茶, 茶食, 茶席 및 茶具, 茶樂, 茶服의 면에서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1) 朝鮮後期 進宴의 進茶 儀式에 쓰인 茶는 雀舌茶였으며 進宴에 나타나는 進茶는 술에 비해서는 일부를 차지하는 儀式이긴 하지만 進宴의 주인공을 향한 禮로 尊敬과 精誠을 표하는데 茶가 가지고 있는 儀禮的 價値를 반영하였다. 2) 進宴에 쓰인 茶食으로는 녹말다식, 각색다식, 흑임자다식, 송화다식, 황률다식, 청태다식, 강분다식, 3색 다식이 기록되어 있었다. 3) 茶席 및 茶具에 관해서는 儀軌의 圖式, 儀註와 排設 기록과 더불어 朝鮮時代 궁중행사의 전모를 그림으로 정리한 圖屏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 의식을 행하기에 앞서 각 참석자들의 자리배치, 茶具의 종류와 위치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행사장을 꾸미는데 필요한 地衣·차일·방석·揮帳·병풍·탁자·樽花 등도 제시되어 있었다. 4) 進宴에서 進茶 의식을 행할 때의 茶樂은 女執事의 지시에 따라 연주가 시작되었으며 尙食, 女執事, 女官이 差備로서 茶를 올리는 進茶가 끝나면 茶樂이 그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夜進饌과 會酌에서는 樂이 연주되고 舞가 함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進宴에 쓰인 茶樂들의 대부분은 鄉唐交奏라는 별칭이 사용되었다. 5) 進宴에 있어 茶를 올리는 역할을 담당했던 差備의 복식은 저고리는 三色綠廣袖가 달린 草綠圓衫을 입으며, 치마는 안에는 藍色치마, 겉에는 紅紗치마를 입고, 靑錦繡帶 또는 藍色金繡帶를 착용하고, 紅色溫鞋를 신는 특징이 있었다.

목 차

論文概要

I. 緒論	1
1. 問題提起	1
2. 研究方法 및 範圍	3
II. 朝鮮의 宮中進宴文化	16
1. 進宴의 意味	16
2. 進宴의 歷史	20
III. 朝鮮後期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文化	37
1. 朝鮮後期 宮中の 茶文化	37
2. 宮中進宴 儀軌에 記錄된 儀式	42
3.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文化의 特徵	71
IV. 結論 및 提言	96

參考 文獻

ABSTRACT

表 目 次

<표 1> 朝鮮王朝 19세기 進宴儀軌	4
<표 2> 戊子進爵儀軌의 구성	6
<표 3> 己丑進饌儀軌의 구성	8
<표 4> 戊申進饌儀軌의 구성	10
<표 5> 丁丑進饌儀軌의 구성	12
<표 6> 丁亥進饌儀軌의 구성	13
<표 7> 壬辰進饌儀軌의 구성	14
<표 8> 성종 19년의 진연 기록	22
<표 9> 중종 代의 진연 기록	24
<표 10> 명종 代의 진연 기록	26
<표 11> 숙종 代의 진연 기록	30
<표 12> 영조 代의 진연 기록	33
<표 13> 고종 代의 진연 기록	36
<표 14> 戊子進爵儀軌의 의식절차	43
<표 15> 己丑進饌儀軌의 의식절차	48
<표 16> 戊申進饌儀軌의 의식절차	52
<표 17> 丁丑進饌儀軌의 의식절차	56
<표 18> 丁亥進饌儀軌의 의식절차	60
<표 19> 壬辰進饌儀軌의 의식절차	65
<표 20> 宮中の 進宴	68

<표 21> 內進饌의 節次 비교	73
<표 22> 夜進饌의 節次 비교	75
<표 23> 會酌의 節次 비교	76
<표 24> 夜讌의 節次 비교	77
<표 25>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	81
<표 26>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食	83
<표 27> 朝鮮後期 進宴儀軌에 나타난 茶樂	93

그림 목차

<그림 1> 제 23대 순조 가계도	5
<그림 2> 제 24대 헌종 가계도	9
<그림 3> 제 26대 고종 가계도	11
<그림 4> 《丁亥進饌圖屏》 〈萬慶殿進饌圖〉	86
<그림 5> 《丁亥進饌儀軌》 〈圖式-器用圖〉	87
<그림 6> 壬辰進饌儀軌 중 勤政殿 外進饌의 상차림- 進茶	88
<그림 7> 《己丑進饌圖屏》	88
<그림 8> 《戊申進饌圖屏》의 제 2장면 〈通明殿進饌圖〉 대청부분	89
<그림 9> 《戊申進饌圖屏》의 茶亭	89

I. 緒 論

1. 問題提起

조선시대의 進宴은 대왕대비, 왕대비, 왕, 왕비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세자의 탄생과 책봉을 축하하기 위해, 외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궁중의 연회로 거행되는 경축행사였다. 이러한 궁중의 진연은 조선전기에는 대규모의 의식으로 여러 차례 거행되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왕실의 가장 웃어른의 생신이나 왕의 등극 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그 규모가 축소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양난 이후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었던 19세기에는 수연을 기념하거나 등극 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진연의 대부분은 進饌 또는 進爵의 규모로 선행되었으며 이는 왕실기록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儀軌를 통해 잘 나타난다.

현재까지 선행된 進宴儀軌를 토대로 한 宮中 宴享에 관한 연구들은 宴享文化의 역사와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즉 宮中 進宴의 文化를 고찰하는 것으로 음악사, 공연사, 복식사, 회회사, 식문화사 등의 분야에서 儀軌에 나타난 進宴, 呈才, 音樂, 服飾, 繪畫, 飲食 등을 분석하고 그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는 연구¹⁾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들 선

1) 김영봉. 조선조 儀軌에 나타난 宴禮樂의 변천. 民族音樂學 14(1). 1992. pp.56-88.
박은순. 朝鮮後期 進饌儀軌와 進饌儀軌圖, -己丑年 「진찬의례」를 중심으로. 民族音樂學 17(1). 1995. pp.175-198.
송방송. 己丑年 「進饌儀軌」의 公演史料的 性格. 韓國文化 16. 1995. pp. 127-180.
이미영. 憲宗時代의 宮中呈才 및 呈才服飾에 관한 比較 研究. 清藝論叢 9. 1995. pp.391-410.
김경실. 憲宗王后 七旬 進饌 10曲圖屏과 辛丑進饌儀軌에 나타난 服飾研究. 복식 32. 1997. pp.1-13.
김중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변천. 東方學 6. 2000. pp.51-93.
_____. 조선시대 궁중연향 고찰.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6. 2000. pp.143-171.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일지사. 2000.
윤정민. 조선 순조 「儀軌」에 기록된 정제 사료연구. 舞踊學會論文集 33. 2002. pp. 79-96.
김문식·신병주. 「조선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례」. 서울:돌베개. 2005.
김지영. 朝鮮時代 進宴儀軌類 呈才服飾에 나타난 織物 研究.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각 학문분야마다 현존하는 朝鮮後期の 進宴儀軌를 중심으로 宮中の 宴享 文化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食生活文化의 史料로서 進宴儀軌에 기록된 찬품을 분석하여 궁중잔치음식의 내용구성과 상차림의 규모를 살펴보는 연구²⁾는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문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茶文化를 宮中進宴의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朝鮮後期の 進宴은 宮中の 慶祝 行事로서 중요한 기록으로 남겨져 왔으며, 그러한 進宴儀軌 내에서 하나의 節次로 등장하는 進茶 의식은 宮中에서 영위되었던 茶文化의 양상을 대변해 준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進宴의 의식절차로서 기록된 進茶의 내용을 중심으로 朝鮮後期 宮中 茶文化에 대한 역사적 연구 시각에서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文化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5.

- 2) 이호지. 『進饌儀軌』의 調理學的 考察. 韓國生活科學研究 3. 1985. pp.271-291.
 윤서석. 조선시대 궁중연회음식 중 과점류의 분석적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3). 1986. pp.79-100.
 _____. 高宗 24년 進饌儀軌 笏記 儀禮節次에 대한 分析的 研究.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2). 1991. pp. 151-168.
 _____. 高宗 24년 進饌儀軌 饌物에 대한 分析的 研究.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3). 1991. pp.259-277.
 김상보 외 5명.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 중 萬慶殿 正日進饌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1). 1991. pp.53-72.
 _____.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의 食儀禮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1). 1991. pp.43-56.
 _____.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 중 萬慶殿 夜進饌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2). 1991. pp.175-183.
 _____.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 중 萬慶殿 翌日夜宴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3). 1991. pp.211-230.
 _____.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 중 萬慶殿 再夜翌日會酌 과 萬慶殿進再饌翌日 夜宴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3). 1991. pp.239-246.
 김상보. 『조선왕조 궁중의례음식문화』. 서울:수학사. 1995.
 _____. 『조선왕조 궁중연회식의례음식의 실제』. 서울:수학사. 1995.
 _____. 朝鮮通信使 및 日本使臣을 통해 본 韓·日간의 飲食文化의 비교와 대마도에서의 宴會를 통해서 朝鮮王朝의 壽杯床·果盤·阿架床 考,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4(2). 1999. pp.115-129.

2. 研究方法 및 範圍

1)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조선시대 進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儀軌를 비롯하여 궁중행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朝鮮王朝實錄을 대상으로 문헌고찰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朝鮮後期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文化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고찰대상 문헌을 선정하였다.

1차 선정 기준으로 궁중잔치 의식이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된 순조(재위 1800~1834) 代에서 갑오경장(1894)까지³⁾ 즉 19세기에 宮中에서 거행되었던 進宴儀軌(進饌儀軌 및 進爵儀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1). 이들 자료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2차 선정 기준으로 宮中 進宴의 의식 부분에서 進茶 절차가 기록된 의례만을 선정하였다. 이에 19세기 궁중진연 의식인 순조 28년(1828) 戊子進爵儀軌에서부터 進茶 절차가 명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進茶 절차가 포함된 6종의 의례는 모두 궁중의 대왕대비 또는 왕의 壽宴을 축하하기 위한 진연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고찰 대상 문헌으로 선정된 6종의 의례는 19세기 궁중에서 거행된 수연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기록한 의례인 戊子年(순조 28년) 進爵儀軌, 己丑年(순조 29년) 進饌儀軌, 戊申年(헌종 14년) 進饌儀軌, 丁丑年(고종 14년) 進饌儀軌, 丁亥年(고종 24년) 進饌儀軌, 壬辰年

3) 조선시대 의례의 내용 및 체제로 볼 때 제 1기는 정조 이전, 제 2기는 순조 이후 갑오경장까지, 제 3기는 갑오경장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1기의 것에는 각종 도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각 방(房)에 분장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2기와 3기에 만든 것은 각종 도식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모든 의전에 관한 업무를 진연청 또는 진찬소 등에서 총괄하여 관장한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3기인 갑오경장 이후에는 의례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대체로 바뀐 특징이 있다 (<http://www.encykorea.com>).

(고종 29년) 進宴儀軌였다.

<표 1> 朝鮮王朝 19세기 進宴儀軌

의례명	진연시기	실행 동기
己巳進饌所儀軌	순조 9년(1809. 2)	혜경궁 회가례연
丁亥進爵整理儀軌	순조 27년(1827. 9)	순조, 순원왕후 존호 기념연
戊子進爵儀軌*	순조 28년(1828. 2)	순원왕후 사순생신 송수연
己丑進饌儀軌*	순조 29년(1829. 2)	순조 사순생신, 등극기념연
戊申進饌儀軌*	헌종 14년(1848. 3)	순원왕후 육순송수연, 왕대비사순
戊辰進饌儀軌	고종 5년(1868. 12)	대왕대비 회갑 송수연
癸酉進爵儀軌	고종 10년(1873. 4)	고종 존호기념일
丁丑進饌儀軌*	고종 14년(1877. 12)	신정왕후 칠순 생신 송수연
丁亥進饌儀軌*	고종 24년(1887. 2)	신정왕후 팔순 생신 송수연
壬辰進饌儀軌*	고종 29년(1892. 9)	고종 41세 생신, 등극 30년 기념연

* 표는 進茶의 절차가 명시된 의례로 본 연구의 고찰대상임.

2) 고찰문헌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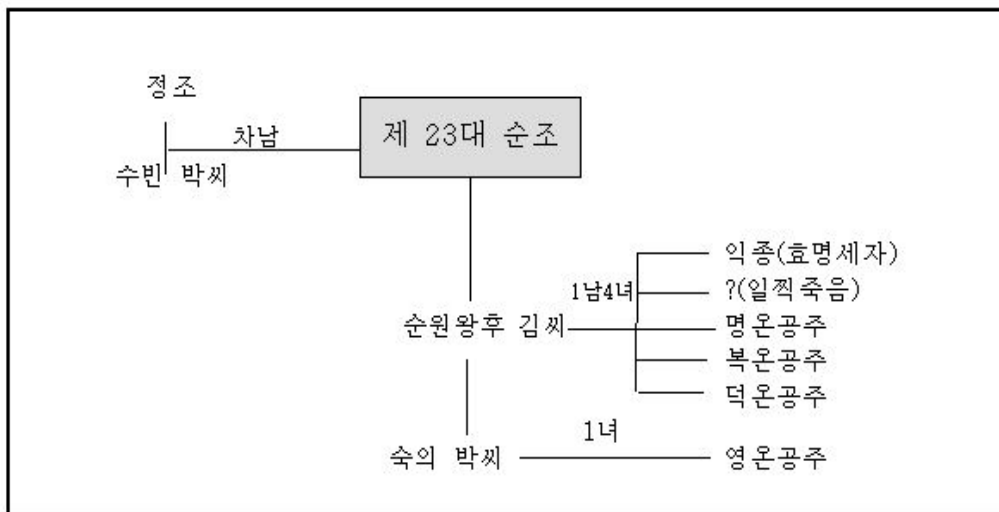
(1) 戊子進爵儀軌

進爵儀軌는 왕과 왕비에 대해 작위를 높일 때 행한 의식을 기록한 책이다.

戊子進爵儀軌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순조 27년(1827) 왕세자(뒤의 현

종)가 대리청정을 하면서 부왕인 순조에게 淵德顯道景仁純禧, 왕비인 순원 왕후에게 明敬이라는 尊號를 올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9월에 慈慶殿에서 進爵을 설행하였고, 이듬해 순조 28년(1828) 순원왕후4)의 40세를 경축하는 進爵이 2월과 6월에 행해진 내용을 기록한 것이 『戊子進爵儀軌』였다.

본래 순원왕후의 생신은 5월인데, 2월에 進爵禮를 행한 것은 순원왕후가 40세에 이른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만년장수를 축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신 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월에 40세를 경축하는 宴享을 이미 올리었으므로, 6월에 행한 생신잔치는 아주 조촐하게 거행된 특징을 보인다.5)



<그림 1> 제 23대 순조 가계도

『戊子進爵儀軌』는 다음의 <표 2>와 같이 卷首· 卷一· 卷二· 附編의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4) 純元王后(1789~1857)는 안동김씨 永安府院君 祖淳의 딸로서 1800년(정조 24년)에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간택이 결정되었으나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여 삼간택이 연기되었다가 1802년(순조 2년) 왕비로 책봉되었다. 1809년(순조 9년) 8월에 孝明世子(익종)를 낳았다.

5)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의궤 해제집 1권. 2003. p.63.

<표 2> 戊子進爵儀軌의 구성

구분	내용구성
卷首	擇日·座目·圖式
卷一	令教·筵說·樂章·致詞·箋文·儀註·申目
卷二	饌品(附彩花)·器用·修理·排設·儀衛·內外賓·工伶·樂器風物·賞典
附編	擇日·令教·樂章·儀註·饌品·器用·修理·排設·儀衛·工伶·賞典

이중 卷首, 卷一, 卷二는 2월에 거행된 進爵의 내용구성이고, 附編은 6월에 행해진 進爵의 내용이다.

卷首에는 날짜와 장소를 결정하는 擇日에 대한 기록이 있고, 座目에는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의 명단이 실려 있으며, 진연시의 자리배치와 행사광경, 공연된 각종 呈才의 모습, 머리에 꽃거나 床 또는 연향장소를 장식한 꽃, 器用과 樂器, 시위와 정재에 쓰인 儀仗, 전악·악공·무동·처용의 복식 등이 그려져 있는 궁중연향의 면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圖式이 있다.⁶⁾

卷一의 令教와 筵說은 연향에 중요한 논의를 적어 놓은 것이며, 樂章은 공연을 위한 내용이고, 致詞와 箋文은 세자나 신하 등이 頌祝하는 글로써 올린 것이다. 儀註에는 진연의 의식절차가 실려 있고, 申目에는 진연에 쓰이는 찬품에 대한 문서가 기록되어 있다.

卷二의 饌品에는 진연에 쓰이는 음식의 종류와 음식에 쓰이는 재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器用에는 음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리기구, 음식을 진설하는데 필요한 그릇 등 진연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실려 있다. 특히 찬품

6) 서울대학교 규장각. 전게서. 2003. p.62.

은 진연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修理에는 진연의 행사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물품과 건물을 보수하거나 장식하는데 쓰이는 재료와 비용이 기록되어 있고 배설에는 물품배치 등이 실려 있으며, 儀衛에는 진연에 참석하는 대왕대비·왕·왕비·세자·세자빈 등을 侍衛하는 각 差備 등이 기록되어 있다. 內外賓은 잔치에 참여한 내외빈의 명단이며 工伶에는 악가무차비 명단과 정재종목 및 악기편성 등이 실려 있고, 樂器風物에는 악기와 정재도구·악가무차비의 복식 등을 보수하거나 마련하는데 드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 및 匠料가 실려 있다. 賞典에는 진연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內廐馬·熟馬·木·布·虎皮·上弦弓 등 물품을 적어 놓았는데 때로는 품계를 올려주거나, 천인을 면제해 주는 것을 상으로 내리기도 하였다.⁷⁾

(2) 己丑進饌儀軌

『己丑進饌儀軌』는 순조 29년(1829) 순조의 사순생신을 경축하고 아울러 등극 30년 기념을 경축하기 위해 베푼어진 進饌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2월 9일 明政殿에서 왕이 주인공이 되고 왕세자, 종친, 문무백관들만이 참여하는 가운데 外進饌이 설행되었다. 2월 12일에는 慈慶殿에서 왕을 비롯하여 왕세자, 왕세자빈, 좌우명부, 종친 등이 참여하는 內進饌이 설행되었고 같은 날 밤 왕과 왕세자가 참여한 夜進饌이 설행되었다. 다음날인 2월 13일에는 王世子會酌이 있었다.

『己丑進饌儀軌』는 다음의 <표 3>와 같이 卷首· 卷一· 卷二· 卷三의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7) 서울대학교 규장각. 전게서. 2003. p.63.

<표 3> 己丑進饌儀軌의 구성

구분	내용구성
卷首	擇日·座目·圖式
卷一	睿疏·令敎·筵說·樂章·致詞·儀註·節目·啓辭·稟目·甘結·移文·來關
卷二	饌品·綵花·器用·修理·排設·儀仗·儀衛
卷三	參與諸臣·內外賓·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

券一의 睿疏는 王世子가 進饌을 허락하도록 王에게 올리는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이며, 令敎는 進饌을 행하기 위해 王世子가 내리는 命을 날짜별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筵說에는 筵席에서 王의 諮問에 답하여 올리는 말과 경사가 있을 때 王에게 올리는 頌德의 글인 致詞가 기록되어 있다. 稟目은 계목과 조목을 기록한 것으로 王에게 여쭙는 것을 계목, 王 대신 王世子에게 여쭙는 것을 조목이라고 한다. 甘結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서의 내용이며, 移文과 來關은 진찬소와 각 관아 사이에 오고간 공문이다.

券二의 儀衛는 왕이나 왕세자의 거동에 따르는 행사 보조인원과 경비군사들의 임무 등 儀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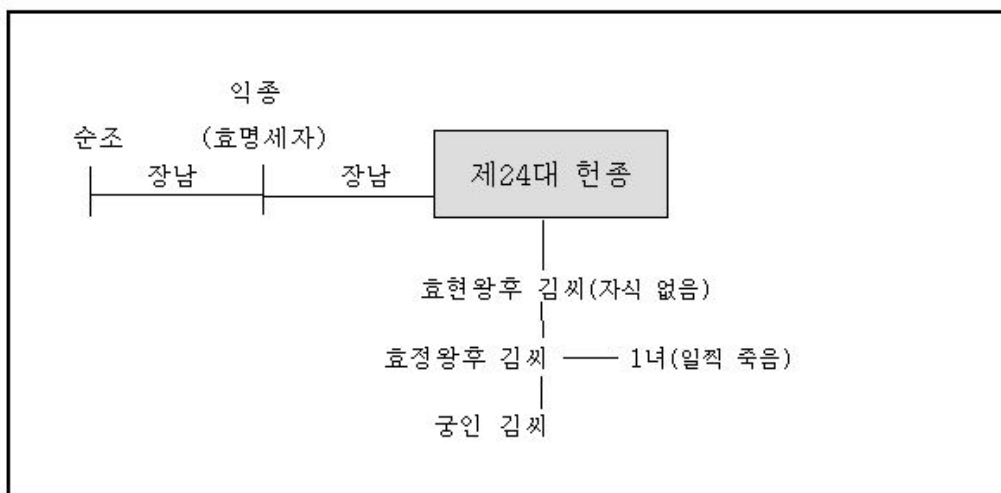
券三의 工伶은 공연을 하는 무용수와 악공의 복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며, 賞典은 진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을 기록하고, 財用은 진연에 소요된 지출과 수입을 정리하여 기록한 것이다.

(3) 戊申進饌儀軌

『戊申進饌儀軌』에는 헌종 14년(1848) 大王大妃인 順원왕후가 육순이 되고 헌종의 어머니인 王大妃 神정왕후⁸⁾가 望五(41세)가 되는 해에 정월 초

하루 致詞와 表裏를 올리며, 경축행사를 행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헌종 임금이 대왕대비전 육순과 왕대비전 望五를 頌壽하고자 존호와 진찬을 올리겠다는 뜻을 1847년 11월 15일에 표명⁹⁾하고, 11월 18일부터 進饌所堂上¹⁰⁾을 召見하여 본격적으로 준비¹¹⁾를 하게 되었다. 1848년 3월 17일 卯時에 昌慶宮 내전인 通明殿에서 대왕대비전 內進饌이 設行되었고¹²⁾, 그 날 밤 2更(밤 9~11시)에 夜進饌을 행했으며, 3월 19일 통명전에서 大殿會酌과 夜譙¹³⁾을 設行하였다.



<그림 2> 제 24대 헌종 가계도

8) 神貞王后(1808~1890)는 익종의 비이며 헌종의 어머니로서 풍은부원군 조만영의 딸이다. 12세 때 효명세자의 비로 책봉되어 세자빈이 되어 1827년(순조 27년)에 헌종을 낳았다. 1834년 헌종이 왕위에 오르고 죽은 남편이 익종에 추존되자 왕대비에 봉해졌으며, 1857년 순조 비인 순원왕후가 죽자 대왕대비가 되었다.

9) 『憲宗實錄』 권14 헌종 13년 11월 辛卯(15)(48-527).

10) 進饌所堂上은 朝鮮時代 進饌所의 책임을 맡았던 堂上官을 지칭하며 그 아래에는 堂下官으로 郎廳을 두어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1) 『憲宗實錄』 권14 헌종 13년 11월 甲午(18)(48-527).

12) 『憲宗實錄』 권15 헌종 14년 3월 辛卯(17)(48-529).

13) 『憲宗實錄』 권15 헌종 14년 3월 癸巳(19)(48-529).

『戊申進爵儀軌』는 卷首· 卷一· 卷二· 卷三의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戊申進饌儀軌의 구성

구분	내용구성
卷首	擇日·座目·圖式
卷一	傳敎·筵說·樂章·致詞·箋文·儀註·事目·啓辭·啓目·移文·來關
卷二	稟目·甘結·饌品(附彩花)·器用·修理·排設
卷三	儀仗·儀衛·內外賓·問安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

卷一의 事目은 진찬소와 의궤청의 운영규정이며, 啓目은 임금에게 아뢰는 啓本에 덧붙인 문서로 사용원에서 올린 1건이 기록되어 있다. 啓辭에는 進饌所郎廳과 進饌儀軌廳郎廳이 堂上의 뜻으로 임금에게 여쭙는 내용이 실려 있다. 移文과 來關은 진찬소와 각 관아사이에 오고간 공문으로 進饌 경비 마련과 女伶 동원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卷二의 稟目은 진찬소와 의궤청에서 구체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은 문서로서 1847년 11월 29일부터 1849년 윤 4월 2일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甘結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으로 1847년 11월 17일에서 1849년 윤 4월 8일까지에 걸쳐 보낸 공문 기록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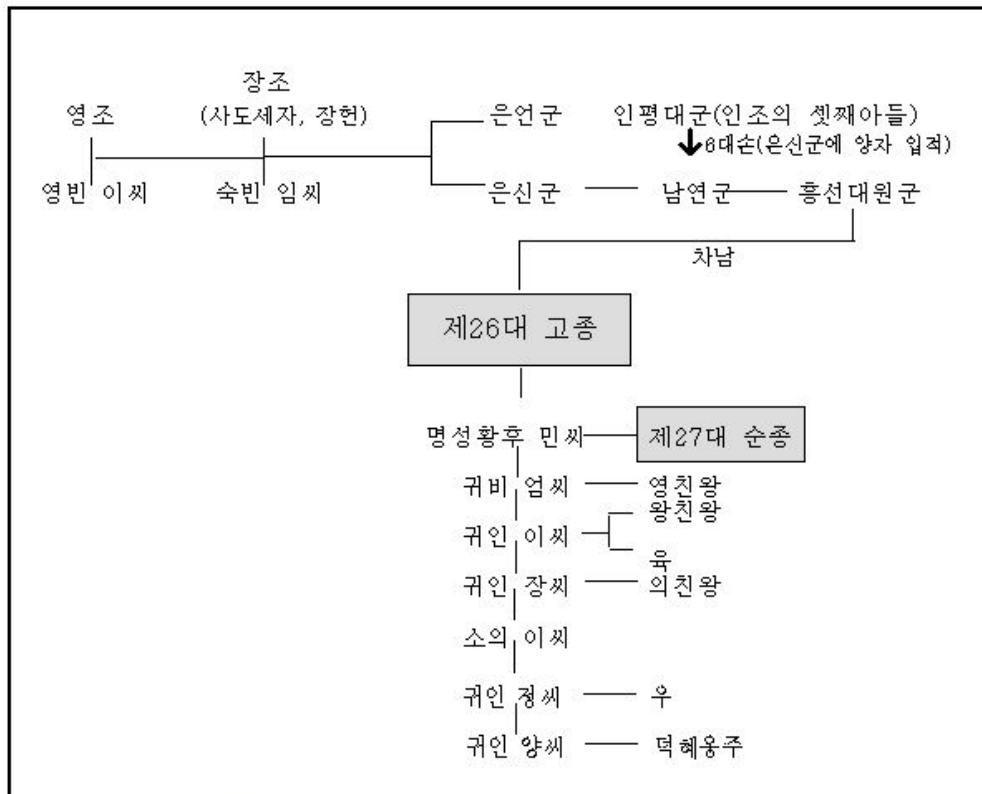
(4) 丁丑進饌儀軌

『丁丑進饌儀軌』는 고종 14년(1877) 대왕대비인 신정왕후가 七旬이 되는 해이므로, 신정왕후의 생신인 12월 16일에 昌慶宮의 內殿인 通明殿에서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전게서. 2003. pp.80-81.

進饌을 올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1877년 10월 6일에 대왕대비인 신정왕후의 탄신을 경축하고자 진찬을 올릴 것을 정하였으며¹⁵⁾ 10월 9일에는 진찬 장소를 통명전으로 정하고, 11일에는 병조판서 민겸호를 진찬소 당상관으로 추가 임명하였다.¹⁶⁾ 대왕대비전의 內進饌과 夜進饌은 12월 6일, 大殿 會酌과 大殿 夜讌은 12월 10일에 설행되었다.



<그림 3> 제 26대 고종 가계도

15) 『高宗實錄』 권15 고종 14년 10월 丁亥(6).

16) 『高宗實錄』 권15 고종 14년 10월 壬辰(11).

『丁丑進饌儀軌』는 다음의 <표 5>와 같이 卷首· 卷一· 卷二· 卷三의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丁丑進饌儀軌의 구성

구분	내용구성
卷首	擇日·座目·圖式
卷一	傳教·筵說·樂章·致詞·箋文·儀註·事目·啓辭·啓目·移文·來關
卷二	稟目·甘結·饌品(附彩花)·器用
卷三	修理·排設·儀仗·儀衛·內外賓·問安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

(5) 丁亥進饌儀軌

『丁亥進饌儀軌』는 고종 24년(1887) 대왕대비인 신정왕후의 80세 되는 해를 기념하여 정월 27일에 景福宮의 內殿인 萬慶殿에서 進饌을 올린 내용이다. 이를 기념하여 정월 초하루에 익종에게 존호를 올리고, 13일에는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올렸으며, 3품 이상의 문무관으로서 80세인 자에게 품계를 올려주고, 市民들의 한 달 치 요역을 면제하고 세금 20일치를 감면해 줌으로써 기쁨을 나누었다.¹⁷⁾

『丁亥進饌儀軌』의 구성은 『丁丑進饌儀軌』에서처럼 卷首·卷一·卷二·卷三의 네 편으로 되어 있다.

17) 『高宗實錄』 권15 고종 24년 정월 辛丑(13).

<표 6> 丁亥進饌儀軌의 구성

구분	내용구성
卷首	擇日·座目·圖式
卷一	傳敎·筵說·樂章·致詞·箋文·儀註·事目·啓辭·啓目·移文·來關
卷二	稟目·甘結·饌品(附彩花)·器用
卷三	修理·排設·儀仗·儀衛·內外賓·問安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

(6) 壬辰進饌儀軌

『壬辰進饌儀軌』는 고종 29년(1892), 고종의 41세 생신과 즉위 30년을 경축하기 위해 올린 進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고종 代에 올린 다섯 차례의 진연 중 고종 5년 신정왕후의 회갑을 경축하기 위한 진연, 고종 10년 신정왕후 대비책봉 40주년 기념 진연, 고종 14년 신정왕후의 칠순 생신 기념 진연, 고종 24년 신정왕후의 팔순 생신 기념 진연 등 네 차례의 진연은 신정왕후에게 올린 것으로 進爵 또는 進饌으로 모두 내진연만을 베풀었으나, 고종 29년 고종 41세 생신과 등극 30년을 기념하는 진연에서는 왕을 위해 외연과 내연을 모두 거행하였다. 9월 24일 勤政殿에서 왕에게 外進饌을 올리고, 9월 25일 康寧殿에서 內進饌과 夜進饌을 올렸으며, 9월 26일 王世子會酌과 王世子夜讌을 설행하였다.¹⁸⁾

『壬辰進饌儀軌』의 구성은 卷首· 卷一· 卷二· 卷三의 네 편으로 앞서 살펴본 『丁亥進饌儀軌』과 『丁丑進饌儀軌』의 구성과 동일하다.

18) 『高宗實錄』 권29 고종 29년 9월 己酉(24).
 『高宗實錄』 권29 고종 29년 9월 丁戌(25).
 『高宗實錄』 권29 고종 29년 9월 辛亥(26).

<표 7> 壬辰進饌儀軌의 구성

구분	내용구성
卷首	擇日·座目·圖式
卷一	傳敎·筵說·樂章·致詞·箋文·儀註·事目·啓辭·啓目·移文·來關
卷二	稟目·甘結·饌品(附彩花)·器用
卷三	修理·排設·儀仗·儀衛·內外賓·問安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9세기의 궁중 진연의례 가운데 壽宴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행되었으며 그 의식 가운데 進茶의 내용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순조 28년 『戊子進爵儀軌』부터 고종 29년 『壬辰進饌儀軌』까지 총 6종의 의례를 고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순조 28년 순원왕후의 사순 생신, 순조 29년 순조의 사순 생신, 헌종 14년 순원왕후의 육순 생신, 고종 14년 신정왕후의 칠순 생신, 고종 24년 신정왕후의 팔순 생신, 고종 29년 고종 41세 생신을 경축하기 위해 베풀어진 진연의 내용을 기록한 의례들은 공통적으로 네 편의 구성으로 나타나는데 각 구성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卷首에서는 진연의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기록한 택일과 진찬소 및 의례청에서 일한 사람의 명단이 정해져 있는 座目, 진연 時의 행사광경이나 자리배치, 각종 공연의 呈才 모습, 床花 또는 머리에 장식한 꽃, 사용된 器用과 樂器, 복식 등이 그려져 있는 圖式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둘째 卷一은 진연에 관하여 임금의 지시한 내용부터 임금과 신하가 행사에 대해 논의한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진연을 축하하기 위해 올리는 글 또는 詩,

진연의 의식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셋째 卷二는 행사의 지침인 節目과 진찬소 및 의궤청의 운영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진찬소와 각 관아 사이에서 오고한 공문과 진연에 필요한 물품마련의 경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외진찬·내진찬·야진찬·왕세자회작 및 야연에 쓰인 음식의 종류와 재료, 음식을 담거나 진설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품을 기록해 놓고 있다. 넷째 卷三의 내용은 행사장에 필요한 물품의 배치와 약가무차비의 명단과 약기편성, 행사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賞의 물품, 진연 경비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朝鮮 宮中進宴 文化의 時代的 背景을 살펴보기 위해 進宴의 意味와 歷史를 探究하였다.

둘째, 朝鮮後期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文化을 고찰하기 위해 宮中에서 영위되었던 전반적인 茶文化의 양상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선정한 6종의 進宴儀軌에 기록된 진연의 실행동기, 시기, 구성, 장소, 주인공 및 주요참석자를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와 같이 壽宴을 목적으로 하는 19世紀 宮中進宴 儀式 내 進茶의 節次와 제반 구성요소들에 나타나는 茶文化의 特徵을 정신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朝鮮後期 宮中進宴에서의 茶文化의 特徵을 조명하였다.

II. 朝鮮의 宮中進宴文化

1. 進宴의 意味

국가에 慶事가 있을 때 宮中에서 베풀었던 잔치를 의미하는 進宴이란 용어는 進豊呈, 進饌, 進爵 등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쓰여 왔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기 구분하여 쓴 경우도 있었다. 김종수¹⁹⁾는 조선전기에는 進豊呈과 進宴이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썼으나 효종(재위 1649~1659) 代 이후에는 進豊呈 혹은 豊呈은 進宴보다 규모가 큰 宴享이고, 進宴은 進饌이나 進爵보다 규모가 큰 宴享을 뜻하는 용어로 쓰였다고 밝혔다. 이로 보면 조선시대 宮中 宴享의 규모 상 가장 큰 것은 進豊呈 그 다음은 進宴, 進饌 혹은 進爵의 순으로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궁중의 잔치를 기록한 의례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은 총 16종이다. 고정일은 進宴儀軌, 進爵儀軌, 進饌儀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언급한 바 있다. 즉 진연의례는 국가에 큰 경사에 있을 때 베푸는 궁중잔치인 進宴에 관한 의례이며, 진작의례는 왕, 왕비, 대비 등의 작위를 높일 때 행하는 의식인 進爵에 관한 의례이고, 진찬의례는 왕, 왕비, 대비 등의 생신(기념일)을 맞이하여 음식을 올리던 의식인 進饌에 관한 의례이다. 이중 규모가 작고 간단한 진작의례와 진찬의례는 진연의례에 포함될 수 있다²⁰⁾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進豊呈과 進宴은 대규모의 宮中 宴會로, 進饌과 進爵은 소규모의 宮中 宴會로 의미를 규정해볼 수 있다.

19)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변천, 東方學 第6輯. 2000. pp.52-93.

20) 고정일, PASCAL 세계대백과사전. 동서문화. 1997. pp. 15046-15058.

거시적으로 볼 때 進宴은 議政府와 六曹의 臣下, 宗親과 儀賓의 親姻戚, 功臣들이 왕실과 한 집안의 사람들처럼 親愛의 情을 표하는 宴享이다. 이는 설날·단오·추석 등의 명절을 같이 즐기는 경우, 대비·왕·왕비·왕세자·세자빈의 탄신, 세자책봉, 병환의 쾌차 등을 축하하는 경우, 講武와 陵 참배와 같은 일로 王이 궁을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옴을 같이 기뻐하는 경우 등과 같이 왕실의 친인척들이 만나 정을 나누고 신하를 비롯한 공신들과도 지속적인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베풀어지는 궁중의 잔치문화인 것이다.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바탕으로 건국된 朝鮮前期에는 宮中の 잔치는 進宴보다는 대규모인 豊문의 형태로 宴享이 거행되었다. 왕과 왕비의 誕日에 거행하는 誕辰進宴을 비롯하여 正祖와 冬至의 朝賀 후 여는 正至會儀는 거의 매년 열리는 것이 원칙적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년 설행되었다.²¹⁾ 또한 世子, 나라의 功臣, 臣下들이 王에게 올리는 豊문도 거의 매년 행해졌다. 실록의 기록상으로 조선시대 豊문은 태종 2년(1402)에 처음 등장한다.

左代言 李升商이 淸和亭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나라 풍속에 試官인 貢擧를 學士라 부르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豊문이라 부르는데 學士가 된 사람으로서 豊문을 베푸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다. 임금이 술이 거나함에 侍宴한 宗親과 駙馬에게 다시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자, 侍讀 金科가 임금에게 大殿으로 들기를 청하였다.²²⁾

이로 보면 左代言 李升商이 태종 2년 2월에 왕을 비롯하여 여러 宗親과 駙馬와 더불어 淸화정에서 풍정을 열었음을 알 수 있다.

21) 『國朝五禮儀』 권3 嘉禮 正至會儀 景文社. 1979. p.144.

22) 『太宗實錄』 권3 태종 2년 2월 辛未(18)(1-226).

그러나 선조(재위 1567~1608) 代 부터 흉년과 민생 등을 이유로 誕日과 正至에 행하는 會禮宴과 같은 進宴은 점점 드물게 시행 되다가 조선후기에 이르면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대신 즉위 10주년, 30주년과 50세 또는 회갑 등의 특별한 慶祝行事に 열리는 進宴으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효종 8년(1657) 10월 8일에는 進豊呈宴을 進宴으로 축소시키고, 宴會를 주관하는 관장부서도 豊呈都監을 進宴廳으로 바꾸도록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禮曹가 아뢰기를, “이번에 안에서 연회를 마련하는 舉條는 豊呈의 大禮와는 다르니, 都監이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참으로 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관하고 검칙하는 사람을 차출한 이상 명칭이 없을 수 없는데, 筵臣 閔鼎重이 아뢴 대로 進宴廳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²³⁾

이렇듯 朝鮮前期에 宮中에서 호화롭게 거행되었던 豊呈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들은 실록에서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숙종 12년(1686)의 기록에는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가 還甲이 되었으나 豊呈의 형식을 줄여 進宴으로 간소화하고 절약할 것을 요청한 내용이 있다.

임금이 말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國用이 고갈되었으므로 평소 兩宮에 進宴하지 못하고, 또 慈懿殿의 周甲을 당하여 일시에 進宴하려던 뜻도 이루지 못하였으니, 마음속에 담긴 그지없는 슬픔을 비유할 바가 없다.”고 하였다. 여성제가 다시 아뢰기를, “지금은 祔禮도 벌써 지

23)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10월 丁丑(8)(36-118).

나갔으니,吉日을 가려서 설행함이 마땅하겠습니다. 일찍이 갑자년 奉朝賀 宋時烈의 收議 중에서도 祔廟를 지낸 뒤에 豊물을 물려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豊물과 進宴 중에서 모름지기 다시 여쭙고 의논한 뒤에야 거행할 수 있겠지만, 비록 명칭을 豊물로 하더라도 번다한 형식을 줄이고 힘써 節省을 좇음이 마땅할 듯합니다.”하니, 임금 金이 豊물로 정하여 거행하라고 명하였다.²⁴⁾

또한 영조 20년(1744) 9월 23일에는 王이 進宴廳에 下敎하여 外宴과 內宴을 거행할 때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도록 하라는 다음과 같은 命을 내렸다.

임금이 進宴廳에 하교하기를 “삼가고 두려워하면서 德을 닦고 반성하는 때에 節約하는 것이 마땅하다. 外宴에서는 大卓의 大膳과 小膳을 특별히 감하여 줄이도록 하고, 內宴에서는 東朝께 바치는 것 이외에는 大殿과 中殿에는 大卓과 大膳을 감하며, 世子 이하에게는 小膳을 감하여서 내 스스로 비용을 줄이고자 힘쓰는 뜻을 보이도록 하라.”²⁵⁾

이러한 내용을 보아 영조 代에는 東朝 즉 大王大妃에게만 大膳을 올리도록 함으로써 進宴의 규모와 함께 음식의 饌品 규모도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進宴은 영조 20년(1744)에 찬정된 『國朝續五禮儀』에 하나의 정식 행사인 進宴儀로 규정되었다.²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前期의 進豊물은 後期로 가면서

24) 『肅宗實錄』 권17 숙종 12년 2월 癸卯(19)(39-59).

25) 『英祖實錄』 권60 영조 20년 9월 丁酉(23)(43-152).

26)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궁중연향문화」 2권. 서울: 민속원. 2005.

그 규모가 축소되고 進宴의 의미로 바뀌어갔다. 즉 조선후기로 갈수록 王이나 王世子가 그 부모에게 올리는 王室의 행사로 進宴이 치러지게 되면서 국가차원의 규모인 進豐呈의 연회보다는 家内の 규모인 進宴의 연회로 그 성격이 축소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進宴儀禮는 점차 성리학이 주를 이루게 되는 영조 代로 가면서 보다 검소해지고 축소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進宴의 歷史

조선 건국 초부터 19세기 갑오경장까지의 進宴 중 進豐呈, 進宴, 進饌, 進爵이 거행된 역사를 살펴보았다.

1) 건국 초(1392)~연산군 代(재위 1494~1506)

건국 초 의정부 六曹의 臣下, 宗親과 儀賓의 친인척, 功臣들이 왕실과 한 집안처럼 친애의 정을 표하는 進宴은 會禮宴²⁷⁾ 및 養老宴²⁸⁾과 더불어 연향으로서 한해에 여러 차례 경축할 일이 있는 경우에 행해졌다.

성종 16년(1485)에 편찬된 『經國大典』禮典 宴享에는 會禮宴, 養老宴, 進宴을 개최하는 경우를 규정해 놓았다.

端午·秋夕과 行幸할 때와 講武한 후에 議政府와 六曹에서 進宴한다(王世子와 王世子嬪의 생신에도 같다.) ○매년 四仲朔(2·5·8·11월)에

27) 會禮宴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임금과 신하가 서로 화합을 하여 군신간의 정이 두터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베풀어지는 宴享이다.

28) 養老宴은 노인을 우대하기 위한 宴享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것은 임금이 노인을 공경하면 백성들이 감화되어 노인을 공경하게 되고, 백성의 덕이 후하게 되어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게 되므로 이를 행하였다.

忠勳府가 進宴한다. (중략) ○매년 두 번 宗親府와 儀賓府가 進宴한다. ○매년 한 번 忠翊府가 進宴한다. ○매년 정월 초하루 또는 동지에 會禮宴을 거행한다. 王世子, 文武百官이 참례하고 內殿에서 王妃가 舉行하게 되면 王世子嬪과 內外命婦가 모두 참례한다. ○매년 季秋(음력 9월)에 養老宴을 거행한다. 大小 員人의 八十 歲 以上되는 者가 참례하되 婦人이면 王妃가 內殿에서 舉行하고 外方 守令은 內外廳에 別設하여 참례한다.²⁹⁾

이로 보면 연향으로서의 進宴은 王室, 宗親府, 儀賓府, 議政府, 忠勳府, 忠翊府 등의 주관 하에 왕실을 위한 경축행사의 의미로 1년 중 정해진 시기는 물론 경축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거행된 반면 會禮宴과 養老宴은 왕이나 왕비의 주관 하에 신하, 백성과 더불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1년 중 특정 시기에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성종 19년(1488)에 설행되었던 進宴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살펴보면 進宴의 주인공은 대왕대비, 왕대비, 왕, 왕비 등의 王室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주로 대왕대비와 왕대비를 위해서는 왕이, 왕이나 왕비를 위해서는 신하 혹은 공신들이 주관하는 진연이 설행되었다.

29) 『經國大典』 권3. 30ab. 서울:일지사. 1978.

<표 8> 성종 19년의 진연 기록³⁰⁾

6일 시	주인공	설행동기
성종 19년 정월 1일	兩 大妃	王이 진연 주관
성종 19년 정월 29일	王	忠翊府가 진연 주관
성종 19년 2월 10일	兩 大妃	王이 世子の 嘉禮를 축하하는 진연
성종 19년 5월 5일	兩 大妃	王이 端午 進宴 주관
성종 19년 8월 15일	兩 大妃	王이 秋夕 進宴 주관
성종 19년 8월 19일	王	議政府·六曹에서 주관
성종 19년 8월 23일	王	功臣이 주관
성종 19년 8월 27일	王妃	議政府·六曹·忠勳府에서 주관
성종 19년 9월 5일	王	宗親·儀賓이 주관

이 같은 성종 代 進宴의 慣例는 연산군 때에는 다음의 기록에서와 같이 王의 追尊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에도 적용되었다.

議政府·六曹가 인정전에서 進宴을 하였는데, 追崇을 慶祝하기 위한 예였다.³¹⁾

30) 『成宗實錄』 권211 성종 19년 정월 丙申(1)(11-297).
 『成宗實錄』 권211 성종 19년 정월 甲子(29)(11-292).
 『成宗實錄』 권213 성종 19년 2월 甲辰(10)(11-307).
 『成宗實錄』 권216 성종 19년 5월 戊辰(5)(11-332).
 『成宗實錄』 권219 성종 19년 8월 丙午(15)(11-365).
 『成宗實錄』 권219 성종 19년 8월 庚戌(19)(11-367).
 『成宗實錄』 권219 성종 19년 8월 甲寅(23)(11-368).
 『成宗實錄』 권219 성종 19년 8월 戊午(27)(11-370).
 『成宗實錄』 권220 성종 19년 9월 乙丑(5)(11-371).

31) 『燕山君日記』 권53 연산군 10년 5월 辛丑(12)(13-625).

2) 중종 代(재위 1506~1544) ~ 명종 代(재위 1545~1567)

중종 代에 이르러 진연 행사는 그 횟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대비 전에 1년에 1번 거행되는 豊문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언급되고 있다.³²⁾

○ 朴元宗이 의논드리기를, “會禮宴은 임금과 신하가 함께 하는 잔치요, 豊문은 上殿을 위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1년에 한 번 있는 성대한 일이니,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단연코 폐지할 수 없습니다. 풍정을 드리는 것은 즉위하신 뒤에 한 번도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더욱 그만 둘 수 없습니다.”(중략)

○ 成希顔이 의논드리기를, “풍정을 드리는 것으로 말하면 명절 때에 자전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니, 성상의 효심으로 자연 그만 둘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중에 두 번 있는 일이 아니요, 실지로 한 나라의 자식 된 사람들을 감화하는 시초이니, 다른 宴飲 오락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³³⁾

이처럼 중종 代의 進宴은 재위 38년 동안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게 행해졌으며 당시의 상황은 다음의 <표 9>와 같이 王이 주인공이 되는 연향의 기록을 찾아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32) 문화재관리국·국민대 한국학연구소. 『朝鮮時代 養老宴儀禮와 御宴儀禮의 研究』. (서울:문화재관리국, 1997). p.28.

33) 『中宗實錄』 권10 중종 4년 4월 丁未(20)(14-399).

<표 9> 중종 代의 진연 기록³⁴⁾

일 시	주인공	실행 동기
중종 29년 9월	王	宗親들이 進宴
중종 29년 11월	王	功臣仲朔宴* ³⁵⁾
중종 30년 4월	王	卽位 30年 慶祝進宴
중종 30년 9월	王	行幸 後 進宴
중종 37년 8월	王	秋夕 進豊呈

이처럼 진연이 전대에 비해 아주 적게 실행하게 된 변화의 이유는 연산군의 荒淫으로 헤이해진 사회 풍속을 바로잡고자 도덕적 엄숙함을 강조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큰 이유는 흉년과 재변에 대한 유교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다음의 『中宗實錄』을 살펴보면 흉년과 재변으로 오랫동안 進宴을 거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禮曹가 오는 9월 9일에 宗親府·議政府·儀賓府의 進宴을 『대전』대로 거행하기를 啓請하니, 傳敎하기를, “근래에는 연사가 흉년이 들고 또한 災變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進宴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나 宗親

34) 『中宗實錄』 권78 중종 29년 9월 壬申(9)(17-533).

『中宗實錄』 권78 중종 29년 11월 庚午(8)(17-545).

『中宗實錄』 권79 중종 30년 4월 辛丑(11)(17-583).

『中宗實錄』 권80 중종 30년 9월 乙亥(17)(17-605).

『中宗實錄』 권99 중종 37년 8월 壬辰(15)(18-608).

35) 『經國大典』에는 “매년 四仲朔에 忠勳府가 進宴 한다.”고 규정하여, 성종 代(1469~1494)에는 功臣宴을 進宴의 한 일환으로 취급했는데, 선조 39년(1606) 2월에는 “勳臣이 進宴 이전에 仲朔宴을 지레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실로 禮에 있어서 정당한 것입니다.”라고 아뢴 것을 보면 선조 代(167~1608)에는 이미 功臣仲朔宴을 進宴과는 다른 宴享으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宣祖實錄』 권196 선조 39년 2월 庚子(1) (25-158)>

들에 대한 접대가 祖宗과 같지 못해 이는 親親하는 도리에 흠이 있게 되니, 아뢴 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³⁶⁾

이처럼 중종 代 이후에는 흉년으로 인해 會禮宴과 養老宴 등의 宴享을 열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은 물론 進宴 역시 줄어들어 왕실의 가장 웃어른인 慈殿을 위해서만 한 차례 올리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명종 代(재위 1545~1567)에 들어와서는 중종 代의 변화가 더욱 심화되어 매우 드물게 進宴을 거행하게 되었다. 흉년이라는 이유로 대비가 進풍정을 허락하지 않자 進풍정을 올릴 것을 청한 것을 다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특진관 金明胤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지 이제 5년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慈殿을 위하여 進豐문의 禮를 행하지 않아 온 나라의 臣民들이 죄송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자전께서 행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행하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를 받아들이는 정성이야 위아래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³⁷⁾

고 하였다. 명종이 즉위한 이래 계속되는 흉년으로 한 번도 大례를 거행하지 않자 신하들이 명종 5년 5월 28일에 신하가 進풍정을 올릴 것을 상소하였으나 자전이 흉년으로 인해 어려운 백성들을 생각하여 小宴만을 베풀 것을 허락한 바가 있다. 결국 5년간 進풍정은 거행되지 못하다가 명종 5년(1550) 정월 초하루 처음으로 대비 전에 進풍정을 올리게 되었다.

36) 『中宗實錄』 권62 중종 23년 8월 乙卯(16)(17-24).

37) 『明宗實錄』 권9 명종 4년 9월 辛巳(15)(19-667).

결국 명종 代에는 다음의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進宴이 매우 드물게 거행 되었다.

<표 10> 명종 代의 진연 기록³⁸⁾

일 시	주인공	실행동기
명종 5년 1월	大王大妃	進豊呈
명종 6년 1월	王	進豊呈
명종 12년 8월	大王大妃, 王大妃	進豊呈
명종 14년 1월	王	進豊呈
명종 15년 10월	王	功臣仲朔宴

<표 10>에 제시된 내용 중 명종 15년(1560) 10월에는 功臣仲朔宴을 16년 동안 폐하였다가 다시 거행하게 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上이 仁政殿에 나아가니 功臣仲朔宴을 거행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16년이나 되도록 공신의 잔치를 폐하였으니 마음이 어찌 편하였겠는가. 오늘 이 잔치를 처음으로 베풀었으니 함께 흠뻑 취해야 한다.”하고 이어서 賞을 차등 있게 내렸다.³⁹⁾

당시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흉년은 王室의 進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38) 『明宗實錄』 권10 명종 5년 정월 丙寅(10)(20-570).
 『明宗實錄』 권11 명종 6년 정월 己丑(10)(20-570).
 『明宗實錄』 권23 명종 12년 8월 戊戌(10)(20-570).
 『明宗實錄』 권25 명종 14년 정월 癸酉(10)(20-570).
 『明宗實錄』 권26 명종 15년 10월 壬寅(10)(20-570).

39) 『明宗實錄』 권26 명종 15년 10월 壬寅(10)(20-570).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실 역시 백성들의 고통과 심정을 헤아리는 데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명종 3년(1548) 8월 홍언필 등이 “성종 때는 1년에 진풍정을 베푼 것이 혹 3, 4회에 이르렀고 또 행하지 않은 해가 없었는데 어찌 모두 풍년이 들어서 그랬겠습니까?”⁴⁰⁾라고 언급한 바가 있긴 하지만 명종 代에는 흉년이 많이 들고 재변이 잇따르자 백성들을 생각하여 進豊물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대적으로 성종 代(재위 1469~1494)는 典禮를 정비해 가는 시기였으므로 『經國大典』에 규정해 놓은 대로 宴享을 베풀었지만 중종 代(재위 1506~1544) 이후에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더불어 『小學』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적 理想을 실천하는 것이 보다 강조되었으므로, 백성들과 同苦同樂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宴享을 적게 베푼 것⁴¹⁾이라는 견해도 있다. 명종 代에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생각하여 進豊물을 시행하지 않은 기록이 명종 5년 8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고 재변이 잇달아서 節日을 맞아서도 豊물을 올리지 않았고 曲宴 또한 베풀지 못하여 내가 매우 미안하게 여긴다. 지금 또 重陽節이 임박했으므로 慈殿을 위하여 곡연을 베풀려고 재삼 청하였으나, 慈殿께서 ‘지금 백성이 굶주리고 재변이 중첩해서 일어나는데 내가 어찌 편안한 마음으로 잔치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교하시니...”⁴²⁾

40) 『明宗實錄』 권9 명종 4년 9월 辛巳(15)(19-667).

41) 김종수, 전계서, 2000, p.74.

42) 『明宗實錄』 권10 명종 5년 8월 己丑(28)(19-717).

3) 선조 代(재위 1567~1608)~갑오경장(1894)

선조 代에는 正初에 정기적으로 지내던 會禮宴과 養老宴은 사라지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進宴을 베풀게 되었다. 선조 代에는 한 번의 進豊물이 거행되었는데 이는 선조 6년(1573)王大妃인 인종비의 중병이 완쾌된 것을 경축하기 위해 올렸으며,⁴³⁾ 前代의 進豊물처럼 대규모로 거행하기보다는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進宴은 국가의 큰 경사가 있을 때에만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인조 2년(1624)과 8년(1630)⁴⁴⁾에는 大王大妃를 위해 두 번의 進豊물을 올렸다. 그 가운데 인조 2년(1624)의 기록에는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를 위한 豊물을 간소하게 행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있다.

헌부가 아뢰기를 “이번에 豊물을 거행하는 일은 慈殿을 위로하고 기쁘게 헤드리기 위한 것인 만큼 참으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백성이 困窮하고 재력이 다하여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하는 이때에 艱요하지도 않은 儀物을 모두 옛 제도대로 따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신들이 該司에서 마련한 물건을 살펴 보건대, 그 가운데에는 妓生의 紅丹粧에 속하는 각종 緞羅가 50여 필이며 다른 물건도 이에 비례했습니다. 豊물이 盛禮라고는 하나 女樂을 쓰는 것은 耳目의 玩賞을 위한 것일 뿐이니, 평소에 입던 銀花粧으로 해도 한 마당의 즐거움을 이루고 한때는 기쁨을 극진히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반드시 그토록 幣藏을 다 쓰면서 재물을 손상하면 백성을 해롭게 한다는 경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궐 안에서 쓸 珠簾이 무려 20部나 되고 거기에 쓸 朱紅綠絲도 허비되는 비용이 많

43) 『宣祖實錄』 권7 선조 6년 9월 丁亥(10)(21-269).

44) 『仁祖實錄』 권7 인조 2년 10월 庚寅(9)(33-647),
『仁祖實錄』 권22 인조 8년 3월 壬寅(22)(34-369).

습니다. 그래서 尊崇都監이 御輦의 簾도 옛것을 보수해서 쓰고 있는 형편인데, 더구나 20部나 되는 많은 경우이겠습니까. 기생의 복식은 모두 은화장을 쓰고 대궐 안에서 쓸 주렴은 일체 평시에 쓰는 葦簾으로 같음하여 낭비를 줄이고 절약해 씀으로써 백성을 사랑하는 제도를 따르소서.”⁴⁵⁾

효종 8년(1657)⁴⁶⁾에는 大妃殿에 進豊모을 올렸을 뿐이고, 현종 代(재위 1659~1674)에는 한 번도 大妃殿에 進宴을 올리지 못하였다. 특히 현종 때에는 國喪이 있는 뒤로 잇따라 흉년이 든 탓에 두 자전계 진연을 올리지 못하였다. 壬寅年에는 풍년이 들었으므로 장차 진연을 設行하려 했으나 萬壽殿의 喪制를 당하였던 탓에 또 設行하지 못하였다. 현종 6년(1665)에는 진연을 設行하려고 하였으나 좌참찬 송준길이 흉년이 들어 진연을 設行할 때가 아니라고 반대한 내용이 있다.

上이 이르기를, “國喪이 있는 뒤로 잇따라 흉년이 든 탓에 아직 한 번도 두 자전계 진연을 올리지 못하였다. 壬寅年에는 年事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장차 設行하려 했으나 萬壽殿의 喪制를 당하였던 탓에 또 設行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만수전의 상제가 겨울에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신들과 상의하여 겨울 끝이나 초봄에 設行하려 했다. 만일 1년, 2년 자꾸 미루다 보면 끝내는 設行할 때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에는 豊모을 행하자고 하는 이도 있었으나 단지 간략하게 進宴을 設行하여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을 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준길이 아뢰기를, “天災와 民怨이 이렇게 매우 극심한 상황인데 나라에서 한편으로 이런 거조를 행한다면 먼 외방의 백성들이 장차 반드시 국가에서 救

45) 『仁祖實錄』 권6 인조 2년 8월 辛卯(9)(33-636).

46) 『孝宗實錄』 권19 효종 8년 12월 甲申(16)(36-133).

恤하여 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성대한 행사를 거행한다고 여길 것이니, 어떻게 백성들에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임금의 거조가 조금이라도 天意와 民心에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게 된다면 이는 아마도 제왕의 효도가 아닐 듯싶습니다.”⁴⁷⁾

결국 현종 재위 16년 동안 한차례의 진연도 행하지 못하였다. 숙종 代(재위 1674~1720) 47년의 기간 동안에는 6차례의 進宴이 행해졌는데 한 번의 進豊呈과 5번의 進宴이 王의 병환이 쾌차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進宴, 즉위를 기념하기 위한 進宴,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進宴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王의 생신보다 大王大妃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進宴을 進豊呈으로서 거행하였다.

<표 11> 숙종 代의 진연 기록⁴⁸⁾

일 시	주인공	실행 동기
숙종 3년 11월	大王大妃, 王大妃	兩 大妃를 위해 萬壽殿에서 進宴
숙종 12년 윤4월	大王大妃	大王大妃의 환갑 進豊呈
숙종 32년 8월	王	숙종의 즉위 30년 축하 進宴
숙종 36년 4월	王	숙종의 병환 쾌차·춘추 進宴
숙종 40년 9월	王	숙종의 병환 쾌차·즉위 40년 기념 進宴
숙종 45년 9월	王	숙종의 耆老所에 입소 경축 進宴

47) 『玄宗實錄』 권11 현종6년 9월 戊子(5)(36-479).

48) 『肅宗實錄』 권6 숙종 3년 11월 甲午(21)(38-373).

<표 11>에 제시한 내용 가운데 숙종 3년 11월에 치러진 進宴에는 위로 는 大夫·士로 부터 아래로는 庶民·賤民에 이르기까지 서울이나 외방을 논 하지 말고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쌀을 내려주고, 80세 이상이면 加資를 하 라고 명하였다.⁴⁹⁾ 즉 진연을 행하고 난 다음 전국의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게 쌀을 내려주고 신하들의 품계를 올려줌으로써 함께 경축하고 기쁨을 나 늘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숙종 代에는 이상기온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진연에 적지 않 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숙종 31년(1705) 3월 8일에는 전날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에 눈이 내려⁵⁰⁾ 進宴을 가을로 미루기로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때 아닌 눈이 왔으니, 지극히 놀라운 마음이 든다. 陳戒함이 매우 간 절하니,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進宴은 결코 일전에 결정한 날짜대 로 할 수 없으니,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물려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 다.⁵¹⁾

숙종 39년(1713)은 왕의 즉위 40년이 되는 해였다. 1월에 이를 경축하는 진하를 올렸으나,⁵²⁾ 3월에는 눈이 내리는 재변이 있어 진연을 정지시키게 되었다.⁵³⁾ 또한 그해 가을 심한 가뭄이 들고 바람이 불어 흉년이 들자 다시 진연을 정지시켰다.⁵⁴⁾

49) 『肅宗實錄』 권6 숙종 3년 11월 甲午(21)(38-373).

50) 『肅宗實錄』 권41 숙종31년 3월 辛丑(7)(40-145).

51) 『肅宗實錄』 권41 숙종31년 3월 壬寅(8)(40-145).

52) 『肅宗實錄』 권53 숙종39년 正月 戊子(10)(40-482).

53) 『肅宗實錄』 권53 숙종 39년 3월 戊子(11)(40-488).

54) 『肅宗實錄』 권54 숙종39년 7월 乙亥(30)(40-512).

경종 代(재위 1720~1724)에는 재위기간이 짧은 만큼 경종 4년(1724) 5월 大王大妃의 병환이 회복된 것을 경축하여 王이 進宴을 하고 大王大妃에 獻壽를 한 것으로 한 번의 진연이 있었을 뿐이다.⁵⁵⁾

다음으로 영조 代(재위 1724~1776)에 행해진 進宴을 정리하면 다음 <표 12>와 같다.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영조 代의 진연은 孝를 다하는 대왕대비와 왕대비를 위한 진연, 왕실이 농사를 장려하고자 술선수범을 보이는 親耕을 행한 후의 진연, 왕대비와 왕의 수연을 축하하는 진연, 장수하는 영조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는 진연이 주가 되었다.

영조 42년(1766) 7월 7일에는 73세에 이르러 王의 병이 호전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進宴을 베풀겠다고 한 諭示의 내용 가운데 흥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니 進宴의 饌品을 줄이겠다고 하는 언급이 나타나 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諭示하겠다. 13세 때 일을 73세에 또 당했으니, 또한 귀한 일이다. 내가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자 하니, 석달을 전기하여 都監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하니, 영의정 洪鳳漢이 말하기를,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자오니, 欽歎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進宴은 한결같이 古例에 따라 할 것입니다. 聖候가 여러 달 편찮으신 나머지에 이제 지난 역사에 드문 慶事를 만났으니, (중략) 음악을 듣고 南山과 北斗의 壽를 절하며 올린다면, 신 등이 물러가 구렁에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진실로 餘恨이 없습니다.” 하며, 前病술년(숙종 32년) 內外宴儀를 가지고 들어오라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外宴을 허락하였으니, 內宴도 옛 해의 例에 따라서 허락할 것이다. 아! 나의 追慕하는 마음으로써 나이 더욱 늙고 기운이 더욱 쇠한데, 흥년이 들어 백성이 곤궁하니, 아무리 힘써 強勸할지라도 마음에 어찌 즐거워하겠는가? 모든 饌品은 작년의 例에 의하여 정지

55) 『景宗實錄』 권14 경종 4년 5월 癸卯(1)(41-319).

하고 人蓼正果는 古例를 따라 특별히 감하며”..56)

<표 12> 영조 代의 진연 기록57)

일 시	주인공	실행 동기
영조 4년 9월	大王大妃, 王大妃	大王大妃,王大妃를 위한 進宴
영조 15년 4월	大妃	親耕 후 大妃殿에서의 進宴
영조 19년 9월	大王大妃 王	大王大妃 육순, 영조 오순 경축 進宴
영조 20년 10월	王	영조의 耆老所 입소 경축 進宴
영조 41년 10월	王	”
영조 42년 8월	王	”
영조 45년 2월	王	” (奠酌禮)
영조 48년 2월	王	”
영조 49년 윤3월	王	” (養老宴)
영조 49년 10월	王	”
영조 51년 12월	王	”

56) 『英祖實錄』 권107 영조 42년 7월 乙亥(7)(44-225).

57) 『英祖實錄』 권19 영조 4년 9월 壬戌(15)(42-82).

『英祖實錄』 권49 영조 15년 4월 戊子(12)(42-626).

『英祖實錄』 권58 영조 19년 9월 壬辰(13)(43-114).

『英祖實錄』 권60 영조 20년 10월 丁未(4)(43-153).

『英祖實錄』 권106 영조 41년 10월 癸丑(11)(44-208).

『英祖實錄』 권107 영조 42년 8월 甲子(27)(44-229).

『英祖實錄』 권112 영조 45년 2월 戊寅(15)(44-319).

『英祖實錄』 권118 영조 48년 2월 辛卯(26)(44-414).

『英祖實錄』 권120 영조 49년 윤3월 朔庚申(1)(44-449).

『英祖實錄』 권121 영조 49년 10월 己丑(4)(44-463).

『英祖實錄』 권126 영조 51년 12월 辛酉(18)(44-515).

또한 영조 49년(1773) 2월 15일에는 왕세손인 정조가 영조의 8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進宴 할 것을 청하였지만⁵⁸⁾ 영조는 進宴 대신 養老宴을 할 것을 命하여 윤3월 3일 養老宴을 거행하게 되었다.

임금이 金商門에 나아가 養老宴을 행하였다. 承旨와 史官이 먼저 四拜하니, 王世孫이 四拜를 행하고 자리에 나아가 侍坐하였고, 參宴한 여러 신하들도 四拜하고 차례대로 자리에 나아갔다.....(중략).....늙은 백성으로 80세 이상인 자는 아울러 加資하라고 命하고 1백 3세 된 사람에게는 특별히 知中樞를 제수하였다. 八道와 兩都의 가장 오래된 舊逋와 貢人의 오래된 未納을 모두 탕척하고 시민의 요역과 太學 典僕의 贖錢도 다음 달까지 특별히 감면해 주게 하였다.⁵⁹⁾

다음으로 순조 代(재위 1800~1834)에 행해진 進宴의 기록을 찾아보면 순조 9년 2월 혜경궁이 관례를 한지 60돌이 되는 것을 경축하는 進饌⁶⁰⁾, 순조 11년 윤3월 혜경궁의 병환이 완쾌된 것을 축하하는 進饌⁶¹⁾, 순조 27년 9월 원손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進爵⁶²⁾, 그리고 순조 28년 2월과 6월 순원왕후의 40세를 경축하기 위한 內進爵⁶³⁾이 두 차례에 걸쳐 거행되었다. 또한 순조 29년 2월에는 王의 40세 생신을 미리 축하하기 위한 進饌이 이틀에 걸쳐 外進饌과 內進饌⁶⁴⁾으로 거행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순조

58) 『英祖實錄』 권120 영조 49년 2월 甲戌(15)(44-447).

59) 『英祖實錄』 권120 영조 49년 윤3월 壬戌(3)(44-450).

60) 『純祖實錄』 권12 순조 9년 2월 丁巳(27)(?-?).

61) 『純祖實錄』 권14 순조 11년 윤3월 乙巳(27)(47-691).

62) 『純祖實錄』 권29 순조 27년 9월 壬子(10)(48-302).

63) 『純祖實錄』 권30 순조 28년 2월 壬午(2)(48-309).

『純祖實錄』 권30 순조 28년 6월 己巳(1)(48-312).

64) 『純祖實錄』 권30 순조 29년 2월 癸酉(9)(48-322).

『純祖實錄』 권30 순조 29년 2월 丙子(12)(48-322).

의 생신에 다시 內進饌을 거행해 축하 하였다. 반면 大王大妃의 육순과 혜경궁의 칠순이 되는 해인 순조 4년⁶⁵⁾, 효의왕후⁶⁶⁾의 환갑이 되는 해인 순조 13년⁶⁷⁾, 혜경궁이 80세가 되는 해인 순조 14년⁶⁸⁾에는 흉년이 들고 장마와 가뭄 등으로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으므로 進宴을 거행하지 않았다.

헌종 代(재위 1834-1849)의 進宴은 헌종 14년(1848) 3월 통명전에서 왕대비 사순과 순원왕후 육순을 축하하기 위해 進饌을 거행하였다.

다음으로 고종 代 갑오경장의 시기(고종 31년까지)에 행해진 進宴을 정리⁶⁹⁾하면 <표 13>과 같으며 이를 요약하면 대왕대비인 신정왕후의 환갑·母臨 40주년·칠순·팔순, 고종 즉위 30주년, 왕세자의 20세와 21세, 선조가 피란을 갔다가 무사히 환궁한지 300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進宴이 설행되었다.

65) 『純祖實錄』 권6 순조 4년 1월 庚子(10)(47-474).

66) 효의왕후(1753~1821)는 정조의 妃이다. 청풍 김씨로 좌참찬 증영의정 時默의 딸이다. 1762년(영조 38)에 세손빈으로 책봉되고, 1776년 王妃로 進封되었다. 시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지성으로 모셨다.

67) 『純祖實錄』 권16 순조 12년 11월 戊子(19)(48-41).

68) 『純祖實錄』 권17 순조 14년 1월 癸亥(1)(48-55).

69) 『高宗實錄』 권5 고종 5년 12월 己酉(6).
 『高宗實錄』 권10 고종 10년 4월 乙丑(17), 丙寅(18).
 『高宗實錄』 권14 고종 14년 12월 丙戌(6).
 『高宗實錄』 권24 고종 24년 1월 乙卯(27).
 『高宗實錄』 권29 고종 29년 9월 己酉(24), 庚戌(25).
 『高宗實錄』 권30 고종 30년 3월 壬寅(20), 甲辰(22).
 『高宗實錄』 권30 고종 30년 10월 癸丑(5), 甲寅(6).
 『高宗實錄』 권31 고종 31년 2월 甲寅(7), 乙卯(8).

<표 13> 고종 代의 진연 기록(갑오경장까지)

일 시	주인공	실행 동기
고종 5년 12월	大王大妃	대왕대비(神貞王后) 환갑 進饌
고종 10년 4월	大王大妃	대왕대비(神貞王后) 母臨 40년 경축 進爵
고종 14년 12월	大王大妃	대왕대비(神貞王后) 칠순 進饌
고종 24년 2월	大王大妃	대왕대비(神貞王后) 팔순 進饌
고종 29년 9월	王	왕의 41세와 즉위 30년 경축 進饌
고종 30년 3월	王世子	왕세자 20세 기념 養老宴
고종 30년 10월	王	선조대왕에 피란 갔다가 경운궁에 돌아온 지 5회갑 기념 進饌
고종 31년 2월	王世子	왕세자 望三(21세) 경축 進宴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조선 전기의 연향은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進宴은 1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적인 慶祝 행사의 의미에서 거행되었다. 그러나 조선중기 이후 사상적으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고, 국가적으로는 흉년이나 기근이 심화되자 進宴 행사는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김종수는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기에 진연이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자연현상을 人事와 관련시키어, 하늘의 꾸지람을 공경히 받아들이는 유교적 재이관의 성리학적 深化와도 관련이 있다고 논의하였다.⁷⁰⁾ 즉 이상기온과 같은 자연재해는 궁중에서 치러지는 진연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진연은 특별한 경사에 베풀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의 進宴은 보다 간소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王室의 壽宴과 같은 慶祝 행사의 의미에서 종친, 공신, 신하, 백성들이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文化로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70) 김종수, 전계서, 2000, p.89.

Ⅲ. 朝鮮後期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文化

1. 朝鮮後期 宮中の 茶文化

고려시대의 국가 행사에서는 대부분 進茶儀式이 행해졌는데 고려의 진다의식은 茶房의 官員들이 주관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는 茶禮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계승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송유정책으로 의례를 강조한 데서 茶禮가 형성,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숙희는 조선시대 『國朝五禮儀』에 의거하여 궁중 안에서 행해진 다례의식을 宮中茶禮⁷¹⁾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대에 비해 朝鮮의 茶文化은 점차 쇠퇴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견해가 있다.

첫째, 조선시대는 왕조의 창건 이래 崇儒抑佛을 정치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고려시대 불교와 더불어 융성함을 향유하면서 승려들과 사대부들에 의해 이어져 내려오던 茶文化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둘째, 丙子胡亂, 壬辰倭亂을 거친 후 사회적, 경제적인 피폐가 심해지자 茶文化은 왕실의 의식에서만 그 원형을 유지한 채 五禮 속에 남아 지켜지게 되었다.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의례 시에 茶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셋째, 앞의 진연의 역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자연재해현상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서 조선후기 작설차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가뭄을 비롯하여 우박, 서리, 때 아닌 눈 등으로 연평균 기온 14~16℃와 강수량 연 1300~1500mm 이상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아열대성 식물인 차나무는 다른 농작물과 함께 자연재해를 견뎌내지 못하였다. 이 같은 자연재해로 조선후기에는 차나무의 작황

71) 박숙희, 韓國茶禮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46.

이나 농작물의 피해가 컸던 것은 물론 흉년과 기근으로 사회는 더욱 혼란을 거듭해 갔다. 사회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생활은 기근으로 인한 사망이 야기되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 상황에서 차나무를 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⁷²⁾ 넷째,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茶稅는 조선 초에도 과중하였고, 중엽에는 청나라에 차를 바치는 일로 백성들은 관청에 茶를 공납해야 했다.⁷³⁾ 이에 茶稅가 과중하여 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겨우 공납할 정도의 것만 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안고 조선후기 사회에서 茶는 궁중에서 특별한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宴享을 설행할 때뿐만 아니라 중국사신을 접견하는 賓禮를 행할 때, 凶禮나 吉禮와 같은 왕실의 儀禮행사를 거행할 때 茶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後述하게 될 궁중연향을 제외하고 宮中の 茶文化 기록을 실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왕실에서는 중국사신에 대한 賓禮로서 茶를 접대에 사용하였다. 순조 즉위년 11월 24일의 기록에는

이러 茶를 내어왔다. 司饗院⁷⁴⁾ 假提調 1인은 茶瓶을 받들고, 1인은 茶鐘과 盤具를 받들고 殿內로 들어와서 남쪽 가까이서 북쪽을 향하고 섰으며, 1인은 果盤을 들고 상칙사의 오른쪽에서 북쪽을 가까이 하고 남쪽을 향하여 서고, 1인은 부칙사의 오른쪽에서 남쪽을 가까이 하고 북쪽을 향하여 섰으며, 제조 1인은 과반을 들고 殿下의 오

72) 이현숙. 朝鮮時代 茶產地 研究 - 文獻을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2001. p.13.

73) 이일희. 生態的 觀點에서 본 茶文化空間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31.

74) 왕의 식사나 궁중의 음식공급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조선 초기에 설치되었다가 고종 32년(1895) 典膳司 바뀌었다.

른쪽에서 남쪽을 가까이 하고 북쪽을 향하여 섰다. 가제조 1인은 茶
鐘에다 茶를 받아 끓여왔아 부직 앞에 올리니 부직사가 다종을 받았
으며, 제조가 다종에다 茶를 받아 끓여왔아 임금에게 올렸다.⁷⁵⁾

이렇듯 實錄에 언급되는 茶禮는 賓을 맞이할 때 茶로서 禮를 표할 수
있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인조 10년 10월 28일, 비변사가 도독
의 차관을 접견할 것을 청한 내용이다.

비국이 아뢰기를, “도독의 차관이 필시 접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하게 여길 것입니다. 제사를 지낸 뒤에 마땅히 한 사람으로 하
여금 客館으로 나아가 만나 보아, 上께서 편치 못하셔서 서로 접견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여 간략하게 茶禮를 베풀고 검하여 禮單을
주어 그 마음을 위로해 주도록 하소서.”하니 上이 따랐다.

둘째, 왕실에서는 凶禮를 행함에 있어 茶禮를 행하였다.

殯殿都監이 아뢰기를 “五禮儀에는 다만 아침과 저녁으로만 上食을 하게
되어 있는데 仁獻王后 때에는 上의 특명으로 晝茶禮를 행하였습니다. 이
禮는 비록 禮文에는 있지 않으나 시행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병인년의
전례에 따라 晝茶禮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하니 上이 이
를 따랐다.⁷⁶⁾

왕세자자 德成閣에 좌정하니, 우의정 申晩이 入對하기를, (중략) “이 뒤
로는 두 魂殿에 朔望 때 上食과 茶禮를 수시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것이

75) 『純祖實錄』 권1 순조 즉위년 11월 壬寅(24)(47-344).

76) 『仁祖實錄』 권26 인조 10년 6월 乙未(29)(34-490).

곧 저하께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道理인 것입니다.”77)

이 두 기록으로 보아 喪中에 魂殿에 올리는 上食과 더불어 茶禮를 행하는 것이 왕실에서의 마땅한 도리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한기정은 晝茶禮와 茶禮의 차이를 禮를 행한 시간에 따라 구분하여 전자는 設行 시간이 午時(오전 11~1시)로써 낮에 올려지는 것을 일러 명명되었고, 茶禮는 午時를 제외한 시간에 設行될 때 명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晝茶禮와 茶禮의 祭式에서 쓰인 茶는 祭祭의 형태로 올려진 것이 아니라 獻茶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⁷⁸⁾

한편 영조 34년 9월에는 王이 사회적으로 술 빚는 것을 금지하고 술을 팔거나 술을 마시는 자는 모두 나라의 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禁酒令을 내리고 上食 때에도 醴酒 대신 茶를 쓸 것을 명하기도 하였다.

“徽寧殿에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上食은 晝茶禮의 禮에 의하여 茶로써 醴酒를 대신하도록 하라.”⁷⁹⁾

고종 代에 있어서도 殯殿에 茶禮를 행하는 禮가 지속되었다.

빈전(殯殿)에 나가 別茶禮를 지내고 아침 上食을 올렸으며 晝茶禮를 지내고 저녁상식을 올렸다. 王太子도 따라가서 예식을 가졌다.⁸⁰⁾

77) 『英祖實錄』 권92 영조 34년 7월 壬辰(8)(43-692).

78) 한기정. 조선시대 상·제례를 통해본 현대의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60.

79) 『英祖實錄』 권192 英祖 34년 9월 己亥(16)(43-699).

80) 『高宗實錄』 권34 高宗 33년 11월 1일(양력).

정영선은 삼년상의 기간 동안 상식과 더불어 다례를 올리고 조상을 알
현했던 것은 조상에 대한 追慕의 뜻을 茶禮로서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⁸¹⁾

셋째, 조선후기 궁중에서는 吉禮의 의식으로서 茶禮가 행해졌다.

정조 22년 12월 30일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上이 감기 기운이 있었다. 藥院이 진찰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사직
제향을 섭행하라고 명하고, 眞殿의 茶禮를 친히 행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즉위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선조들을 받들고 백성을 위하는 정
성이 조금이나마 통하고 氣를 제어할 수 있다면...”⁸²⁾

위의 글에서 眞殿은 宮에서 先王과 先后의 眞影이나 御眞을 모시는 건
물을 지칭한다.

大王大妃가 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 (중략) 지금 儀註를 보았더
니 賀儀를 초하루로 잡았는데 초하루에는 마땅히 璿源殿에 茶禮를 행
해야 한다. 새벽에 茶禮를 지내고 또 賀禮를 받는다면...”⁸³⁾

宗廟에서의 祭儀가 公的인 것인데 반해 眞殿에서의 茶禮는 왕실의 私
的인 親중심의 조상숭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면이다. 이 같은 眞殿에서
의 다례는 순조 代 이후로는 正朝, 冬至, 誕日인 삼명일에 설행되었으며,
이는 獻茶儀의 성격을 띠고 있다.⁸⁴⁾

81) 정영선. 조선왕조 別茶禮에 관한 고찰. 한국다문화연구지. 제10권. p.30.

82) 『正祖實錄』 권50 정조 22년 12월 己未(30)(47-154).

83) 『純祖實錄』 권5 순조 3년 11월 辛亥(20)(47-467).

84) 한기정. 전계논문. p.63.

2. 宮中進宴 儀軌에 記錄된 儀式

儀軌의 기록된 進宴의 儀註 가운데 入場에서 禮畢까지의 의식절차를 분석하였다.

1) 戊子進爵儀軌

戊子年(1828년)의 『進爵儀軌』에는 배반도, 반차도, 진찬이 시행된 전각, 각종 정재와 악기, 채화, 복식 등이 상세히 실려 있다. 이와 같이 상세한 圖式을 실는 것은 『園幸乙卯整理儀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⁸⁵⁾

戊子年 進爵은 순원왕후의 사순 생신을 경축하기 위해 1828년 2월 12일에 慈慶殿에서 왕과 왕비에게 內進爵을 올리고, 같은 날 밤에 別盤果를 올렸으며, 2월 13일에는 王世子가 주인공이 되는 王世子會酌을 선행하였다. 慈慶殿進爵儀는 王과 王妃를 주인공으로 王世子, 王世子嬪, 儀賓, 戚臣, 左右命婦, 公主가 참석하였으며, 夜進別盤果儀는 王과 王妃가 주인공이고 王世子만이 참석하였다. 다음날 선행되어진 翌日王世子會酌儀는 王世子가 주인공으로 公主와 命婦만이 참석하였다.

戊子년에 이틀간에 걸쳐 선행되어진 進爵의 儀註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⁶⁾(표 14참조)

85) 박정혜. <水源陵幸圖屏>연구 『美術史學研究』 189호(1991, 3). p.27~68

86) 국립국악원(편). 《(戊子)進爵儀軌》. 1980. p.58.

<표 14> 戊子進爵儀軌의 의식절차

구분	2월 12일 內進爵儀	2월 12일 夜進別盤果儀	2월 13일 翌日王世子會酌儀
入場	王과 王妃 陸座	王과 王妃 陸座	王世子 陸座
拜	王世子 이하 모두 鞠躬四拜	王世子 鞠躬四拜	公主와 命婦 鞠躬四拜
進饌	王과 王妃에게 揮巾, 魚饌, 花를 올림	王과 王妃에게 揮巾, 別行果를 올림	王世子에게 揮巾, 饌案을 올림
一酌	王世子가 王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가 王妃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가 王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가 王妃에게 술을 올림	女官이 王世子에게 술을 올림
進饌	王과 王妃에게 小膳, 湯, 饅頭를 올림	王과 王妃에게 湯을 올림	王世子에게 湯과 茶를 올림
二酌	王世子嬪이 王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嬪이 王妃에게 술을 올림		
進茶	王과 王妃에게 茶를 올림		
進饌	王세자와 王世子嬪에게 揮巾, 饌案을 올림		
三酌	公主가 王에게 술을 올림 公主가 王妃에게 술을 올림		
宴會	公主, 左右命婦, 宗親이하 諸臣들에게 식탁 진설 王세자와 王世子嬪에게 술, 湯, 饅頭, 茶를 올림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別行果를 올림 公主, 左右命婦, 宗親 이하에게 行酒	王世子에게 揮巾, 小膳, 酒, 湯을 올림 王, 王妃에게 茶를 올림 王世子에게도 茶를 올림	公主와 命婦에게 식탁 진설과 行酒
禮畢	王 이하 모두 퇴장	王 이하 모두 퇴장	王世子 이하 모두 퇴장

(1) 慈慶殿進爵儀

儀賓, 戚臣, 左右命婦, 公主가 就位로 나아가고 王世子嬪과 王世子가 拜位로 나아가면 王과 王妃가 陞座를 한다. 王世子이하 모두 왕에게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이어 왕과 왕비에게 進饌을 한다. 進揮巾, 御饌, 花가 올려지면 왕세자이하 모두 俯伏興平身을 하고 王世子和 王世子嬪에게 花가 올려지고 公主, 左右命婦, 宗親, 儀賓, 戚臣에게 꽃을 나누어 주는 頒花를 한다. 王世子가 王에게 1작을 올리고 致詞를 올리면 王이 술을 든다. 王世子이하 모두 俯伏興平身을 하고 傳敎를 한다. 王世子가 王妃에게 1작을 올리고 致詞를 올리면 王妃가 술을 든다. 王世子이하 모두 俯伏興平身을 하고 傳旨를 한다. 1작 후 王과 王妃에게 奉小膳, 進湯, 進大膳, 進饅頭를 올린다. 王世子嬪이 王에게 2작을 올리고 致詞하면 王이 술을 들고 나면 傳敎를 한다. 王世子嬪이 王妃에게 2작을 올리고 致詞하면 王妃가 술을 들고 나면 傳旨를 한다. 2작 후 王과 王妃에게 進茶를 한다. 王世子과 王世子嬪에게 揮巾과 饌案을 올린다. 公主가 王에게 3작을 올리고 致詞를 올리고 王이 술을 들면 傳敎, 宣敎를 한다. 公主가 王妃에게 3작을 올리고 致詞를 올린 후 王妃가 술을 들면 傳旨를 한다. 王世子 이하 拜位로 올라와 모두 三叩頭, 山呼, 四拜를 하고 자리로 돌아온다. 公主, 左右命婦, 宗親이하의 諸臣들에게 饌卓이 진설되고 王과 王妃는 王世子和 王世子嬪에게 각각 술을 내리고 進湯, 饅頭, 茶를 내린다.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차례로 進別行果를 올리고 公主, 左右命婦, 宗親이하에게 行酒가 있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 可起 등 禮畢을 창하면 王 이하 모두 퇴장한다.

(2) 慈慶殿夜進別盤果儀

王世子가 拜位로 나아가면 王과 王妃가 陞座한다. 王世子가 王과 王妃에게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나면 王과 王妃에게 奉揮巾, 別行果가 올려진

다. 王世子가 王에게 1작을 올리고 致語를 아뢰면 王이 술을 든다. 王世子가 王妃에게 1작을 올리고 致語를 아뢰면 王妃가 술을 든다. 王世子가 山呼를 한다. 王과 王妃에게 進湯이 올려진다. 王世子에게 進揮巾, 小膳, 酒, 湯이 올려진다. 王과 王妃에게 進茶가 올려지고 王世子에게도 進茶가 올려진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으로서 別盤果와 小盤果를 물리고 可起와 禮畢을 창하면 王 이하 모두 퇴장한다.

(3) 慈慶殿翌日王世子會酌儀

公主와 命婦가 拜位로 나아가고 王世子는 陸座한다. 公主와 命婦가 鞠躬再拜興平身한다. 王世子에게 進饌인 進揮巾, 饌案을 올리고 命婦에게는 꽃을 나누어 주는 頒花를 한다. 女官이 王世子에게 1작을 올리면 王世子가 술을 든다. 王世子에게 進湯과 茶가 올려지면 公主와 命婦가 차례로 致詞와 傳令을 한다. 公主와 命婦에게 饌卓이 진설되고 行酒가 이루어진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公主이하 모두 鞠躬再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世子 이하 모두 퇴장한다.

2) 己丑進饌儀軌

己丑年(1829년) 『進饌儀軌』는 순조의 보령이 40세가 되는 해이자 등극 30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를 경축하기 위해 2월 9일 昌慶宮의 外殿인 明政殿에서 外進饌, 12일 慈慶殿에서 內進饌과 夜進饌, 13일의 王世子會酌을 설행한 기록이다. 明政殿 進饌儀는 外進饌으로 정치를 주도하는 王이 주축이 되어 설행되어지는 進饌으로 주요참석자는 王世子를 비롯한 宗親, 文武百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왕비를 비롯한 여성들은 참여할 수 없다. 12일에 설행된 慈慶殿 內進饌儀는 王이 주인공으로 王世子, 王世子嬪, 左右命婦 등이 주요참석자로 설행되었으며, 같은 날 慈慶殿 夜進饌儀는 王이 주인공으로

王世子만이 참석하였다. 다음날인 13일의 翌日王世子會酌儀는 王世子를 대상으로 命婦들이 참여함으로써 會酌이 설행되었다. 己丑年 3일에 걸쳐 행해진 進饌의 의식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⁷⁾(표 15참조)

(1) 明政殿進饌儀

宗親·儀賓 이하 拜位로 나아가고 王世子도 拜位로 나아간다. 왕이 陞座하고 王世子이하 모두 王에게 鞠躬四拜興平身을 한다. 이어 왕에게 進饌인 奉揮巾, 饌案, 別行果, 花가 올려지면 王世子 이하 모두 俯伏興平身을 한다. 王世子가 王에게 1작을 올린 후 致詞하면 王은 술을 든다. 1작 후 王에게 進湯, 饅頭를 올린다. 班首가 王에게 2작을 올리고 致詞와 傳教를 하면 王이 술을 든다. 王世子 이하 모두 三叩頭, 山呼, 俯伏興四拜興平身을 한다. 왕세자에게 奉揮巾, 饌案, 別行果, 花, 湯, 饅頭를 올린다. 宗親, 文武百官에게는 頒花하고 王은 王世子에게 술을 내린다. 諸臣이 왕에게 3작, 4작, 5작, 6작, 7작, 8작, 9작을 올린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王世子 이하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禮畢로서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2) 慈慶殿進饌儀

王世子嬪, 王世子가 拜位로 나아가면 王이 陞座를 한다. 王世子이하 모두 王에게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이어 王에게 進饌을 올린다. 王에게 揮巾과 御饌이 올려지면 王世子이하 모두 俯伏興平身을 한다. 王世子와 王世子嬪에게 花가 올려지고 左右命婦, 宗親, 儀賓, 戚臣에게 頒花한다. 進饌을 하고 나면 王世子가 王에게 1작을 올리고 致詞를 올리면 王이 술을 든다. 王世子이하 모두 俯伏興平身을 하고 宣教를 한다. 1작 후 왕에게 進鹽水⁸⁸⁾,

87) 국립국악원(편). 《(己丑)進饌儀軌》. 1980. p.162.

88) 鹽水の “鹽”은 소금 외에 아름다울 “艷(염)”이라는 뜻도 있어 궁중 食用語에서의 鹽水는 “湯 중에서 가장 우수한 湯”으로 왕께서 잡수시는 “湯”으로도 해석된다.(김상보, 조선왕조궁중

小膳, 湯, 大膳, 饅頭를 올린다. 王世子嬪이 王에게 2작을 올린다. 致詞하면 王이 술을 들고 傳敎를 한다. 2작 후 王에게 進茶를 한다.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揮巾과 饌案을 올린다. 王에게 左命婦 반수가 3작을 올린 후 致詞를 올리고 王이 술을 들면 傳敎를 한다. 이와 같은 의식의 순서대로 4작은 右命婦 반수가, 5작은 宗親반수가, 6작은 儀賓 반수가, 7작은 戚臣 반수가 王에게 술을 올린다. 작이 끝나면 王世子 이하 모두 三叩頭, 山呼, 四拜를 한다. 左右命婦, 宗親이하의 諸臣들에게 饌卓이 진설되고, 王世子과 王世子嬪에게 술과 湯, 饅頭, 茶를 올린다. 王,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차례로 別行果를 올리고 左右命婦, 宗親이하에게는 行酒가 거행된다. 禮畢로서 예를 마치는 撤床, 可起를 하고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3) 慈慶殿夜進饌儀

王世子가 拜位로 나아가면 王이 陞座한다. 王世子가 王에게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나면 王에게 奉揮巾, 饌案이 올려진다. 王世子가 王에게 1작을 올리고 致詞하면 王이 술을 든다. 王世子가 山呼, 俯伏興四拜平身을 한다. 王世子에게 揮巾, 饌案, 酒, 湯이 올려진다. 王에게 進茶가 올려지고 王世子에게도 進茶가 올려진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으로써 饌床을 물리고 可起와 禮畢을 창하면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4) 慈慶殿翌日王世子會酌儀

命婦가 拜位로 나아가고 王世子는 陞座한다. 命婦가 鞠躬再拜興平身한다. 王世子에게 進饌인 揮巾과 花를 올리고 命婦에게는 꽃을 나누어 주는 頒花를 한다. 王세자에게 進饌案, 酒, 湯, 饅頭, 別行果, 茶를 올린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命婦이하 모두 鞠躬再拜興平身을 한다

의례음식문화, 수학사, 1995, p.115에서 재인용)

음 禮畢로서 王世子 이하 모두 退場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순조代의 의례에는 2작부터 왕세자와 백관에게 술을 올리고 있다. 이전에는 연회가 시작되면 湯을 먼저 올리어 湯을 먼저 먹고, 3작부터 왕세자와 백관은 술을 받았다. 이는 臣下가 王을 위하여 축하하는 의식 중심에서 臣下가 王과 같이 잔치를 하는 의식으로 바뀌어간 것을 반영한다.⁸⁹⁾

<표 15> 己丑進饌儀軌의 의식절차

구분	2월 9일 外進饌儀	2월 12일 內進饌儀	2월 12일 夜進饌儀	2월 13일 翌日王世子會酌儀
入場	王 陞座	王 陞座	王 陞座	王世子 陞座
拜	王世子이하 鞠躬四拜	王世子이하 鞠躬四拜	王世子 鞠躬四拜	命婦 鞠躬再拜
進饌	王에게 揮巾, 饌案, 別行果, 花를 올림	王에게 揮巾, 御饌을 올림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進花함. 左右命婦 이하 頒花함	王에게 揮巾, 饌案을 올림	王世子에게 揮巾을 올리고 進花함. 命婦에게 頒花함
一酌	王世子가 王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가 王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가 王에게 술을 올림	
進饌	王에게 湯, 饅頭를 올림	王에게 鹽水, 小膳, 湯, 大膳, 饅頭를 올림		
二酌	班首가 王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嬪이 王에게 술을 올림		
進茶		王에게 茶를 올림		
進饌	사옹원 부제조가 王世子에게 揮巾, 饌案, 別行果, 花, 湯, 饅頭를 올림. 王世子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揮巾, 奉饌案을 올림		
三酌	諸臣이 王에게 술을 올림	左命婦 班首가 王에게 술을 올림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게서. 2005. p.23.

四酌	諸臣이 王에게 술을 올림	右命婦 班首가 王에게 술을 올림		
五酌	諸臣이 王에게 술을 올림	宗親 班首가 王에게 술을 올림		
六酌	諸臣이 王에게 술을 올림	儀賓 班首가 王에게 술을 올림		
七酌	諸臣이 王에게 술을 올림	戚臣 班首가 王에게 술을 올림		
八酌	諸臣이 王에게 술을 올림			
九酌	諸臣이 王에게 술을 올림			
宴會		左右命婦, 宗親이하에게 饌卓진설. 王이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술을 내림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湯, 饅頭, 茶를 올림. 王,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別行果를 올림. 左右命婦, 宗親이하에게 行酒	王世子에게 揮巾, 進饌案, 酒, 湯을 올림. 王과 王世子에게 茶를 올림	王世子에게 饌案, 酒, 湯, 饅頭, 別行果, 茶를 올림
禮畢	王이하 퇴장	王이하 퇴장	王이하 퇴장	王世子이하 퇴장

3) 戊申進饌儀軌

헌종이 재위한지 15년 동안 거행된 국가적인 연향은 戊申年(1848년)에 거행된 進饌儀였다. 戊申年은 大王大妃인 順원왕후가 肅순이 되고 王大妃인 神정왕후가 望五가 되는 해이므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昌慶宮의 內殿인 通明殿에서 3월 17일 大王大妃를 위한 內進饌을 王, 王妃, 慶嬪, 左右命婦, 宗親, 儀賓, 戚臣, 進饌所堂上郎廳이 참석한 가운데 행하였으며 夜進饌은 大王大妃와 王만이 참석한 가운데 설행되어졌다. 戊申年 進饌의 의주를 통해 後

宮인 慶嬪의 자리를 살펴보면 王妃보다 약간 아래 위치하고 있으나 大妃에게 올리는 獻爵에도 참여하고, 饌品을 살펴보면 王妃와 상차림이 같아 進饌에서 王妃와 거의 대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3월 19일 通明殿에서의 大殿會酌은 王이 행사의 준비에 애쓴 命婦, 進饌所堂上郎廳을 참석하게 하였고, 이 날 밤에는 命婦를 제외한 남성들만이 모여 王과 進饌所堂上郎廳만이 참석한 가운데 夜讌이 있었다.⁹⁰⁾ 戊申年 이틀에 걸쳐 행해진 진찬의 의식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6참조)

(1) 通明殿進饌儀

宗親, 儀賓, 戚臣, 進饌所堂上, 郎廳, 慶嬪, 王妃, 王이 拜位로 나아가면 大王大妃가 陞座한다. 王 이하 모두 大王大妃께 鞠躬四拜興平身을 한다. 大王大妃께 進揮巾, 饌案, 匙櫛이 올려지고 王, 王妃, 慶嬪에게 花가 올려진다. 女執事가 王 앞에 꽃을 올리고, 女官이 王妃 앞에 꽃을 올리고, 다른 女官이 慶嬪 앞에 꽃을 올린다. 女執事가 左右命婦, 宗親, 儀賓, 戚臣,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꽃을 나누어 주는 頒花를 행한다. 王이 大王大妃에게 1작과 進味數⁹¹⁾를 올린 후 致詞하고 전문을 읽는 讀箋을 마치면 大王大妃가 술을 들고 傳敎를 한다. 1작 후 大王大妃께 進鹽水, 小膳, 湯, 饅頭를 올린다. 王妃가 대왕대비께 2작과 進味數를 올리고 致詞하면 대왕대비는 술을 들고 傳敎를 한다. 2작 마친 후, 尙食이 대왕대비좌 앞에 茶를 올리는 進茶가 있다. 慶嬪이 대왕대비께 3작과 進味數를 올리고 致詞를 하면 대왕대비가 술을 들고 傳敎가 있다. 3작 후 王, 王妃, 慶嬪에게 進揮巾, 饌案, 匙櫛을 올린다. 左右命婦, 宗親, 儀賓, 戚臣이 차례로 致詞를 올리고 王이하 모두 三叩頭, 山呼, 四拜를 한다. 左右命婦 이하 饌床을 진설하면 대비가 王, 王妃, 慶

90) 《(戊申)進饌儀軌》. 은하출판사. 1989. p.60.

91) 술의 헌작에 따라 올려지는 술안주이다.

嬪에게 차례로 술과 進味數를 내린 후 進湯, 饅頭, 茶를 올린다. 大王大妃에게 別行果를 올리고 王, 王妃, 慶嬪에게도 차례로 別行果를 올린다. 左右命婦, 宗親 이하에게 行酒를 행한다. 마지막 순서로 撤床, 可起, 禮畢을 창하면 大王大妃 이하 모두 退場한다.

(2) 通明殿夜進饌儀

王이 拜位로 나아가면 대왕대비가 陞座한다. 王이 대비께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나면 대비께 揮巾, 饌案, 匙櫛이 올려진다. 王이 大王大妃께 1작을 올리고 致詞하면 대왕대비가 술을 든다. 그런 후 대왕대비에게 湯이 올려진다. 王이 三叩頭, 山呼, 俯伏興平身을 하고 나면 王에게 揮巾, 饌案, 匙櫛, 酒, 湯이 올려진다. 大王大妃께 茶가 올려지고 王에게도 茶가 올려진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과 可起와 禮畢을 창하면 大王大妃이하 모두 退場한다.

(3) 通明殿翌日會酌儀

進饌所堂上, 郎廳, 命婦가 拜位로 나아가면 王이 大次에서 나아가 자리에 陞座한다. 命婦이하 鞠躬四拜興平身을 한다. 王에게 揮巾이 올려지고 命婦,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꽃을 나누어주는 頒花를 한다. 王에게 饌案, 匙櫛이 올려진다. 女執事가 王에게 1작과 進味數를 올리면 王이 술을 든다. 王에게 湯이 올려지고 命婦 반수 이하가 致詞를 올리면 女執事가 傳教를 아뢰고 宣教를 한다. 進饌所堂上, 郎廳도 이와 같이 한다. 命婦이하 모두 三叩頭, 山呼, 四拜를 한다. 命婦,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饌床이 진설되고 行酒가 있는 다음 女執事가 王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를 거행한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와 禮畢을 창하면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4) 通明殿翌日夜讌儀

進饌所堂上, 郎廳이 拜位로 나아가면 王이 大次에서 나아가 자리에 陞座한다. 進饌所堂上, 郎廳이 鞠躬四拜興平身을 한다. 王에게 揮巾, 饌案, 匙楪을 올리고, 女執事가 王에게 1작을 올린다. 王이 술을 들면 湯이 올려진다. 進饌所堂上, 郎廳이 致詞를 올린다. 進饌所堂上, 郎廳이 三叩頭, 山呼, 四拜를 하면 女執事는 왕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의식을 행한다. 女執事는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술을 돌리는 行酒를 행하고 마지막 순서인 撤床 즉 饌案을 물리고 匙楪, 揮巾을 물린다. 可起를 창하면 進饌所堂上, 郎廳이 拜位로 나아가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禮畢을 창하면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이상 1848년 진찬에서는 王과 王妃와 慶嬪이 大王大妃에게 3작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王의 後宮인 慶嬪이 王妃와 거의 대등한 자격으로 잔치에 참여한 점이 특징적이다.

<표 16> 戊申進饌儀軌의 의식절차

구분	3월 17일 內進饌儀	3월 17일 夜進饌儀	3월 19일 翌日會酌儀	3월 19일 翌日夜讌儀
入場	大王大妃 陞座	大王大妃 陞座	王 陞座	王 陞座
拜	王이하 鞠躬四拜	王이하 鞠躬四拜	命婦이하 鞠躬四拜	進饌所堂上郎廳 鞠躬四拜
進饌	大王大妃에게 揮巾, 饌案, 匙楪을 올림	大王大妃에게 揮巾, 饌案, 匙楪을 올림	王에게 揮巾, 饌案, 匙楪을 올림	王에게 揮巾, 饌案, 匙楪을 올림
一酌	王이 大王大妃에게 술을 올림	王이 大王大妃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에게 술을 올림
進饌	大王大妃에게 鹽水, 小膳, 湯, 饅頭을 올림	大王大妃에게 湯을 올림	王에게 湯을 올림	王에게 湯을 올림

二酌	王妃가 大妃에게 술을 올림			
進茶	大王大妃에게 茶를 올림			
三酌	慶嬪이 大妃에게 술을 올림			
進饌	王, 王妃, 慶嬪에게 揮巾, 饌案, 匙楪을 올림			
宴會	左右命婦, 宗親 이하 饌床 진설. 大妃가 王, 王妃, 慶嬪에게 술을 내림. 王, 王妃, 慶嬪에게 湯, 饅頭, 茶를 올림. 大王大妃, 王, 王妃, 慶嬪에게 別行果를 올림. 左右命婦, 宗親 이하 行酒함.	王에게 揮巾, 饌案, 匙楪, 酒, 湯을 올림 大王大妃와 王에게 茶를 올림	命婦,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饌床, 陳設하고 行酒함. 王에게 茶를 올림	王에게 茶를 올림. 進饌所堂上郎廳 行酒함
禮畢	大王大妃 이하 退場	大王大妃 이하 退場	王 이하 退場	王 이하 退場

4) 丁丑進饌儀軌

丁丑年(1877년)에는 신정왕후의 보령이 칠순이 되는 것을 경축하기 위해서 주인공인 大王大妃를 중심으로 王, 王妃, 王世子, 宗親, 命婦 등이 참여한 가운데 12월 6일에 通明殿에서 內進饌이 설행되었다. 같은 날 밤의 夜進饌은 大王大妃와 王만이 참석한 가운데 행해진 進饌이었다. 10일의 大殿會酌은 王을 중심으로 하여 命婦, 進饌所堂上郎廳이 함께 하는 進宴이었으며, 같은 날 밤의 大殿夜讌은 王과 進饌所堂上郎廳만이 참석한 가운데 通明殿에서 설행되었다.⁹²⁾ 丁丑年 이틀에 걸쳐 설행되어진 진찬의 의식절차를 살펴보았다.(표 17참조)

92) 『高宗實錄』 권14 고종 14년 12월 丙戌(16).

(1) 通明殿進饌儀

大王大妃가 大次로 나아가 陸座를 한다. 王 이하 모두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大王大妃께 揮巾, 饌案, 匙櫛을 올리고 王, 王妃, 王世子에게 꽃을 올린다. 左右命婦 이하에게도 꽃을 나누어 주는 頒花를 행한다. 王이 大王大妃께 1작과 味數를 올리고 致詞를 하면 대비께서 술을 드신 후 宣敎를 한다. 대비께 鹽水, 小膳, 湯, 大膳, 饅頭등의 進饌을 올리면 王妃가 대비께 2작과 味數를 올린다. 致詞를 하고 대비께서 술을 드신 후 宣敎를 한다. 2작 후 大王大妃께 茶를 올리는 進茶 의식을 행한다. 王世子가 대비께 3작과 味數를 올리고 致詞하면 대비께서 술을 드신 후 宣敎한다. 王, 王妃, 王世子에게도 揮巾, 饌案, 匙櫛을 올린다. 종친반수가 4작과 함께 味數와 致詞를 올리고, 左命婦 반수가 5작과 味數를 올리고 치사를 하면 大王大妃께서 술을 드신다. 그리고 右命婦, 儀賓, 戚臣 순으로 致詞를 올린다. 左右命婦, 宗親이하에게 饌床을 진설하고 대왕대비께서 王, 王妃, 王世子에게 술을 차례로 내리시면 술을 마신다. 그리고 湯, 饅頭, 茶를 王, 王妃, 王世子에게 올리고 大王大妃에게 別行果를 올린 다음 王, 王妃, 王世子에게도 別行果를 올린다. 左右命婦, 宗親이하에게 술을 내리는 行酒를 행한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王 이하 모두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禮畢을 창하면 대비 이하 모두 退場한다.

(2) 通明殿夜進饌儀

王이 褥位로 나아가고 大王大妃는 陸座하면 王이 鞠躬四拜興平身한다. 대비께 進饌인 揮巾, 饌案, 匙櫛을 올린다. 王이 대왕대비께 1작을 올리고 致詞한후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대왕대비께 湯을 올린다. 王은 三叩頭, 山呼, 俯伏興平身을 한다. 王에게 進饌인 揮巾, 饌案, 匙櫛, 酒, 湯을 올린 후 大王大妃, 王에게 차례로 茶를 올리는 進茶 의식이 있다. 마지막 순서로서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고 王 이하 모두 鞠躬四拜興平身한 후 禮畢을 창하면 대비이하 모두 退場한다.

(3) 通明殿翌日會酌儀

進饌所堂上, 郎廳, 命婦가 拜位로 나아가면 王이 陞座한다. 命婦이하 諸臣들이 鞠躬四拜興平身한다. 王에게 進饌인 揮巾, 進花, 饌盤, 匙櫛을 올린다. 女執事가 王에게 1작과 味數를 올리면 王은 술을 든다. 王에게 湯을 올리고 命婦와 進饌所堂上, 郎廳은 차례로 致詞를 한다. 命婦 이하 三叩頭, 山呼, 俯伏興四拜興平身를 행한 후 命婦,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饌床을 진설한다. 王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 의식을 하고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命婦이하 모두 鞠躬四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4) 通明殿翌日夜讌儀

進饌所堂上, 郎廳이 拜位로 나아가면 王이 陞座한다. 進饌所堂上, 郎廳이 鞠躬四拜興平身한다. 王에게 進饌인 揮巾, 饌盤, 匙櫛을 올린다. 女執事が 王에게 1작을 올리면 王은 술을 든다. 王에게 湯을 올리고 進饌所堂上, 郎廳은 致詞를 한 후 三叩頭, 山呼, 俯伏興四拜興平身한다. 王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 의식을 하고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饌卓을 진설한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進饌所堂上, 郎廳은 鞠躬四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표 17> 丁丑進饌儀軌의 의식절차

구분	12월 6일 內進饌儀	12월 6일 夜進饌儀	12월 10일 翌日會酌儀	12월 10일 翌日夜譚儀
入場	大王大妃 陸座	大王大妃 陸座	王 陸座	王 陸座
拜	王 이하 鞠躬四拜	王 鞠躬四拜	命婦이하 鞠躬四拜	進饌所堂上郎廳 鞠躬四拜
進饌	大王大妃에게 揮巾 進饌案, 匙楪을 올림. 王, 王妃, 王세자에게 進花함 左右命婦 이하에게 頒花함.	大王大妃에게 揮巾, 饌案, 匙楪을 올림.	王에게 揮巾, 進花 饌盤, 匙楪을 올림	王에게 揮巾, 饌盤, 匙楪을 올림
一酌	왕이 大王大妃에게 술을 올림	왕이 大妃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에게 술을 올림
進饌	大王大妃에게 鹽水, 小膳, 湯, 大膳, 饅頭을 올림	大王大妃에게 湯을 올림		
二酌	王妃가 大王大妃에게 술을 올림			
進茶	대왕대비에게 茶를 올림			
三酌	王世子가 大妃에게 술을 올림			
進饌	王, 王妃, 王세자에게 揮巾, 饌案, 匙楪을 올림			
四酌	宗親班首가 王에게 술을 올림			
五酌	命婦班首가 王에게 술을 올림			
宴會	左右命婦, 宗親 이하에 饌床 진설함. 大王大妃가 王, 王妃, 王세자에게 술을 내림 王, 王妃, 王세자에게 湯, 饅頭, 茶를 올림. 大王大妃, 王, 王妃, 王세자에게 別行果를 올림 左右命婦, 宗親 이하 行酒함.	王에게 揮巾, 饌案, 匙楪, 酒, 湯을 올림 大王大妃와 王에게 茶를 올림	命婦, 進饌所堂上郎廳에 饌床 진설 王에게 茶를 올림	王에게 茶를 올림. 進饌所堂上郎廳에 饌卓 진설함
禮畢	大王大妃 이하 퇴장	大王大妃 이하 퇴장	王 이하 퇴장	王 이하 퇴장

5) 丁亥進饌儀軌

丁亥年(1887년)은 신정왕후의 보령이 80세가 되는 해이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월 27일에 경복궁의 내전인 萬慶殿에서 신정왕후에게 內進饌을 설행하였다.⁹³⁾ 이러한 萬慶殿進饌儀는 大王大妃를 주인공으로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 左右命婦, 宗親, 儀賓, 戚臣이 참여한 진찬이었다. 같은 날 밤의 夜進饌에서는 大王大妃를 주인공으로 王과 王世子가 참여하여 進饌이 베풀어졌다. 28일 大殿會酌은 王이 주인공으로 命婦와 進饌所堂上郎廳이 참석하였으며, 夜讌에는 王과 進饌所堂上郎廳만이 참여한 조출한 자리였다. 29일에는 王世子를 위하여 命婦와 進饌所堂上郎廳이 참여하는 王世子會酌이 설행되었으며, 이 날 밤에는 王世子와 進饌所堂上郎廳만이 참여하는 王世子夜讌이 설행되었다. 丁亥年 3일에 걸쳐 설행되어진 진찬의 의식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8참조)

(1) 萬慶殿進饌儀

宗親, 儀賓, 戚臣, 進饌所堂上, 郎廳, 左右命婦가 拜位로 나아가면 王世子嬪, 王世子, 王妃, 王이 차례로 褥位로 나아간다. 이어 大王大妃가 陸座하면 王 이하 모두 鞠躬四拜興平身한다. 대비에게 進饌인 揮巾, 匙楪, 御饌을 올린다.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각각 꽃을 올리고 左右命婦 이하에게도 꽃을 나누어 주는 頒花를 한다. 王이 大王大妃에게 1작을 올린 후 致詞와 讀箋을 하면 大妃는 술을 들고 宣旨가 있다. 大妃에게 進饌인 鹽水, 小膳, 湯, 大膳을 올린다. 王妃가 大王大妃에게 2작을 올리고 致詞하면 대비는 술을 들고 宣敎를 한다. 2작 후 大王大妃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 의식이 있다. 王世子가 大王大妃에게 3작을 올리고 致詞와 讀箋을 하면 大王大妃가 술을 든다. 宣敎가 있다. 王世子嬪이 대비에게 4작을 올리고 致詞하면 大妃

93) 『高宗實錄』 권24 고종 24년 1월 27일.

가 술을 들고 宣敎가 있다.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揮巾, 匙楪, 饌果를 올린다. 左命婦 班首가 大妃에게 5작을 올리고 致詞하면 宣敎가 있다. 右命婦 班首, 宗親班首. 儀賓, 戚臣 班首이하 致詞를 한다. 王 이하 三叩頭, 山呼, 俯伏興四拜興平身한다. 左右命婦, 宗親 이하 饌床이 進設되면 大妃가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술과 味數를 차례로 내린다.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湯, 饅頭, 茶를 올리고 大王대비에게 別行果를 올린 다음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別行果를 올린다. 左右命婦, 宗親이하에게 行酒가 있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王 이하 모두 鞠躬四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大王大妃 이하 모두 退場한다.

(2) 萬慶殿夜進饌儀

王世子와 王이 褥位로 나아가고 大王大妃가 陞座한다. 王과 王世子가 鞠躬四拜興平身한다. 大妃에게 進饌인 奉揮巾, 匙楪, 御饌을 올린 후 王이 大王大妃에게 1작을 올리고 致詞를 한다. 大妃가 술을 든다. 王世子가 大妃에게 2작을 올리고 致詞를 하면 大王大妃가 술을 든다. 王과 王世子가 三叩頭, 山呼를 하면 大妃에게 進湯이 올려지고 王과 王世子에게 揮巾, 饌盤, 酒, 湯이 올려진다. 이어 大王大妃에게 茶가 올려지면 王과 王世子에게도 茶가 올려지는 進茶 의식이 있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王과 王世子가 鞠躬四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大王大妃 이하 모두 退場한다.

(3) 萬慶殿翌日(大殿)會酌儀

進饌所堂上, 郎廳, 命婦가 拜位로 나아가면 王이 陞座한다. 命婦이하 諸臣들이 鞠躬四拜興平身한다. 王에게 進饌인 揮巾, 花, 匙楪, 饌盤을 올린다. 女執事가 王에게 1작과 味數를 올리면 王은 술을 든다. 王에게 湯을 올리고

命婦와 進饌所堂上, 郎廳은 차례로 致詞와 傳敎를 한다. 命婦 이하는 三叩頭, 山呼, 俯伏興四拜興平身하고 命婦,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饌卓을 진설하고 行酒가 있다. 王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의식을 하고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命婦이하 모두 鞠躬四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4) 萬慶殿翌日(大殿)夜讌儀

進饌所堂上, 郎廳이 拜位로 나아가면 王이 陞座한다. 進饌所堂上, 郎廳이 鞠躬四拜興平身한다. 王에게 進饌인 揮巾, 匙楪, 饌盤을 올린다. 女執事가 王에게 1작을 올리면 王이 술을 든다. 王에게 湯을 올리고 進饌所堂上, 郎廳이 致詞를 한 후 三叩頭, 山呼, 俯伏興四拜興平身한다. 王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의식을 하고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饌卓을 진설하고 行酒를 한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進饌所堂上, 郎廳은 鞠躬四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5) 萬慶殿翌日(王世子)會酌儀

進饌所堂上, 郎廳, 命婦가 拜位로 나아가면 王世子가 陞座한다. 命婦이하 諸臣들이 鞠躬再拜興平身한다. 王世子에게 進饌인 揮巾, 花, 匙楪, 饌盤을 올리고 命婦 이하에게는 꽃을 나누어 주는 頒花를 한다.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1작과 味數를 올리면 王世子는 술을 든다. 王世子에게 湯을 올리고 命婦, 進饌所堂上, 郎廳은 차례로 致詞한다. 命婦 이하 俯伏興再拜興平身를 한다. 命婦,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饌卓을 진설하고 行酒가 있다. 王世子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의식을 하고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命婦이하 모두 鞠躬再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世子 이하 모두 退場한다.

(6) 萬慶殿翌日(王世子)夜譚儀

進饌所堂上, 郎廳이 拜位로 나아가면 王世子가 陸座한다. 進饌所堂上, 郎廳이 鞠躬再拜興平身한다. 王世子에게 進饌인 揮巾, 匙楪을 올리고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1작을 올리면 王世子가 술을 든다. 王世子에게 湯을 올리고 進饌所堂上. 郎廳은 致詞를 한 후 俯伏興再拜興平身한다. 王世子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의식을 하고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면 可起를 창하고 進饌所堂上, 郎廳은 鞠躬再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世子 이하 모두 退場한다.

<표 18> 丁亥進饌儀軌의 의식절차

구분	1월 27일 內進饌儀	1월 27일 夜進饌儀	1월 28일 翌日會酌儀	1월 28일 翌日夜譚儀	1월 29일 翌日王世子 會酌儀	1월 29일 翌日王世子 夜譚儀
入場	大王大妃 陸座	大王大妃 陸座	王 陸座	王 陸座	王世子 陸座	王世子 陸座
拜	王 이하 鞠躬四拜	王, 王世子 鞠躬四拜興	命婦이하 鞠躬四拜	進饌所堂上郎廳 鞠躬四拜	命婦이하 鞠躬再拜	進饌所堂上郎廳 鞠躬再拜
進饌	大王大妃에게 揮巾, 匙楪, 御饌을 올림.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進花함.	大王大妃에게 揮巾, 匙楪, 饌案을 올림	王에게 揮巾, 花, 匙楪, 饌盤을 올림	王에게 揮巾, 匙楪, 饌盤을 올림	王世子에게 揮巾, 花, 匙楪, 饌盤을 올림	王世子에게 揮巾, 匙楪을 올림
一酌	王이 大王大妃에게 술을 올림	王이 大王大妃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술을 올림
進饌	大王大妃에게 鹽水, 小膳, 湯, 大膳을 올림					

二酌	王妃가 大王大妃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가 大王大妃에게 술을 올림				
進茶	大王大妃에게 茶를 올림					
三酌	王世子가 大妃에게 술을 올림					
四酌	王世子嬪이 大妃에게 술을 올림					
進饌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揮巾, 匙櫛, 饌果를 올림					
五酌	左命婦班首가 大王大妃에게 술을 올림					
宴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左右命婦, 宗親 이하에 饌床 진설함. · 大王大妃가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술을 내림 ·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湯, 饅頭, 茶를 올림 · 大王大妃,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別行果를 올림. · 左右命婦, 宗親 이하 行酒함. 	大王大妃에게 湯을 올림. 王과 王世子에게 揮巾, 饌盤, 酒, 湯을 올림 大王大妃, 王, 王世子에게 茶를 올림	命婦 이하 饌卓 진설과 行酒함 王에게 茶를 올림	王에게 茶를 올림. 進饌所堂上郎廳 饌卓 진설과 行酒함	命婦 이하 饌卓 진설과 行酒함 王世子에게 茶를 올림	王世子에게 茶를 올림
禮畢	大王大妃 이하 퇴장	大王大妃 이하 퇴장	王 이하 퇴장	王 이하 퇴장	王世子 이하 퇴장	王世子 이하 퇴장

6) 壬辰進饌儀軌

壬辰年(1829년) 進饌은 고종의 보령 41세와 즉위 30년을 경축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고종 代 올린 5차례의 宴享 중 고종에게 올린 壬辰年의 진찬만 外進宴과 內進宴을 모두 베풀었고 1868년, 1873년, 1877년, 1887년의 신정왕후에게 올린 4차례의 進饌 또는 進爵은 모두 內進宴만을 베풀었다. 外殿인 勤政殿에서 外進饌을 올릴 때는 王世子와 함께 百官들이 참여했고 內殿인 康寧殿에서 王과 王妃에게 進饌을 올릴 때는 王世子와 王世子嬪을 비롯하여 宗親과 戚臣 등의 王室 親戚과 左右命婦 등이 참여하였다.⁹⁴⁾

이에 9월 24일 景福宮의 正殿인 勤政殿에서 王을 위해 王世子, 諸臣들이 참여하여 外進饌을 올렸다. 9월 25일에는 內殿인 康寧殿에서 王과 王妃를 위해 王世子, 王世子嬪, 左右命婦, 王子, 宗親, 戚臣 등이 참여하여 內進饌을 설행했으며, 같은 날 밤 康寧殿에서는 王과 王妃를 위해 王世子가 爵과 致詞를 올렸다. 9월 26일에는 王世子會酌儀를, 같은 날 밤에는 王世子夜譙儀를 설행하였다.⁹⁵⁾ 이중 王世子會酌은 王世子를 중심으로 命婦와 進饌所堂上, 郎廳이 모여 조촐하게 잔치를 행하였으며, 이 날 밤 다시 王世子를 위해 進饌所堂上, 郎廳만이 참여한 王世子夜譙이 설행되었다. ⁹⁶⁾

3일에 걸쳐 설행되어진 진찬의 의식절차를 살펴보았다.(표 19참조)

(1) 勤政殿進饌儀

王이 陞座를 하고 王世子이하 모두 王에게 鞠躬四拜興平身을 한다. 이어 王에게 進饌인 揮巾, 大卓, 饌案, 別行果, 奉花盤, 鹽水, 小膳이 올려지면 王世子이하 모두 俯伏興平身을 한다. 王世子가 王에게 1작을 올리고 致詞와 宣敎를 올리면 王이 술을 든다. 1작 후 王에게 鹽水, 湯, 饅頭, 大膳, 茶를

94)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의례 해제집 2권.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p.156.

95) 『高宗實錄』 권29 고종 29년 9월 24·25·26일.

96) 상계서. p.156.

올린다. 班首가 王에게 2작을 올리고 致詞를 하면 宣敎하고 王이 술을 든다. 王에게 湯을 올린다. 王世子 이하 모두 三叩頭, 山呼, 俯伏興四拜興平身을 한다. 王世子에게 揮巾, 饌案, 別行果, 奉花盤, 小膳, 湯, 饅頭, 酒, 茶를 올린다. 宗親文武百官에게는 饌卓을 진설하고 散花한다. 王世子에게 2작을 바치고 湯을 올린다. 諸臣이 王에게 3작을 올리고 王이 술을 들면 湯을 올린다. 王世子에게도 3작을 바치고 湯을 올린다. 宗親文武百官에게 行酒와 湯을 진설한다. 諸臣이 王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4작, 5작, 6작, 7작, 8작, 9작을 王과 王世子에게 올린다. 그리고 王과 王世子에게는 大膳을 올리고 宗親文武百官에게는 行酒와 湯을 진설한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王世子 이하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禮畢로서 王 이하 모두 退場한다.

(2) 康寧殿進饌儀

宗親, 戚臣, 進饌所堂上, 郎廳, 左右命婦가 拜位에 나아가고 王世子嬪, 王世子가 褥位로 나아간다. 王妃와 王이 大次에 나아가서 다시 陞座하면 王世子 이하 모두 鞠躬四拜興平身한다. 王과 王妃에게 進饌인 揮巾, 匙櫟, 饌案, 花를 올린 후 王世子, 王世子嬪에게도 꽃을 올린다. 左右命婦 이하에게도 꽃을 나누어 주는 頒花를 한다. 王世子가 王에게 1작과 味數를 올리고 致詞와 讀箋을 하면 王이 술을 든 후 宣敎를 한다. 王世子가 王妃에게 1작과 味數를 올리고 致詞와 讀箋하면 王妃가 술을 든 후 宣旨를 한다. 王과 王妃에게 鹽水, 小膳, 湯, 大膳, 饅頭를 올린다. 1작과 같은 방법으로 王世子嬪이 王과 王妃에게 2작을 차례로 올린다. 王과 王妃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 의식을 한다.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揮巾, 匙櫟, 饌案을 올린다. 左命婦 班首가 王과 王妃에게 3작을, 右命婦 班首가 王과 王妃에게 4작을, 王子가 王과 王妃에게 5작을, 宗親 班首가 6작을, 戚臣 班首가 7작을 올렸다. 7작을 올린

후 王世子 이하 모두 三叩頭, 山呼, 俯伏興四拜興平身한다. 左右命婦 이하에게 饌案이 진설된다. 王이 王世子에게 술을 내리면 王世子에게 味數가 올려지고 王妃도 王世子에게 술을 내린다. 王世子에게 味數, 鹽水, 小膳, 湯, 大膳, 饅頭가 올려진다.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술을 바치고 王世子에게 味數가 올려진다. 王과 王妃가 王世子嬪에게도 위와 같이 술을 내리고 여러 가지 饌을 내린다. 女官이 王世子嬪에게 술을 바치고 王世子嬪에게도 味數가 올려진다. 王세자와 王世子빈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 의식을 한다. 王과 王妃에게 別行果를 올리고 王세자와 王世子嬪에게도 別行果를 올린다. 左右命婦 이하에게 行酒가 있고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王世子 이하 鞠躬四拜興平身을 하고 禮畢로서 王과 王妃 이하 모두 退場한다.

(3) 康寧殿夜進饌儀

王세자가 褥位로 나아가고 王과 王妃가 大次로 나아가 陸座한다. 王세자가 鞠躬四拜興平身한 후 王과 王妃에게 進饌인 揮巾, 匙楪, 御饌을 올린다. 王세자가 王에게 1작을 올리고 致詞를 하면 王이 술을 든다. 王세자가 王妃에게 1작을 올리고 致詞하면 王妃가 술을 든다. 王世子 이하 三叩頭, 山呼, 俯伏興四拜興平身한다. 王과 王妃에게는 湯이 올려지고 王세자에게 揮巾, 匙楪, 饌盤, 酒, 湯이 올려진다. 이어 王과 王妃에게 茶가 올려지고 王세자에게도 茶가 올려지는 進茶의식이 있다.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王世子 이하 鞠躬四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과 王妃 이하 모두 退場한다.

(4) 康寧殿(王世子)會酌儀

進饌所堂上, 郎廳, 命婦가 拜位로 나아가고 王세자는 陸座한다. 命婦이하 諸臣들이 鞠躬再拜興平身한다. 王세자에게 進饌인 進揮巾, 進花, 匙楪,

饌盤을 올리고 命婦 이하에게는 꽃을 나누어 주는 頒花를 한다.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1작과 味數를 올리면 王世子는 술을 든다. 王世子에게 湯을 올리고 命婦와 進饌所堂上, 郎廳은 차례로 致詞한다. 命婦 이하는 俯伏興再拜興平身하고 命婦, 進饌所堂上, 郎廳에게 饌卓을 진설하고 行酒한다. 王世子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 의식을 하고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고 可起를 창하면 命婦이하 모두 鞠躬再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世子 이하 모두 退場한다.

(5) 康寧殿(王世子)夜讌儀

進饌所堂上, 郎廳이 拜位로 나아가면 王世子가 陞座한다. 進饌所堂上, 郎廳이 鞠躬再拜興平身한다. 王世子에게 進饌인 揮巾, 匙楪, 饌盤을 올리고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1작을 올리면 王世子가 술을 든다. 進饌所堂上·郎廳은 致詞를 한 후 俯伏興再拜興平身한다. 王世子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의식을 하고 마지막 순서인 撤床을 하면 可起를 창하고 進饌所堂上·郎廳은 鞠躬再拜興平身을 한 다음 禮畢로서 王世子 이하 모두 退場한다.

<표 19> 壬辰進饌儀軌의 의식절차

구분	9월 24일 外進饌儀	9월 25일 內進饌儀	9월 25일 夜進饌儀	9월 26일 王世子會酌儀	9월 26일 王世子夜讌儀
入場	王 陞座	王과 王妃 陞座	王과 王妃 陞座	王世子 陞座	王世子 陞座
拜	王世子 이하 鞠躬四拜	王世子 이하 鞠躬四拜	王世子 鞠躬四拜	命婦이하 鞠躬再拜	進饌所堂上郎廳 鞠躬再拜
進饌	王에게 揮巾, 大卓, 饌案, 別行果, 花盤, 鹽水, 小膳을 올림	王과 王妃에게 揮巾, 匙楪, 饌案, 花를 올림	王과 王妃에게 揮巾, 匙楪, 御饌을 올림	王世子에게 揮巾, 匙楪, 饌盤을 올림	王世子에게 揮巾, 匙楪, 饌盤을 올림
一酌	王世子가 王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가 王과 王妃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가 王과 王妃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술을 올림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술을 올림

進饌	王에게 鹽水, 湯, 饅頭, 大膳, 茶를 올림	王과 王妃에게 鹽水, 小膳, 湯, 大膳, 饅頭를 올림			
二酌	班首가 王에게 술을 올림	王世子嬪이 王과 王妃에게 술을 올림			
進茶		王과 王妃에게 茶를 올림			
進饌	王세자에게 揮巾, 饌案, 別行果 花, 鹽水, 小膳, 酒, 湯, 饅頭, 湯, 茶를 올림. 宗親文武百官에게 饌卓 진설함	王세자와 王世子嬪에게 揮巾, 匙楪, 饌案을 올림	王과 王妃에게 湯을 올림		
三酌	宰臣이 王과 王세자에게 술을 올림	左命婦班首가 王과 王妃에게 술을 올림			
四酌	宰臣이 王과 王세자에게 술을 올림	右命婦班首가 王과 王妃에게 술을 올림			
五酌	宰臣이 王과 王세자에게 술을 올림	王子가 王과 王妃에게 술을 올림			
六酌	宰臣이 王과 王세자에게 술을 올림	宗親班首가 王과 王妃에게 술을 올림			
七酌	宰臣이 王과 王세자에게 술을 올림	戚臣班首가 王과 王妃에게 술을 올림			
八酌	宰臣이 王과 王세자에게 술을 올림				
九酌	宰臣이 王과 王세자에게 술을 올림				
宴會	王과 王세자에게 大膳을 올림. 宗親文武百官에게 行酒하고 湯을 올림	· 左右命婦이하에 饌床 진설함. · 王과 王妃가 王세자에게 술을 내림. · 王세자에게 味數, 鹽水, 小膳, 大膳, 饅頭을 올림.	王세자에게 揮巾, 匙楪, 饌盤, 行酒, 湯을 올림 王, 王妃, 王세자에게 茶를 올림	命婦이하에 饌卓진설하고 行酒함. 王세자에게 茶를 올림.	王세자에게 茶를 올림.

宴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王과 王妃가 王世子嬪에게 술을 내림. · 王世子嬪에게 味數, 鹽水, 小膳, 湯, 大膳, 饅頭을 올림 · 王세자와 王世子嬪에게 茶를 올림. ·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에게 別行果를 올림. 左右命婦 이하에게 行酒함. 			
禮畢	王 이하 퇴장	王과 王妃 이하 퇴장	王과 王妃 이하 퇴장	王世子 이하 퇴장	王世子 이하 퇴장

이상 6종의 의례를 토대로 살펴본 19세기 宮中進宴의 내용을 進宴의 실행동기, 시기, 구성, 장소, 주인공, 주요참석자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20>과 같다.

첫째, 진연의 실행동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수연을 축하하기 위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즉 戊子年(1828년) 進爵은 純元王后가 40세가 되는 해이므로 이를 경축하기 위해 설행되었으며, 己丑年(1829년) 進饌은 순조의 寶齡이 40세가 되는 해이자 즉위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를 경축하기 위해 進饌이 설행되었다. 戊申年(1848년) 進饌은 大王大妃인 純元王后가 60세가 되는 해이므로 이를 경축하기 위한 進饌이 베풀어졌으며, 丁丑年(1877년) 進饌은 大王大妃인 神貞王后가 칠순이 되는 해이므로 이를 경축하기 위해 설행되었다. 丁亥年(1887년) 進饌은 神貞王后의 寶齡이 80세가 됨을 축하하기 위해 진찬을 올렸으며, 壬辰年(1892년) 進饌은 高宗이 5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 41세가 되고 즉위한지 3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한 進饌이 설행되었다. 이들 조선후기에 설행된 수연을 기념하는 進宴은 왕실의

<표 20> 宮中の 進宴

儀軌名	設行動機	進宴時期	進宴構成	場所	主人公	主要 參席者
순조 28년 (1828) 戊子進爵儀軌	순원왕후 사순 송수연	2월 12일	內進爵儀	慈慶殿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의빈, 척신, 좌우명부, 공주
			夜進別盤果儀		왕, 왕비	왕세자
		2월 13일	翌日王世子會酌儀		왕세자	공주, 명부
순조 29년 (1829) 己丑進饌儀軌	순조 사순 송수연, 등극 기념연	2월 9일	外進饌儀	明政殿	왕	왕세자, 종친, 의빈, 종친문무백관, 계신
		2월 12일	內進饌儀	慈慶殿	왕	왕세자, 빈, 좌우명부, 종친이하
			夜進饌儀		왕	왕세자
		2월 13일	翌日王世子會酌儀		왕세자	명부
현종 14년 (1848) 戊申進饌儀軌	왕대비 사순, 순원왕후 육순 송수연	3월 17일	內進饌儀		通明殿	대비
			夜進饌儀	대비		왕
		3월 19일	翌日會酌儀	왕		명부, 진찬소당상낭청
			翌日夜讌儀	왕		진찬소당상낭청
고종 14년 (1877) 丁丑進饌儀軌	대왕대비 칠순 송수연	12월 6일	內進饌儀	通明殿	대비	왕, 왕비, 왕세자, 종친, 명부
			夜進饌儀		대비	왕
		12월 10일	翌日會酌儀		왕	명부, 진찬소당상낭청
			翌日夜讌儀		왕	진찬소당상낭청
고종 24년 (1887) 丁亥進饌儀軌	대왕대비 팔순 송수연	1월 27일	內進饌儀	萬慶殿	대비	왕, 왕비, 세자, 세자빈, 좌우명부, 종친, 의빈, 척신
			夜進饌儀		대비	왕, 왕세자
		1월 28일	翌日會酌儀		왕	명부, 진찬소당상낭청
			翌日夜讌儀		왕	진찬소당상낭청
		1월 29일	再翌日 王世子會酌儀		왕세자	명부, 진찬소당상낭청
			再翌日 王世子夜讌儀		왕세자	진찬소당상낭청
고종 29년 (1892) 壬辰進饌儀軌	고종 41세 생신, 등극 30년 기념연	9월 24일	外進饌儀	勤政殿	왕	왕세자, 계신
		9월 25일	內進饌儀	康寧殿	왕, 왕비	왕세자, 빈, 좌우명부, 왕자, 종친, 척신
			夜進饌儀		왕, 왕비	왕세자
		9월 26일	翌日會酌儀		왕세자	명부, 진찬소당상낭청
翌日夜讌儀	왕세자		진찬소당상낭청			

가장 웃어른인 大王大妃 또는 王의 생신을 위한 進饌 또는 進爵의 규모로 행해진 특징을 지닌다.

둘째, 진연의 시기는 수연일인 正日을 비롯하여 그 후에 열리는 제반 행사를 포함하면 기간에 있어서 약 2~4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에 관련하여 주하영은 戊子年(1828)은 진연을 실행하는 기간 상에 변화를 가져온 시점이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즉 과거 18세기까지의 進宴은 대개 正日의 外進饌이나 內進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순조 代에 들어서부터는 外進饌이나 內進饌이 행해지는 당일 밤 夜進饌을 베풀고, 이튿날에는 君臣會禮宴의 성격을 지닌 翌日會酌 혹은 翌日夜讌이 이루어지게 된 차이를 보인다⁹⁷⁾고 하였다.

셋째, 진연의 구성을 살펴보면 大王大妃의 생신을 경축하기 위한 戊子進爵儀는 正日의 內進爵과 夜進別盤果 그리고 다음날 연향을 올린 사람이 주축이 되어 행해지는 王世子會酌으로 구성되었다. 己丑進饌儀는 純祖의 수연이었으므로 正日의 外進饌이 행해졌고, 3일 뒤 좌우명부들이 참여하는 內進饌과 夜進饌 그리고 다음날 왕세자를 위한 翌日王世子會酌으로 구성되었다. 戊申進饌儀는 대왕대비와 왕대비의 수연으로 正日의 內進饌과 夜進饌, 이틀 뒤 內進饌을 올린 왕이 주인공이 되는 翌日會酌과 翌日夜讌으로 구성되었다. 丁丑進饌儀는 대왕대비의 수연으로 正日의 內進饌과 夜進饌, 진찬을 올린 왕이 주인공이 되는 翌日會酌와 翌日夜讌으로 구성되었다. 丁亥進饌儀는 대왕대비의 팔순을 경축하기 위한 正日의 內進饌과 夜進饌을 비롯하여 다음 날 실행되어진 翌日會酌과 翌日夜讌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의 再翌日王世子會酌과 再翌日王世子夜讌으로 구성되었다. 壬辰進饌儀는 왕의 생신연으로 正日의 外進饌과 다음날의 內進饌과 夜進饌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의 翌日會酌과 翌日夜讌으로 구성되었다. 이상 6종의 진연을 종합해보면 進宴의

97) 주하영. 朝鮮時代 宮中宴享圖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9.

구성은 생신을 맞이하는 주인공에 따라 달라지는데 王의 생신인 己丑年(1829년)과 壬辰年(1892년)의 進饌에서는 王世子, 宗親, 儀賓, 文武百官, 諸臣들이 주축이 되어 남자들만의 外進饌儀가 설행되었고, 그 다음 날 王과 王妃가 함께 주인공이 되어 左右命婦들도 참여하는 가운데 內進饌과 夜進饌을 행하였으며, 3일째는 王世子를 중심으로 會酌이 설행되었다. 단 己丑年(1829년)의 內進饌儀과 夜進饌儀에 王妃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은 1828년 8월에 어머니 喪을 당했기 때문이다.⁹⁸⁾ 이에 반하여 大王大妃의 생신인 경우에는 王과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 公主 등의 왕실 가족과 封號를 가진 여성인 命婦, 宗親, 儀賓, 戚臣 등의 왕실 친인척들이 참여하는 內進饌과 夜進饌이 설행되었고 그 다음날에는 進饌을 올리는데 주축이 된 王을 주인공으로 하여 會酌이 행해지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戊申進饌儀(1848년)부터는 翌日이나 再翌日에 會酌 이외에도 夜讌이 거행된 것으로 나타나며, 丁亥進饌儀(1887년)에서는 의식절차가 소략하지만 王世子를 중심으로 한 會酌과 夜讌도 마련되었다.

넷째, 진연이 설행된 장소는 진연의 주인공에 따라 정해졌다. 대왕대비를 위한 內進饌일 경우에는 대왕대비가 거처하는 內殿에서 행해지며, 왕을 위한 外進饌일 경우에는 왕과 제신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집무를 보는 外殿에서 進宴이 설행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己丑年(1829년)과 壬辰年(1892년) 進饌의 경우 外進饌은 각각 外殿인 昌慶宮의 明政殿⁹⁹⁾과 景福宮의 勤政殿¹⁰⁰⁾에서 설행되었으며 內進饌, 夜進饌, 會酌, 夜讌 등은 內殿인 昌慶宮의 慈慶殿¹⁰¹⁾과 景福宮의 康寧殿¹⁰²⁾에서 거행되었다. 반면 戊子年(1828년)

98) 『純祖實錄』 권30 순조 28년 8월 戊寅(11)(48-314).

99) 조선 성종 15년(1484)에 창경궁이 조성되고, 그 정전으로서 명정전이 세워졌다.

100) 근정전은 경복궁의 정전이며 문무백관의 조하를 비롯한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법전으로, 태조 3년(1394)에 창건하였다.

101) 통명전은 창경궁의 연조 공간으로 명정전 서북쪽에 있으며,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침전의 중심 건물이다.

進爵, 戊申年 (1848년) 進饌, 丁丑年(1877년) 進饌, 丁亥年(1887년) 進饌은 여성들이 생신의 주인공이었으므로 내전인 昌慶宮의 慈慶殿¹⁰³과 通明殿, 景福宮의 萬慶殿¹⁰⁴에서 설행되었다.

다섯째, 진연의 주인공과 주요참석자는 진연의 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즉 外進饌의 경우 王을 주인공으로 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諸臣들이 주요 참석자가 되었으며, 內進饌은 주인공 이하 王과 王妃, 左右命婦, 宗親, 儀賓, 戚臣, 進饌所堂上郎廳 등 왕실의 가족과 친인척들 그리고 제신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夜進饌에는 주요 왕실 가족으로서 주인공이 大王大妃인 경우 王까지, 주인공이 王인 경우 王世子까지만 참석하여 설행되었다. 會酌은 進宴을 올린 王 또는 王世子를 비롯하여 진연의 제반 준비에 힘쓴 進饌所堂上和 郎廳, 그리고 命婦들이 참석하였다. 끝으로 夜讌에는 王 또는 王世子와 進饌所堂上郎廳만이 참석한 특징을 보였다.

3.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文化의 特徵

앞서 살펴본 戊子年(순조 28년) 進爵儀軌, 己丑年(순조 29년) 進饌儀軌, 戊申年(헌종 14년) 進饌儀軌, 丁丑年(고종 14년) 進饌儀軌, 丁亥年(고종 24년) 進饌儀軌, 壬辰年(고종 29년) 進宴儀軌를 중심으로 19세기 宮中進宴 儀式 내 進茶의 節次와 제반 구성요소들에 나타나는 茶文化의 特徵을 분석하였다.

102) 강녕전은 왕의 침전이므로 용마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103) "자경"이란 이름은 정조 임금이 즉위하면서 그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창경궁에 커다랗게 집을 짓고 자경당이라 이름을 붙인 데서 비롯되었다.

104) 만경전은 1865년 경복궁의 중건 당시 왕후들의 거처공간으로 지은 전각이었다.

1) 進宴 儀式別 進茶 節次

(1) 外進饌

儀軌에 기록된 수연을 기념하는 進宴 중 外進饌은 1829년 순조 사순 때와 1892년 고종의 41세 생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중 壬辰年(1892년) 外進饌에 進茶 의식이 나타난다. 王, 王世子, 諸臣들이 참석하는 外進饌에서 王世子가 王에게 一爵을 올린 후 進饌과 함께 進茶의식이 행해졌으며, 또한 班首¹⁰⁵⁾가 王에게 二爵을 올린 후 王世子에게도 茶가 올려졌다.

이러한 外宴에서는 행사의 진행을 이끌어가는 執事와 差備들이 남성들¹⁰⁶⁾이었다. 이를 보면 남성들 중심의 外進饌는 그 자리를 통해 君臣간의 義理를 재확인하고 결속을 도모하는 실천의 場으로서의 성격을 지녔을 것으로 사료된다.

(2) 內進饌(內進爵)

각 진연에서 內進饌의 절차를 비교하여 다음의 <표 21>로 제시하였다. 內進饌의 儀式상에서 進茶의 절차를 살펴보면 주인공이 대왕대비인 丁丑進饌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주인공이 입장함, 참석자들 모두가 拜함, 대왕대비에게 揮巾, 饌案, 匙楪 등의 進饌을 올림, 왕이 一爵을 올림, 대왕대비에게 鹽水, 小膳, 湯, 大膳, 饅頭 등의 進饌을 올림, 왕비가 二爵을 올림, 대왕대비에게 茶를 올림, 王世子가 三酌을 올림, 王, 王妃, 王世子에게 揮巾, 饌案, 匙楪 등 進饌을 올림, 四酌과 五酌을 올림, 宴會 가운데 王, 王妃, 王世子에게 대왕대비가 술을 내림, 王, 王妃, 王世子에게 茶를 올림, 禮를 마치는 순서인 禮畢을 행함의 순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흐름은 다른 儀軌에

105) 班首는 首席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106)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일지사. 2000, p.409.

기록된 內進饌의 경우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內進饌의 절차에 관련하여 己丑進饌儀를 살펴보면 주인공인 王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는 尙饌이 茶를 내오면 尙食이 이를 전하여 받들어 茶卓에 둔다¹⁰⁷⁾고 하였다. 여기서 尙食은 조선시대 내명부 가운데 종 5품 궁관으로서 進茶의 제반 의식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표 21> 內進饌의 節次 비교

戊子(1828) 2월 12일 慈慶殿進饌儀	己丑(1829) 2월 12일 慈慶殿進饌儀	戊申(1848) 3월 17일 通明殿進饌儀	丁丑(1877) 12월 6일 通明殿進饌儀	丁亥(1887) 1월 27일 萬慶殿進饌儀	壬辰(1892) 9월 25일 康寧殿進饌儀
入場	入場	入場	入場	入場	入場
拜	拜	拜	拜	拜	拜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一爵	一爵	一爵	一爵	一爵	一爵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二爵	二爵	二爵	二爵	二爵	二爵
進茶(왕, 왕비)	進茶(왕)	進茶(대왕대비)	進茶(대왕대비)	進茶(대왕대비)	進茶(왕, 왕비)
進饌	進饌	三爵	三爵	三爵	進饌
三爵	三爵	進饌	進饌	四爵	三爵
	四爵		四爵	進饌	四爵
	五爵		五爵	五酌	五爵
	六爵				六爵
	七爵				七爵
宴會, 進茶 (왕세자·빈)	宴會, 進茶 (왕세자·빈)	宴會, 進茶 (왕·왕비·경빈)	宴會, 進茶 (왕·왕비·왕세자)	宴會, 進茶 (왕·왕비·왕세자·빈)	宴會, 進茶 (왕세자·빈)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107) 국립국악원 편저, 《(己丑)進饌儀軌》, 국립국악원(편), 1980, p. 167 “尙饌進茶尙食傳捧置于茶卓”

그러나 內進饌의 宴會 뒤에 이어지는 進饌에서 王世子和 王世子嬪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에 있어서는 女執事가 王世子에게 茶를 올리고, 女官이 王世子嬪에게 茶를 올린다¹⁰⁸⁾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王世子和 王世子嬪에게 別行果를 올릴 때에도 進茶와 마찬가지로 王世子에게는 女執事가 進別行果를, 王世子嬪 앞에는 女官이 進別行果를 올린다.¹⁰⁹⁾ 이를 보면 進茶를 거행함에 있어 茶를 받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茶를 받들어 올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內進饌의 절차에서 주인공은 먼저 직계 자손이 올리는 술을 받은 후 尙食이 올리는 茶를 받는 進茶의 의식을 행하였고, 이어 자신에게 술을 올린 직계 자손들에게 술을 내리고 그들에게 女執事나 女官으로 하여금 茶도 올리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가족윤리로서의 孝의 자세를 내포하는 것이며 나아가 쌍무적인 관계로서 부모에 대한 孝와 자녀에 대한 慈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夜進饌

夜進饌은 內進饌을 행한 날 밤에 설행되었던 의식으로 주인공이 대왕대비인 경우에는 왕이 참석하며, 주인공이 왕과 왕비인 경우에는 왕세자만이 참석하는 소규모의 왕실 가족행사로 이루어졌다.

절차로는 주인공이 陞座한 후 참석자가 鞠躬四拜興平身을 한다. 주인공에게 揮巾, 饌案, 匙櫛을 올리는 進饌을 거행한다. 주인공에게 一爵을 올린 후 술안주인 湯을 올리는 進饌을 행한다. 참석자에게 揮巾, 饌案, 匙櫛, 酒, 湯을 올린다. 주인공과 참석자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를 거행한다. 마지막으로 禮畢을 창하면 모두 退場한다(표 22참조).

108) 국립국악원 편저. 《(己丑)進饌儀軌》. 국립국악원(편). 1980. pp. 167-170. “女執事進茶于 王世子前 女官進茶于”

109) 이성우·이효지. 進饌儀軌(券之一). 韓國生活科學研究 Vol.- No.3. 1985. p.39.

이와 같은 夜進饌에서의 進茶는 內進饌의 進茶와는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즉 內進饌에서 주인공을 위한 進茶가 二酌 후에 거행되고 참석자에게는 宴會에서 茶를 올렸던 것과는 달리 夜進饌에서는 宴會가 진행되는 후반에 주인공과 참석자 양자에게 茶를 올리는 進茶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주인공과 참석자를 위한 進茶가 함께 거행된 것은 內進饌에 비해 참석인원이나 進宴의 규모가 작으므로 儀式節次도 전체적으로 간소화한 데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때 주인공에게는 尙食이 茶를 올리며, 참석자에게는 女執事가 茶를 올렸다.¹¹⁰⁾

이러한 夜進饌에서 進茶 의식은 內進饌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인공과 직계 자손만이 참석하는 행해지는 절차라고 하는 유사점을 갖는 동시에 宮中の 公的 행사로서의 內進饌에 비해 보다 부모자녀의 친밀한 情을 나누는 私的인 자리로서의 가족 간 父子有親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표 22> 夜進饌의 節次 비교

戊子(1828) 2월 12일 慈慶殿 夜進別盤果儀	己丑(1829) 2월 12일 慈慶殿 夜進饌儀	戊申(1848) 3월 17일 通明殿 夜進饌儀	丁丑(1877) 12월 6일 通明殿 夜進饌儀	丁亥(1887) 1월 27일 萬慶殿 夜進饌儀	壬辰(1892) 9월 25일 康寧殿 夜進饌儀
入場	入場	入場	入場	入場	入場
拜	拜	拜	拜	拜	拜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一爵	一爵	一爵	一爵	一爵	一爵
進饌(왕)		進饌(대왕대비)	進饌(대왕대비)	二爵	
宴會, 進茶(왕, 왕비, 왕세자)	宴會, 進茶 (왕, 왕세자)	宴會, 進茶 (대왕대비, 왕)	宴會, 進茶 (대왕대비, 왕)	宴會, 進茶(대왕대비, 왕, 왕세자)	宴會, 進茶(왕, 왕비, 왕세자)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110) 국립국악원 편저. 《(己丑)進饌儀軌》. 국립국악원(편). 1980. p.172. “女執事進茶... 女執事進茶于”

(4) 會酌

19세기 궁중진연에서 거행된 會酌의 節次를 비교하여 다음의 <표 23>으로 제시하였다. 會酌은 수연의 주인공에게 進宴을 올린 사람이 이번에는 주인공이 되어 거행되는 의식으로서 예를 들어 王이 大王大妃를 위해 進饌儀를 마련했을 경우 會酌에서는 王이 주인공이 되며, 王世子가 王과 王妃를 위해 進饌儀를 마련했을 경우 會酌에서는 王世子가 주인공이 되어 설행되었다. 그러므로 會酌은 王이나 王世子를 중심으로 進宴의 제반 의식을 계획하고 준비와 진행을 담당했던 사람들 간의 會晤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會酌은 절차상 獻爵에 있어서도 참석자인 命婦 혹은 進饌所堂上郎廳이 아닌 女執事가 王이나 王世子에게 술을 올리며, 進茶 역시 一爵 후 주인공이 되는 王 또는 王世子에게 女執事가 茶를 올린다.¹¹¹⁾

<표 23> 會酌의 節次 비교

戊子(1828) 2월 12일 翌日 (王世子) 會酌儀	己丑(1829) 2월 13일 翌日 (王世子) 會酌儀	戊申(1848) 3월 19일 翌日 (大殿) 會酌儀	丁丑(1877) 12월 10일 翌日 (大殿) 會酌儀	丁亥(1887) 1월 28일 翌日 (大殿) 會酌儀	丁亥(1887) 1월 29일 再翌日 (王世子) 會酌儀	壬辰(1892) 9월 26일 翌日 (王世子) 會酌儀
入場	入場	入場	入場	入場	入場	入場
拜	拜	拜	拜	拜	拜	拜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一爵	*	一爵	一爵	一爵	一爵	一爵
宴會, 進茶 (왕세자)	宴會, 進茶 (왕세자)	宴會, 進茶 (왕)	宴會, 進茶 (왕)	宴會, 進茶 (왕)	宴會, 進茶 (왕세자)	宴會, 進茶 (왕세자)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111) 《(戊申)進饌儀軌》. 은하출판사. 1989. p.68. “女執事進茶”

會酌은 그동안 進爵이나 進饌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애쓴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王이나 王世子가 마련하는 격려의 자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5) 夜讌

夜讌은 會酌을 설행한 날 밤 王이나 王世子가 주최하고 進饌所堂上郎廳만이 참여하는 會酌보다 더욱 조촐한 宴會이다. 夜讌의 進茶는 會酌의 의식절차와 같이 一爵 후 女執事가 茶를 올리는 것¹¹²⁾으로 진행되었다(표 24참조). 戊申進饌儀軌의 기록에서부터 보이는 이 같은 夜讌 역시 會酌과 마찬가지로 進饌所에서 실질적인 進宴의 제반 준비를 담당하면서 내내 긴장을 했었을 堂上郎廳들에게 그동안의 긴장을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愛民을 위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夜讌의 節次 비교

戊申(1848) 3월 19일 翌日(大殿) 夜讌儀	丁丑(1877) 12월 10일 翌日日(大殿) 夜讌儀	丁亥(1887) 1월 28일 翌日日(大殿) 夜讌儀	丁亥(1887) 1월 28일 翌日(王世子) 夜讌儀	壬辰(1892) 9월 26일 翌日(王世子) 夜讌儀
入場	入場	入場	入場	入場
拜	拜	拜	拜	拜
進饌	進饌	進饌	進饌	進饌
一爵	一爵	一爵	一爵	一爵
宴會 進茶(왕)	宴會 進茶(왕)	宴會 進茶(왕)	宴會 進茶(왕세자)	宴會 進茶(왕세자)
禮畢	禮畢	禮畢	禮畢	禮畢

112) 《(戊申)進饌儀軌》. 은하출판사. 1989. p.69. “女執事進茶”

2) 進宴에서의 進茶의 특징

19세기 宮中進宴 儀式 내 進茶 節次의 제반 구성요소들에 나타나는 茶 文化의 특징을 정신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進茶의 정신적 특징

宮中進宴에서의 進茶 의식은 忠, 孝, 愛의 정신적 배경을 담고 있다.

① 忠

己丑年(1829년)의 명정전 外進饌과 壬辰年(1892년)의 근정전 外進饌은 大殿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정치를 이끄는 諸臣들과 함께 어우러진 公 的인 성격을 갖고 있는 남성위주의 進宴이다.

己丑年의 外進饌은 순조의 보령이 40세가 되는 해인 동시에 즉위한지 30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를 경축하기 위해 신하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었다.

壬辰年의 外進饌은 고종의 보령이 41세가 되고, 즉위한지 30년이 되는 해로 63년 만에 베풀어지는 대규모의 進宴이었다. 역시 왕을 주인공으로 王世子, 宗親, 文武百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연이 행해졌으며 進宴儀 가운데 王과 王世子에게 술과 茶를 올리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外進饌을 통해 王은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냈을 것이며, 제신들은 君臣간의 義理를 돈독히 하여 忠心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朝鮮後期の 進宴은 영조 20년(1744)에 찬정된 『國朝續五禮儀』 嘉禮에서도 일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嘉禮가 정치구조 및 신분 구조에 의한 인간관계의 새로운 상호관계의 형성과 관련되는 의식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¹¹³⁾고 볼 때 進宴에서의 外進饌 역시 君臣간 관계의 올바른 내용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정치 및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기제를 규정화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파악된다.

113) 오종록, 朝鮮初期의 國家儀禮와 國王,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강사발표회집, 2004. p. 28.

② 孝

進宴儀 가운데 內進饌은 大王大妃, 王, 王妃, 王世子, 王世子嬪을 포함한 왕실가족과 封號를 가진 命婦들, 宗親, 儀賓, 戚臣 등의 왕실 친인척들이 참여하여, 생신을 맞이한 주인공의 장수를 기원하며 거행하는 진연이었다. 왕실의 친인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內進饌은 가족의 화합과 화목으로 왕실의 가장 웃어른의 생신을 위해 孝를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內進饌의 절차에서 주인공은 먼저 직계 자손이 올리는 술을 받은 후 尙食이 올리는 茶를 받는 進茶 의식을 행하였고, 이어 자신에게 술을 올린 직계 자손들에게 술을 내리고 그들에게 女執事나 女官으로 하여금 茶도 올리도록 하였다. 이 같은 의식은 부모에 대한 孝와 자녀에 대한 慈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가족적인 화합은 夜進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夜進饌은 正日 進饌이 행해진 날 밤 大王大妃를 위해 王이 베풀거나 王과 王妃를 위해 王世子가 주최하는 진연으로 內進饌에 비해서는 소략하지만 王 또는 王世子가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親愛의 情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夜進饌에서 進茶 의식은 주인공과 직계자손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절차라고 하는 점에서 宮中の 公的행사로서의 內進饌에 비해 보다 부모자녀의 친밀한 情을 나누는 私的인 자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행실에 있어 효를 가장 중요시한 朝鮮時代에 있어 進宴는 王이 大王大妃를 위해, 王世子가 王을 위한 頌祝의 자리를 마련하여 그분의 장수를 기원함으로써 孝의 윤리로서 父子慈孝를 실천¹¹⁴⁾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르게 세우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14) 이길표·주영애.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신광출판사. 1999. pp.52-53.

③ 愛

會酌은 정일 진찬을 마친 다음 날 진연을 올린 사람이 주축이 되어 행해지며, 夜讌은 같은 날 밤에 설행되어지는 進宴이다. 즉 왕과 왕비를 위한 진찬이었을 경우 王世子가 會酌과 夜讌의 주인공이 되며, 대왕대비를 위한 진찬이었을 경우에는 王이 會酌과 夜讌의 주인공이 된다. 이러한 夜讌과 會酌의 進茶는 一爵 후 女執事가 王이나 王世子에게 茶를 올리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會酌은 진연을 준비하고 거행하는데 노고가 있는 命婦, 進饌所堂上郎廳들과 주인공이 함께 참석하는 소규모의 宴會였으며, 夜讌은 회작보다 더욱 소략한 자리로 命婦를 제외하고 주인공과 進饌所의 堂上, 郎廳 등 남성들만이 참석하는 자리였다. 이러한 會酌과 夜讌은 그 동안 진연을 준비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애쓴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조출한 자리로 사치스럽지 않게 검박한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아랫사람에 대한 愛民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백성을 향한 仁愛는 곧 仁民으로서 발현되게 된다. 즉 仁愛를 발현하는 방법은 가깝고 낮은데서 부터 높고 먼 데로 나아가는 공부 방법 처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주위에서부터 실천하여 점점 넓혀가는 것이다.
115)

儀軌의 賞典 부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王이나 王世子는 進宴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연회를 마련해주는 것 이외에도 內廐馬, 熟馬, 木, 布, 虎皮, 上弦弓 등의 물품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품계를 올려주거나 천인을 면제해 주는 것을 상으로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백성들의 미납된 貢物과 요역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쌀과 명주 등을 내려줌으로써 進宴의 기쁨을 나누는 동시에 愛民의 모습을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5)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예문서원, 2000. p.135.

(2) 進茶의 형식적 특징

宮中進宴에서 행해지는 進茶의 형식적인 면으로서 茶, 茶食, 茶席 및 茶具, 茶樂, 茶服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茶

朝鮮後期 進宴의 進茶 儀式에 쓰인 茶는 雀舌茶였다. 雀舌茶는 饌品의 하나로서 각 儀軌의 饌品조에 雀舌茶一器로 명시되어 있다(표 25 참조).

茶는 예부터 약용과 음용 외에도 우리의 의식을 정화시키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茶는 술과 함께 儀禮음식으로 인식되었으며, 儀禮에서는 茶를 마심으로써 神人의 融合化, 異質의 同質化, 關係의 秩序化를 목적¹¹⁶⁾하였던 것이다. 進宴에 나타나는 進茶는 술에 비해서는 일부를 차지하는 儀式이긴 하지만 進宴의 주인공을 향한 禮로 존경과 정성을 표하는데 茶가 가지고 있는 儀禮的 價値를 반영하고 있다.

<표 25>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

진다 대상 의케	대왕대비	왕	왕비	경빈	왕세자	왕세자빈
1828년 진작의케	·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1829년 진찬의케	·	雀舌茶 1器	·	·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1848년 진찬의케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	·
1877년 진찬의케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	雀舌茶 1器	·
1887년 진찬의케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1892년 진찬의케	·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	雀舌茶 1器	雀舌茶 1器

116) 이성우, 한국식품문화사. 서울: 교문사. 1984. p.258.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 송유역불, 양난 후의 사회혼란, 소빙기의 자연재해, 공차의 폐해 등으로 雀舌茶의 생산지역이 감소됨에 따라 進貢되는 차의 양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 茶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무리가 있었으며 宮中에서도 茶의 機能的인 면보다 儀禮的인 면이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어 주로 儀禮物로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로 보면 朝鮮後期 宮中進宴의 進茶에 사용된 茶는 인간 사이에 禮를 표현하는 儀禮性的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茶食

儀軌의 饌品을 살펴보면 宮中進宴에는 茶에 어울리는 음식인 茶食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후기 궁중에서 행해진 進茶 儀式의 일면으로서 茶食은 오늘날에 있어도 茶를 마실 때 차를 우려 고유한 色·香·味를 음미한 후 茶食을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사료된다.

조선왕조 궁중연회음식을 분석한 이효지의 연구¹¹⁷⁾를 참조하여 본 논문에서 고찰한 6종의 의궤에 제시된 다식을 정리하여 다음의 <표 26>으로 제시하였다. 순조 28년(1828) 進爵儀軌에는 녹말다식·각색다식·흑임자다식·송화다식·황률다식·3색 다식, 순조 29년(1829) 進饌儀軌에는 녹말다식·각색다식·흑임자다식·송화다식·황률다식이 기록되어 있다. 헌종 14년(1848) 進饌儀軌와 고종 14년(1877) 進饌儀軌에는 녹말다식·각색다식·흑임자다식이 나타나 있다. 고종 24년(1887) 進饌儀軌에는 녹말다식·각색다식·흑임자다식·송화다식·황률다식이, 고종 29년(1892) 進饌儀軌에는 녹말다식·흑임자다식·송화다식·황률다식·청태 다식·강분다식이 기록되어 있다.

117) 이효지. 조선왕조 궁중연회음식의 분석적 연구. 서울: 수학사. 1985. p.205.

<표 26> 宮中進宴에 나타난 茶食

의례 다식명	1828년 진작의례	1829년 진찬의례	1848년 진찬의례	1877년 진찬의례	1887년 진찬의례	1892년 진찬의례
녹말다식	○	○	○	○	○	○
각색다식	○	○	○	○	○	.
흑임자다식	○	○	○	○	○	○
송화다식	○	○	.	.	○	○
황률다식	○	○	.	.	○	○
청태 다식	○
강분다식	○
3색 다식	○
소계	6	5	3	3	5	6

이들 다식의 종류별 재료를 살펴보면 녹말다식에는 녹말·오미자·백청·연지를, 각색다식에는 녹말·오미자·백청·연지·흑임자·황률·송화에 신감초말·실백자·백당·청태 등이 추가적으로 쓰였다. 흑임자다식은 흑임자와 백청을, 송화다식은 송화와 백청을 썼으며, 황률다식은 황률과 백청을 주로 하고 실백자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청태 다식은 청태·백청·신감초말을 재료로 썼으며, 강분다식에는 강분·계피말·백청이 쓰였다. 3색다식의 재료로는 녹말·오미자·백청·연지·흑임자·실백자·황률·송화 등이 쓰였다.¹¹⁸⁾

③ 茶席 및 茶具

朝鮮時代 進饌圖는 궁중행사의 전모를 그림으로 상세히 정리한 행사도이다. 궁중행사도의 내용을 儀註와 비교해 보면 어좌의 위치, 의물의 배

118) 이효지, 전계논문, pp.205-207.

치, 진행자의 위치 등 행사의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 소상하고 정확하게 그려냈음을 알 수 있다.

進饌儀軌 儀註의 앞부분에 보면 의식을 행하기에 앞서 각 참석자들의 자리배치와 致詞箋文捧置案¹¹⁹⁾, 壽酒亭¹²⁰⁾, 茶亭 등의 자리를 명시해 두고 있다.

己丑年(1829) 순조의 사순 수연을 기록한 己丑進饌圖屏 제 2장면인 慈慶殿進饌圖의 대청부분에서는 尙食이 壽酒亭 및 茶亭을 기둥 밖 주렴 안의 동쪽 계단 위에서 북쪽에 가까이 설치한다.¹²¹⁾고 되어 있다(그림 7참조).

<그림 4> 丁亥進饌圖屏 萬慶殿進饌圖를 살펴보면 大王大妃의 座에는 壽酒亭과 茶亭을 옆내 동계 상에 설치하고, 王의 座에는 酒亭과 茶亭을 옆외의 동계 상에 설치하였으며, 王妃의 座에는 酒亭과 茶亭을 옆내의 서계 상에 설치하였다. 왕세자의 座에는 酒亭과 茶亭을 王의 酒亭 동쪽에서 조금 뒤에, 왕세자빈의 座에는 酒亭과 茶亭을 王妃의 酒亭의 서쪽에서 조금 뒤에 설치하였다.¹²²⁾

또한 進饌儀軌의 排設 기록에는 행사장을 꾸미는데 필요한 地衣·차일·방석·揮帳·병풍·탁자·樽花 등의 물품 배치가 실려 있다.¹²³⁾

戊申年(1848年) 대왕대비인 순원왕후의 六旬과 왕대비인 신정왕후의 四旬을 축하하기 위한 戊申進饌圖屏 제 2장면인 通明殿進饌圖(그림 8참조)의 대청 부분의 오른쪽 아래에도 茶亭이 보인다. 다정의 위치를 儀註에서 찾아보

119) 致詞箋文捧置案은 致詞와 箋文을 올려놓은 탁자이다.

120) 壽酒亭은 나라 잔치에 술 단지를 올려놓는 탁자이다. 壽酒란 장수의 뜻을 담은 술이라는 뜻이다. 수주정과 주정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대왕대비의 경우에 壽酒亭이란 용어를 쓰고, 왕·왕비·왕세자·왕세자빈의 경우에는 酒亭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121) 한국음악사료연구회. 국역 순조 기축년 「進饌儀軌」(2). 韓國音樂史學報. Vol.15. No.1. 1995. p.248.

122) 이성우·이효지. 《進饌儀軌》 卷之一. 韓國生活科學研究. 1985. p. 31.

123)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의례 해제집 2권. 2004. p.142.

면 다음과 같다.

대왕대비전좌를 통명전 중앙 북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수주정과 다정을 기둥 밖과 朱簾 안 사이의 북쪽 가까이에, 전하 좌를 주렴 밖의 서계 위 서쪽 가까이에 동향으로 설치하고 酒亭과 茶亭을 주렴 밖의 서계 위 북쪽 가까이에 놓는다. 왕비 좌를 殿內 동쪽 가까이에 서향을 설치하고, 주정과 다정을 기둥 밖과 주렴 안 사이에 동쪽 가까이에 놓는다.

고 하였다. 이로 보아 <그림 9>의 茶亭은 왕비의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다정 위에는 銀茶罐과 銀茶鍾이 있다.¹²⁴⁾(그림 8, 9참조)

丁亥年 萬慶殿에서 進饌할 때에 배설하는 位次를 보면 다음과 같다.

茶亭 1좌에는 주칠아가상시접반, 곡수각장 좌면지 1장, 개복홍수주복 1건은 모두 상방에서 마련한다. 은관개구 1좌, 옥다종개대구 1좌는 모두 내하에서 마련하며, 주칠소원반 1립, 개복홍저포복 1건은 모두 상방에서 마련한다. 은시접개구 1좌, 은영용시 1개, 은소아 1개, 은소아 1개, 은저 1쌍을 모두 내하에서 마련한다.¹²⁵⁾

<그림 5>에는 萬慶殿 야진찬, 익일회작, 익일야연, 재익일회작, 재익일야연 時 시접반을 겸설하고 은관개구, 은차종개대구, 소원반, 은시접개구, 은영룡시, 은소아, 은저구가 갖추어진 茶亭 1좌가 배설되어 있다. 여기서 茶亭 1좌에 갖추어진 여러茶具들은 進茶에서 茶를 우리는데 필요한 茶道具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進茶에 필요한茶具들은 進饌儀軌 圖式의 器用圖를 통

124) 이주향. 朝鮮時代 茶文化와 茶服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43.

125) 이성우·이효지. 《進饌儀軌》 卷之三·券之四. 韓國生活科學研究 1985. p.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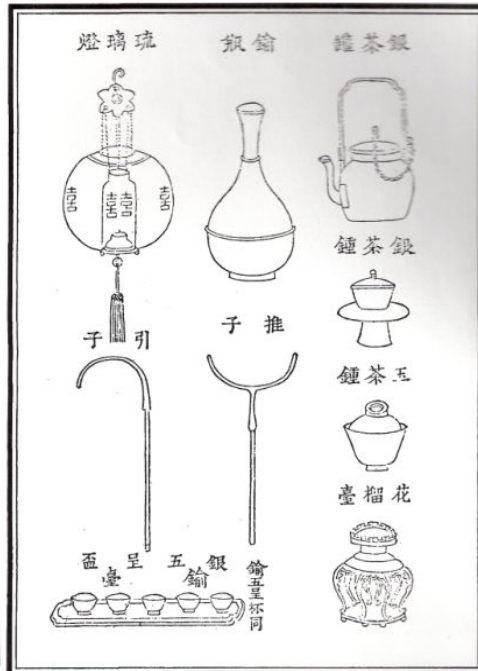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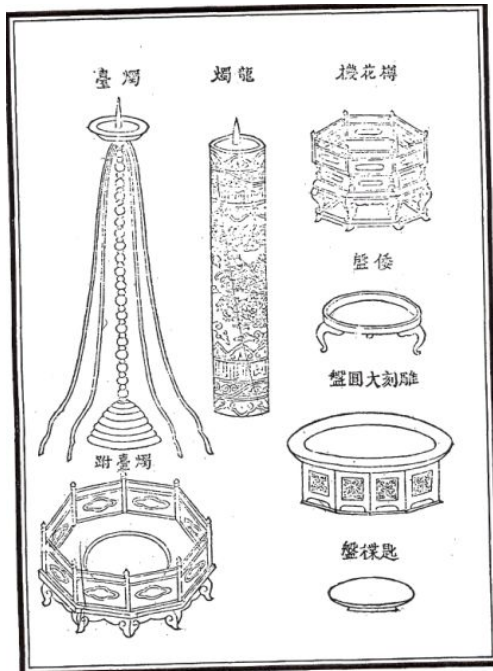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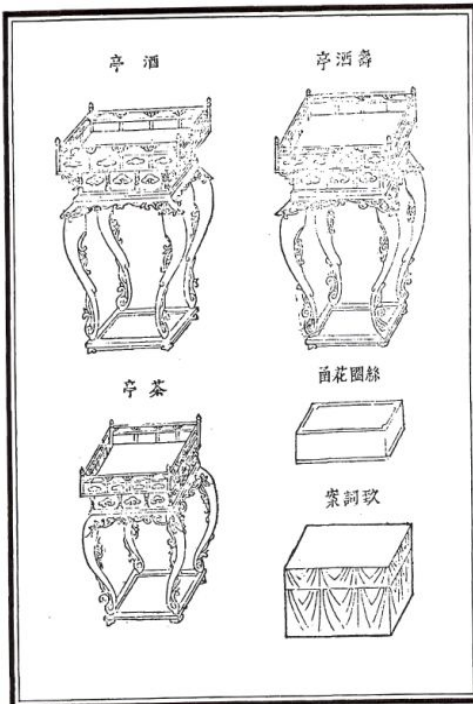
해서 볼 수 있다. 進茶할 때에 進茶差備가 銀茶罐에 雀舌茶를 우려 銀茶鐘과 함께 소원반에 받쳐 尙食에게 주면 大王大妃座 앞에 茶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성우·이효지는 壬辰年(1892년)의 근정전 외진찬에서 왕에게 올리는 進茶의 절차에 있어 雀舌茶는 朱漆小圓盤에 銀茶罐과 銀茶鐘이 올려졌다¹²⁶⁾고 밝힌 바 있다. 즉 각 의궤에서 進茶 시 소원반을 사용함에 있어 대왕대비, 왕, 왕비에게 차를 올릴 때에는 朱漆小圓盤을 사용하였고, 왕세자, 왕세자빈에게는 黑漆小圓盤을 사용하여 위아래의 구분을 두었던 것이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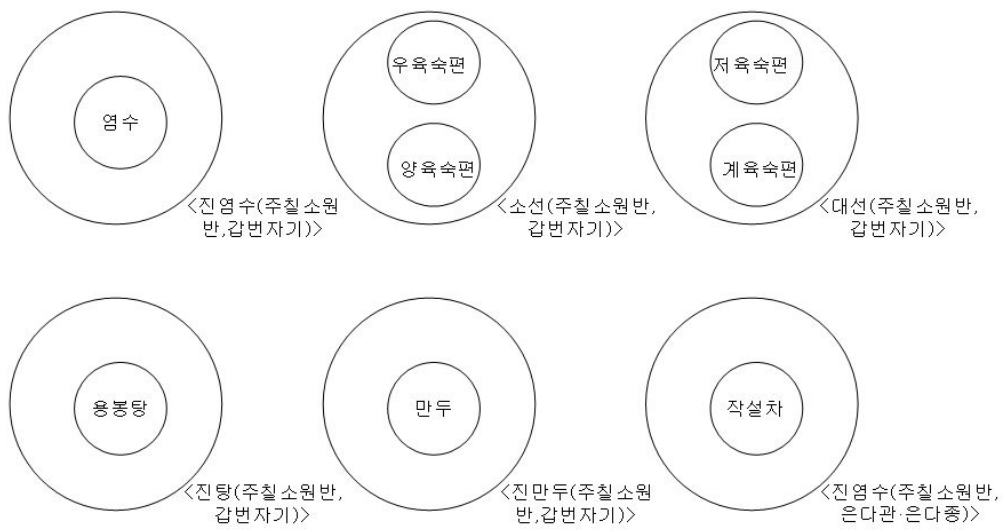


<그림 4> 《丁亥進饌圖屏》<萬慶殿進饌圖>
(출처: 박정혜, 궁중기록화 연구, 2000, p.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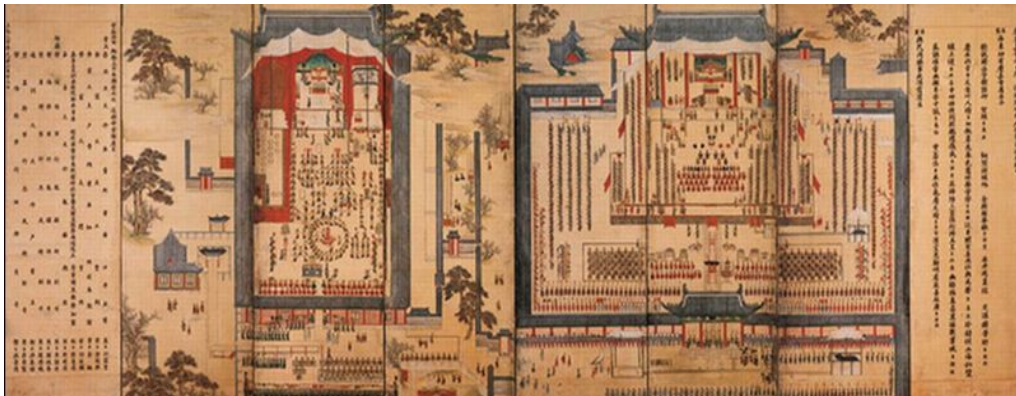
126)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궁중연향문화』 2권, 서울: 민속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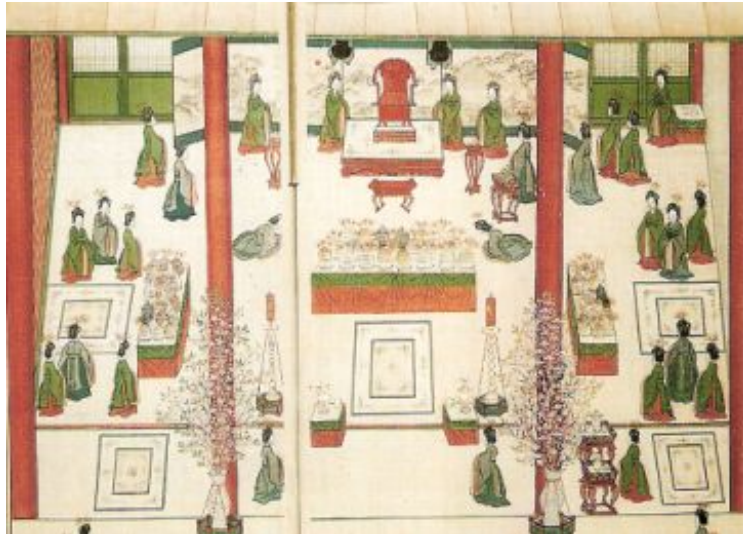
<그림 5> 《丁亥進饌儀軌》〈圖式-器用圖〉



<그림 6> 壬辰進饌儀軌 중 勤政殿 外進饌의 상차림- 進茶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궁중연향문화』 2권, 서울: 민속원, 2005. p.694)



<그림 7> 《己丑進饌圖屏》
 (출처: <http://www.empas.com>)



<그림 8> 《戊申進饌圖屏》의 제 2장면 〈通明殿進饌圖〉 대청부분
(출처: 박정혜.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일지사. 2000. p.489)



<그림 9> 《戊申進饌圖屏》의 茶亭
(출처: 박정혜.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일지사. 2000. p.489)

④ 茶樂

宮中에서 儀禮를 행할 때에는 항상 樂이 함께 연주되었다. 樂은 유교 정치의 刑政과 敎化 안에서 규범화된 각종 의례에 쓰였으며 의례의 시행 목적과 격식에 따라 차별화 되었다.¹²⁷⁾ 朝鮮後期 進宴儀軌에서 進茶 의식을 행할 때의 茶樂 역시 의례용 음악으로 사용되었다(표 27참조).

己丑年(순조 29년) 內進饌에서 왕에게 茶를 올릴 때 음악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女執事가 부복하고 휘를 들면 金殿樂之曲(鄉唐交奏)을 연주한다. 尙饌이 茶를 내어오면 尙食이 전하여 받들어 茶卓에 둔다. 음악이 그친다.¹²⁸⁾

戊申年(헌종 14년) 진찬에서 사용되어진 茶樂을 정리해보면 內進饌에서 大王大妃에게 茶를 올릴 때의 茶樂은

女執事가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면 萬斯年之曲(鄉唐交奏)을 연주한다. 尙食이 大王大妃座 앞에 茶를 올리면 樂이 그친다.¹²⁹⁾

라고 하여 內進饌에서 대왕대비에게 進茶를 할 때에는 萬斯年之曲을 연주하였다. 진연의 宴會에서 王과 王妃, 慶嬪에게 茶를 올릴 때의 茶樂은

女執事가 부복했다가 휘를 들면 淸平樂之曲(鄉唐交奏)을 연주한다. 女執事가 殿下 앞에 茶를 올리고, 여관이 王妃 앞에 茶를 올리며, 女官이 慶嬪 앞에 茶를 올린다. 樂이 그친다.¹³⁰⁾

127) 이계숙 외. 朝鮮朝 宮中儀禮와 音樂. 서울:서울출판부. 1998. p. 11.

128) 韓國音樂史料研究會. 國譯 純祖 己丑年 『進饌儀軌』(II). 韓國音樂史學報 제15집. p.252.

129) 전통예술원. 국역 헌종무신진찬의례. 서울:민속원. 2004. p.176.

고 하여 왕, 왕비, 경빈에게 차를 올릴 때는 淸平樂之曲이 연주되었다.

夜進饌에서 大王大妃와 王에게 차를 올릴 때의 茶樂으로는

女執事가 부복했다가 휘를 들면 吉祥之曲을 연주한다. 상식이 茶를 대왕대비전좌 앞에 올리면, 악이 그친다. 女執事가 부복했다가 휘를 들면 春長日之曲을 연주한다. 女執事가 茶를 전하 앞에 올리면, 樂이 그친다.¹³¹⁾

고 하였다. 夜進饌에서 대왕대비께 進茶 시에는 吉祥之曲이 연주되었고 왕에게는 春長日之曲이 연주되었다.

翌日會酌에서 왕을 주인공으로 하여 命婦, 進饌所 堂上과 郎廳들이 참석한 가운데 왕에게 茶를 올릴 때의 茶樂은

女執事가 부복했다가 휘를 들면 長春寶宴之樂을 연주하고 長春寶宴之舞를 춘다. 女執事가 茶를 올리면, 樂이 그친다.¹³²⁾

고 하여 翌日會酌에서는 進茶 시 長春寶宴之樂을 연주하였고 長春寶宴之舞를 추어 樂과 舞가 함께 이루어졌다.

翌日會酌이 이루어진 날 밤에 선행되어지는 翌日夜讌에서는 주인공인 왕에게 올려지는 進茶 시의 茶樂으로

女執事가 부복했다가 휘를 들면 壽齊天之曲을 연주하고 獻仙桃를 춘

130) 전통예술원. 국역 현종무신진찬의례. 서울:민속원. 2004, p.184.

131) 전통예술원. 상계서, p.193.

132) 전통예술원. 전계서, p.199.

다. 女執事가 茶를 올리면 樂이 그친다.¹³³⁾

고 하여 翌日夜讌儀에서도 進茶 시 壽齊天之曲이 연주되고 獻仙桃를 추어 樂과 舞가 함께 이루어졌다.

장정현은 朝鮮後期 進宴儀軌에 나타난 茶樂을 연구하여 茶를 올릴 때 연주된 茶樂은 女執事의 지시에 따라 연주가 시작되며 尙食, 女執事, 女官이 差備로서 茶를 올리는 進茶가 끝나면 茶樂이 그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夜進饌과 會酌에서는 樂이 연주되고 舞가 함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進宴에 쓰인 茶樂들의 대부분은 鄉唐交奏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궁중에서 進茶에 연주된 음악은 다른 의식에서도 사용되었으며 그중 많은 곡들이 향당교주라는 별칭을 적용하여 의식의 성격에 맞추어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宮中の 茶樂은 儀禮에 수반된 음악으로 茶와 함께 하였을 때 그 의미를 갖는다.¹³⁴⁾

133) 전통예술원. 국역 현종무신진찬의례. 서울:민속원, 2004, p.204.

134) 장정현. 朝鮮時代 茶樂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70.

<표 27> 朝鮮後期 進宴儀軌에 나타난 茶樂

儀軌名	設行動機	進宴構成	進茶의 主人公	茶樂
순조 28년 (1828) 戊子進爵儀軌	순원왕후 사순 송수연	內進爵儀	왕, 왕비	天仙子之曲 (鄉唐交奏)
			왕세자, 왕세자빈	賀聖朝之曲 (향당교주)
		夜進別盤果儀	왕, 왕비	萬斯年之曲
			왕세자	一剪梅之曲
		翌日王世子會酌儀	왕세자	文華之曲
순조 29년 (1829) 己丑進饌儀軌	순조 사순 송수연, 등극 기념연	外進饌儀	왕	진다 없음
			왕세자	
		內進饌儀	왕	金殿樂之曲 (향당교주)
			왕세자, 왕세자빈	清平樂之曲 (향당교주)
		夜進饌儀	왕	吉祥之曲 (향당교주)
			왕세자	春場日之曲 (향당교주)
翌日 王世子會酌儀	왕세자	玉香曲, 牙拍		
헌종 14년 (1848) 戊申進饌儀軌	왕대비 사순, 순원왕후 육순 송수연	內進饌儀	대왕대비	萬斯年之曲 (향당교주)
			왕, 왕비, 경빈	清平樂之曲 (향당교주)
		夜進饌儀	대왕대비	吉祥之曲 (향당교주)
			왕	春場日之曲 (향당교주)
		翌日會酌儀	왕	長春寶宴之樂, 長春寶宴之舞
翌日夜讌儀	왕	壽齊天之曲, 獻仙桃		

고종 14년 (1877) 丁丑進饌儀軌	대왕대비 칠순 송수연	內進饌儀	대왕대비	壽齊天之曲 (향당교주)
			왕, 왕비, 왕세자	昌運頌之曲 (향당교주)
		夜進饌儀	대왕대비	吉祥之曲
			왕	武寧之曲, 劍器舞
		翌日會酌儀	왕	嘉譙之曲, 春鶯囀
翌日夜譙儀	왕	祝華之曲		
고종 24년 (1887) 丁亥進饌儀軌	대왕대비 팔순 송수연	內進饌儀	대왕대비	天下太平之曲 (향당교주)
			왕, 왕비, 왕세자, 왕세자빈	應天長之曲 (향당교주)
		夜進饌儀	대왕대비	長生之曲 (향당교주)
			왕, 왕세자	大明之曲, 하황은
		翌日會酌儀	왕	長春不老之曲, 春鶯囀
		翌日夜譙儀	왕	祝華之曲(향당교주)
		再翌日 王世子會酌儀	왕세자	長春不老儀曲, 가인전모란
再翌日 王世子夜譙儀	왕세자	萬歲春儀曲(향당교주)		
고종 29년 (1892) 壬辰進饌儀軌	고종 41세 생신, 등극 30년 기념연	外進饌儀	왕	緝熙純段之曲 (향당교주)
			왕세자	三祝九如之曲 (향당교주)
		內進饌儀	왕, 왕비	長春不老之曲 (향당교주)
			왕세자, 왕세자빈	金殿萬年歡之曲 (향당교주)
		夜進饌儀	왕, 왕비	樂萬歲之曲, 四仙舞
			왕세자	長生寶宴之曲, 舞鼓
		翌日會酌儀	왕세자	萬斯年之曲, 拋毬樂
		翌日夜譙儀	왕세자	壽千春之曲

⑤ 茶服

朝鮮後期 進宴儀軌 관련 進饌圖屏을 통해 宮中進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을 일부 파악해낼 수 있다.

19세기 內進饌儀 가운데 進茶 의식에서 茶를 올리는 差備의 복식을 연구한 김경실은 戊子年(1828年) 進爵에서는 尙食, 尙飾, 尙贊, 尙記, 典飾, 尙引, 典賓, 典膳, 各差備 女官은 於于味를 쓰고 三色綠廣袖가 달린 草綠圓衫을 입고 안에는 藍色裳, 겉에는 紅紗裳을 입고 靑錦繡帶를 띠고 紅色溫鞋를 신는다¹³⁵⁾고 하였다.

己丑年(1829年) 進饌에서는 尙食, 尙飾, 尙贊, 尙記, 典飾, 尙引, 典賓, 典膳, 各差備 女官은 於于味를 쓰고 三色綠廣袖가 달린 草綠圓衫을 입고 안에는 藍色裳, 겉에는 紅紗裳을 입고 藍色金繡帶를 띠고 紅色溫鞋를 신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內進饌에서의 儀衛各差備는 戊子年과 己丑年에서 衫과 裳, 鞋는 동일하였으나 帶가 靑錦繡帶로 藍色金繡帶와는 상이함을 보였다. 그 밖에 戊申年(1848年) 進饌과 丁丑年(1877年) 進饌, 壬辰年(1892年) 進饌에서의 복식은 己丑年(1829年)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8, 9참조).

이상을 종합해보면 進宴에 있어 茶를 올릴 때의 差備의 복식은 저고리는 三色綠廣袖가 달린 草綠圓衫을 입으며, 치마의 안에는 藍色치마, 겉에는 紅紗치마를 입고, 靑錦繡帶 또는 藍色金繡帶를 착용하고, 紅色溫鞋를 신었음을 알 수 있다.

135) 김경실. 朝鮮時代 宮中進宴儀軌에 나타난 服飾의 造形美.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132.

IV. 結論 및 提言

본 논문은 朝鮮後期 宮中の 進宴儀軌 가운데 壽宴을 기념하는 進宴에 나타나는 進茶의 내용을 중심으로 朝鮮後期 宮中の 茶文化이 지니는 특징을 규명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朝鮮後期 宮中進宴을 통해 본 茶文化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壽宴을 기념하는 宮中進宴 내 進茶의 節次는 進宴의 儀式別로 忠, 孝, 愛의 정신적 배경을 담고 있었다. 王, 王世子, 諸臣들이 참석하는 남성들 중심의 外進饌의 경우는 王世子가 王에게 一爵을 올린 후 進饌과 함께 進茶의식이 행해졌으며, 班首가 王에게 二爵을 올린 후 王世子에게도 茶가 올려졌다. 이 같은 外進饌은 君臣간의 義理를 재확인하고 결속을 도모하는 실천의 場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다. 즉 外進饌을 통해 王은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위엄을 나타냈을 것이며, 제신들은 君臣간의 義理를 돈독히 하여 忠心を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다.

內進饌의 경우 주인공인 大王大妃나 王이 먼저 직계 자손이 올리는 술을 받은 후 尙食이 올리는 茶를 받는 進茶 의식이 행해졌고, 이어 자신에게 술을 올린 직계 자손들에게 술을 내리고 그들에게 女執事나 女官으로 하여금 茶를 올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內進饌의 의식은 가족윤리로서의 부모에 대한 孝와 자녀에 대한 慈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夜進饌에서 進茶 의식 역시 內進饌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인공과 직계자손만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절차라고 하는 유사점을 갖는 동시에 宮中の 公的 행사로서의 內進饌에 비해 보다 부모자녀의 친밀한 情을 나누는 私的인 자리로서 孝의 윤리인 父子慈孝를 실천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르게 세우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夜讌과 會酌의 進茶 의식절차는 모두 一爵 후 女執事가 茶를 올리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會酌과 夜讌은 進爵이나 進饌을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王이나 王世子가 마련하는 격려의 자리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즉 會酌과 夜讌은 그 동안 진연을 준비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애쓴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조출한 자리로 사치스럽지 않게 검박한 규모로 마련되었으며, 이는 백성들을 위하는 愛民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宮中進宴 儀式 내 進茶 節次는 제반 구성요소로서 茶, 茶食, 茶席 및 茶具, 茶樂, 茶服의 면에서 형식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먼저 朝鮮後期 進宴의 進茶 儀式에 쓰인 茶는 雀舌茶였으며 進宴에 나타나는 進茶는 술에 비해서는 일부를 차지하는 儀式이긴 하지만 進宴의 주인공을 향한 禮로 존경과 정성을 표하는데 茶가 가지고 있는 儀禮的 價値를 반영하고 있었다. 儀軌의 饌品을 통해 살펴본 茶食으로는 녹말다식, 각색다식, 흑임자다식, 송화다식, 황률다식, 청태 다식, 강분다식, 3색 다식이 제시되어 있었다. 茶席 및 茶具에 관해서는 儀軌의 圖式, 儀註와 排設 기록과 더불어 朝鮮時代 궁중행사의 전모를 그림으로 상세히 정리한 圖屏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 의식을 행하기에 앞서 각 참석자들의 자리배치와 茶具의 종류와 위치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행사장을 꾸미는데 필요한 地衣·차일·방석·揮帳·병풍·탁자·樽花 등의 물품 배치도 실려 있었다. 대표적인 茶具로서 茶亭을 예를 들면 이는 茶를 위한 床으로 은다관, 은다종, 옥다종, 은시접, 은영롱시, 은소아, 은저 등을 올려놓는데 사용되었으며, 銀茶罐에 雀舌茶를 우려 小圓盤 위에 은다관과 은다종을 올려 주인공 앞에 茶를 올렸다. 進宴에서 進茶 의식을 행할 때의 茶樂은 女執事의 지시에 따

라 연주가 시작되었으며 尙食, 女執事, 女官이 差備로서 茶를 올리는 進茶가 끝나면 茶樂이 그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夜進饌과 會酌에서는 樂이 연주되고 舞가 함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進宴에 쓰인 茶樂들의 대부분은 鄉唐交奏라는 별칭이 사용되고 있었다. 進宴에 있어 茶를 올리는 역할을 담당했던 差備의 복식은 저고리는 三色綠廣袖가 달린 草綠圓衫을 입으며, 치마는 안에는 藍色치마, 겉에는 紅紗치마를 입고, 靑錦繡帶 또는 藍色金繡帶를 착용하고, 紅色溫鞋를 신는 특징이 있었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와 같이 19세기 進宴儀軌를 중심으로 朝鮮後期 宮中 進宴에 나타나는 茶文化을 考察하는 研究는 당시 宮中에서 영위되었던 茶文化의 양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역사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壽宴을 기념하는 설행동기를 지닌 의궤에만 연구의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접근 범위로 進宴의 설행동기에 따른 儀式 상에 나타나는 進茶의 절차와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茶文化에 대한 史的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提言한다.

參 考 文 獻

단행본

-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3.
- 국립국악원 편저. 《(己丑)進饌儀軌》. 국립국악원(편). 1980.
- 국립국악원 편저. 《(戊申)進饌儀軌》. 서울:은하출판사. 1989.
-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예문서원. 2000.
- 김문식·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례. 서울:돌베개. 2005.
- 김상보. 조선왕조 궁중의례음식문화. 서울:수학사. 1995.
- 김상보. 조선왕조 궁중연회식의례음식의 실제. 서울:수학사. 1995.
- 동방미디어. 『고종순종실록』.
- 문화재관리국·국민대 한국학연구소. 朝鮮時代 養老宴儀禮와 御宴儀禮의 研究. 서울: 문화재관리국 1997.
- 박정혜. 조선시대 궁중기록화 연구. 서울:일지사. 2000.
- 법제처. 國朝五禮儀. 1982.
-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의례 해제집 1권.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
- 수원시. 원행을묘정리의례.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동진인쇄사. 1996.
- 이길표·주영애. 전통가정생활문화연구. 서울:신광출판사. 1999.
- 이성우. 한국식품문화사. 서울:교문사. 1984.
- 이성우. 韓國料理文化史. 서울:교문사. 1985.
- 이재숙 외. 朝鮮朝 宮中儀禮와 音樂. 서울:서울출판부. 1998.
- 李泰鎭. 소빙기 자연재해와 전란의 피해. 「한국사」 30권. 국사편찬위원회. 1998.
- 전통예술원. 국역 헌종무신진찬의례. 서울:민속원. 2004.
- 정영선. 韓國茶文化. 서울:너럭바위. 2003.

한국데이터베이스 연구소. 『朝鮮王朝實錄』 CD-ROM. 서울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시대 궁중연향문화』 2권. 서울:민속원. 2005.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식생활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서울:일지사. 2005.

학회지

김경실. 憲宗王后 七旬 進饌 10曲圖屏과 辛丑進饌儀軌에 나타난 服飾研究.
복식 32. 1997. pp.1-13.

김상보. 朝鮮通信使 및 日本使臣을 통해 본 韓·日간의 飲食文化의 비교와,
대마도에서의 宴會를 통해서 朝鮮王朝의 壽杯床·果盤·阿架床 考, 韓
國食生活文化學會誌, 14(2). 1999. pp.115-129.

김상보 외 5명.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 중 萬慶殿 正日
進饌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1). 1991. pp.53-72.

_____.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의 食儀禮에 대
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1). 1991. pp.43-56.

_____.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 중 萬慶殿 夜
進饌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2). 1991.
pp.175-183.

_____.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 중 萬慶殿 翌
日夜宴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3). 1991.
pp.211-230.

_____. 進饌儀軌를 통하여 본 1887년 朝鮮王朝 宮中 進饌宴 중 萬慶殿 再
夜翌日會酌과 萬慶殿進再饌翌日 夜宴의 상차림에 대한 고찰. 東아시
아食生活學會誌, 1(3). 1991. pp.239-246.

김영봉. 조선조 儀軌에 나타난 宴禮樂의 변천. 民族音樂學 14(1). 1992.

pp.56-88.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의 변천. 東方學 6. 2000. pp.52-93.

_____. 조선시대 궁중연향 고찰.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6. 2000. pp.143-171.

박은순. 朝鮮後期 進饌儀軌와 進饌儀軌圖, 民族音樂學-己丑年 「진찬의궤」를 중심으로. 17(1) 1995. pp.175-198.

박정혜. 「<水源陵幸圖屏>연구」 『美術史學研究』 189호. 1991. pp.27-68.

송방송. 己丑年 「進饌儀軌」의 公演史料의 性格. 韓國文化 16. 1995. pp. 127-180.

오종록. 朝鮮初期의 國家儀禮와 國王.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수강사발표회집. 2004. pp. 1-9.

윤서석. 조선시대 궁중연회음식 중 과정류의 분석적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3). 1986. pp.79-100.

_____. 高宗 24년 進饌儀軌 笏記 儀禮節次에 대한 分析的 研究.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2). 1991. pp. 151-168.

_____. 高宗 24년 進饌儀軌 饌物에 대한 分析的 研究. 東아시아食生活學會誌 1(3). 1991. pp.259-277.

윤정민. 조선 순조 『儀軌』에 기록된 정재 사료연구. 舞踊學會論文集 33. 2002. pp. 79-96.

이미영. 憲宗時代의 宮中呈才 및 呈才服飾에 관한 比較 研究. 清藝論叢 9. 1995. pp.391-410.

이성우·이효지. 進饌儀軌(券之一). 韓國生活科學研究 Vol.- No.3. 1985. pp.7-77.

이성우·이효지. 進饌儀軌(券之二, 券之四). 韓國生活科學研究 Vol.- No.4. 1986. pp.5-54.

이효지. 『進饌儀軌』의 調理學的 考察. 韓國生活科學研究 3. 1985.
pp.271-291.

정영선. 조선왕조 別茶禮에 관한 고찰. 한국다문화연구지. 제10권. pp.23-44.

최배영. 家禮 展開의 歷史的 背景 考察.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제2권 1호.
1999. pp.183-195.

한국음악사료연구회. 국역 순조 기축년 「進饌儀軌」(1). 韓國音樂史學報
14(1). 1995. pp.127-160.

한국음악사료연구회. 국역 순조 기축년 「進饌儀軌」(2). 韓國音樂史學報
15(1). 1995. pp.241-268.

한국음악사료연구회. 국역 순조 기축년 「進饌儀軌」(3). 韓國音樂史學報
17(1). 1996. pp.221-257.

한국음악사료연구회. 국역 순조 기축년 「進饌儀軌」(4). 韓國音樂史學報
22(1). 1999. pp.181-214.

논문

김경실. “朝鮮時代 宮中進宴儀軌에 나타난 服飾의 造形美”.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숙희. “韓國茶禮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은옥. “朝鮮後期 食器 및 飲食의 特色과 變化”.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일희. “生態的 觀點에서 본 茶文化空間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주향. “朝鮮時代 茶文化과 茶服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이현숙. “朝鮮時代 茶 產地 研究 -文獻을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이효지. “朝鮮王朝後期の 宮中宴會飲食의 分析的 考察”.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장정현. “朝鮮時代 茶樂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주하영. “朝鮮時代 宮中宴享圖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진복선. “祭祀茶禮와 接賓茶禮의 비교 研究”.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한기정. “朝鮮時代 喪·祭禮를 통해본 獻茶儀 考察”. 성신여자대학교 문화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A Study in tea culture look through the Royal Court's feast in the latter term of Joseon

Kim, Kyung Hee
Major in Propriety and Tea-Ceremony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book studied to consider Jinda which recorded as a Jinyeon's ceremony process and examine its Tea culture's special features closely which appears in the Royal Court's when we study the tea culture of the latter term of Joseon.

Six Kinds of Auegye which was selected as a documentary records for study are Muja year(Soonjo 28year)'s Jinjak, Ki-Chook year(Soonjo 29year)'s Jinchan, Moosin year(Hunjong 14years)'s Jinchan, Jungchook year(Kojong 14years)'s Jinchan, Junghae year(Kojong 24year)'s Jinchan and Imjin year(Kojong 29years)'s Jinchan. they recorded for the a birthday feast' ceremony.

1. To look closely into Joseon Royal Court's Jinyeon we studied the Jinyeon's meaning and culture. Jinyeon means a festival for

nations happy event's in Joseon era. In the former term of Joseon celebrate a huge feast like Jinpoongjung but as time goes by the Jinyeon was not for the king but his parents. It was getting changes it's inclination from nations feasts into celebration of parent's birthday in the family. So the Jinyeon in the period of the latter term of Joseon was relatively pursuit a small way. as a meaning of feast like a Royal family's birthday ceremony it was putting down a culture which can share the happiness.

2. To study closely into the tea culture of Joseon Royal Court's Jinyeon we will see the diverse aspects of tea culture which appeared at Court. We analyzed the reason, time, component, place, main person and the attendant which recorded six kinds of Jinyeon Auegye we chose In this study.

In the latter term of Joseon society tea was used for the special ceremony so they use tea not only when they do Yeonhyang but Billye, Gullye, Hungye and Auelye ceremony. When We saw the motive of the Jinyeon we found a special feature that JinJak was conducted to celebrate The Great King's Mother or the King's birthday. Jinyeon took around 4days from the birthday when we include all sorts of events. The attendants of Jinyeon was differ from who's birthday the day was. In Jinyeon of King's birthday Ki-Chook year(1829year) and Imjin year (1892year), the Crown Prince and the relatives attended and conducted Ouejinchanaue just for male and the next day they took place the Naejinchan and Yajinchan in that the King, Queen and their female relatives attended. The third day the Crown Prince manage the Whaejakaue

with the people who made efforts. But in the Great King's Mother's birthday they conducted Naejinchan and Yajinchan with a Royal family King, Queen, the Crown Prince, the Crown Princess, and Princess attended. the next day king manage Whaejak with the people who made efforts in Jinchang for the Great King's Mother.

The main person of Jinyeon decide the place. Naejinyeon for the Great King's Mother it was Naejeon where she lives. Waejinchan for the king it was Waejeon he's working place.

The main person and attendants has directly relation with Jinyeon's component. In Waejinyeon King's main and followers were main attendants. Naejinyeon the Royal family's main and followers were main attendants. Yajinchan When the Great King's Mother's main to King and the King main then to Crown Prince attended. Whaejak King or the Crown Prince and Jinchansojangsang, Nangchung and female relatives attended. At the end Yajin just King or the Crown Prince and Jinchansojangsang-nangchung attended.

Like you see in this study we separate the tea-culture's feature of the Joseon in mental and form which appears in the process of Jinda in the ceremony of the Royal Court's Jinyeon in 19th century. First we can see the Royal Court's Jinyeon has mental background like Chung, Hyo, Ae.

In case of Waejinchan In which King, the Crown Prince and the followers attended, after the Crown Prince observe a one glass of alchole they conduct Jinjak and Jinchang. the Crown Prince received a tea after the Bansoo served two glasses of alchole to King. Sovereign and subjects confirm their loyalty and strengthen it from

Yajinchan.

Second, The Process of JinDa in KungJung-Jinyeon has several components Tea-Food(a kind of pattern-pressed candy), Tea-seat, Tea-Implements, Tea-Music, Tea-Garments. When we see a special feature in the form, they use JakSul-tea at the Jinda ceremony of Jinyeon in the latter term of Joseon. Though Jinda was just a small part of the ceremony compare to wine, It reflected an important value of salution, honor, sincerity to the person of Jinyeon. They records that they use three colored Tea-Food like Starchy Tea-Food, All colored Tea-Food, Black- sesame Tea-Food, Pine pollen Tea-Food, WhangRyul Tea-Food, Green lichen Tea-Food, GangBun Tea-Food. We could understand Tea-seat and Tea implements from schematization of Aue-Gye and the records. From them we can comprehend that thay marked all attendance's seat place, tea implements and it's places before the ceremony. Female musician start the Tea-Music In Jinda ceremony in Jinyeon.They stopped the Tea-Music when the Tea- secretary complete Jinda. Most of Tea-Music used in Jinyeon has byname HyangDang-Kyoju. The Tea-secretary's dress and its ornament was Greencolored-Wonsam with Threecolored-Nocwhangsoo attached as jacket and they put on deep blue color skirt inside, red color skirt outside. Wear a belt which embroided with bluegold color or deepbluegold one and they wear red colored shoes.